

모로 박사의 섬

The Island of Doctor Moreau

H.G. 웰스 (H.G. Wells)

1896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5-28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Claude Opus 검수

책 정보

원전

H.G. 웰스 (H.G. Wells), "The Island of Doctor Moreau" (William Heinemann 1896)

저자

H.G. 웰스 (H.G. Wells) · 1866-1946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159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검수

Claude Opus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8

번역 정책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원작의 분위기와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
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입

1887년 2월 1일, 레이디 베인 호는 남위 1도, 서경 107도 부근에서 버려진 난파선과 충돌하여 침몰했다.

1888년 1월 5일, 그로부터 11개월 하고도 4일이 지난 날이었다. 칼 라오에서 분명히 레이디 베인 호에 승선했던 나의 숙부, 에드워드 프렌딕 씨는 익사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남위 5도 3분, 서경 101도 지점에서 구조되었다. 그가 타고 있던 작은 개방식 보트는 이름조차 알아볼 수 없었지만, 실종된 스쿠너 이페카쿠아나 호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숙부는 자신이 겪은 일을 너무나 기이하게 설명한 나머지, 정신이 나간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다. 이후 숙부는 레이디 베인 호에서 탈출한 순간부터 기억이 완전히 끊겼다고 주장했다. 당시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숙부의 사례를 육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기이한 기억 상실의 사례로 두고 논의하기도 했다. 숙부의 조카이자 상속인인 필자가 숙부의 유품 속에서 다음의 기록을 발견했다. 다만, 이 글을 출판해 달라는 명확한 요청은 없었다.

나의 숙부가 구조된 해역에서 존재가 확인된 섬은 노블 섬뿐이다.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화산섬이다. 1891년에 HMS 스코피언호가 그 섬을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상륙했던 선원들은 기이하게 생긴 흰 나방과 돼지, 토끼, 그리고 다소 특이한 쥐 몇 마리를 제외하고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가장 핵심적인 사실에 있어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숙부의 뜻에 따라 이 기이한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 것이 큰 해가 되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적어도 이 이야기에는 믿을 만한 정황이 있다. 숙부는 남위 5도, 동경 105도 부근에서 인간의 지식 너머로 사라졌으나, 11개월이 지난 뒤 같은 해역에서 다시 나타났다. 그 기간 동안 숙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있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1887년 1월, 존 데이비스라는 술주정뱅이 선장이 이끄는 이페카쿠아나 호라는 스쿠너 선이 퓨마와 다른 동물들을 싣고 아프리카에서 출발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배는 남태평양의 여러 항구에서 잘 알려진 배였으며, 1887년 12월 상당량의 코프라를 실은 채 바이나에서 출발해 행방불명되었다. 이 날짜는 숙부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찰스 에드워드 프렌딕

(에드워드 프렌딕이 기록한 이야기.)

제I장

<레이디 베인>호의 작은 보트 안에서.

<레이디 베인>호의 침몰에 관해 이미 알려진 사실들에 내가 무언가를 더 보태려는 생각은 없다. 누구나 알다시피, 이 배는 칼라오를 떠난 지 열흘째 되던 날 버려진 난파선과 충돌했다. 선원 일곱 명이 탄 구명 보트는 18일 뒤 영국 해군 함정 머틀호에 의해 구조되었고, 그들이 겪은 처참한 고난의 이야기는 훨씬 더 끔찍했던 메두사호 사건만큼이나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나는 이미 발표된 <레이디 베인>호의 기록에, 어쩌면 그만큼이나 끔찍하고 훨씬 더 기이한 또 다른 이야기를 덧붙여야만 한다. 지금까지는 작은 보트에 타고 있던 네 명의 남자가 모두 죽은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나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나 자신이 바로 그 네 명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분명히 밝혀둘 점이 있다. 작은 보트에는 결코 네 명의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다. 인원은 세 명이었다. 선장이 "보트에 뛰어드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한 콘스탄스는, 우리에게는 다행이었으나 그 자신에게는 불행하게도 우리에게 닿지 못했다. 그는 부서진 선수 돛대의 밧줄 더미 사이에서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가 손을 놓는 순간 작은 밧줄 하나가 그의 뒤통치를 낚아챘다. 그는 잠시 동안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매달려 있다가, 그대로 떨어지며 물 위에 떠 있던 도르래나 돛대 조각에 부딪혔다. 우리는 그를 향해 노를 저어 갔으나, 그는 끝내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

[1] 《데일리 뉴스》, 1887년 3월 17일.

다행히도 그가 우리에게 닿지 않았다고 말하겠다. 어쩌면 그에게도 다행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경보가 워낙 갑작스럽게 울린 데다 배가 어떤 재난에도 대비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작은 물통에 담긴 물 조금과 눅눅해진 선박용 비스킷뿐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명정의 사람들이 식량을 더 넉넉히 챙겼을 것이라 생각했고(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지만), 그래서 그들을 향해 소리쳐 불렀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목소리를 듣지 못한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정오가 지나서야 겨우 이슬비가 그쳤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배가 심하게 요동치는 바람에 우리는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볼 수도 없었다. 나를 포함해 지금까지 탈출에 성공한 사람은 총 세 명이었다. 나처럼 승객인 헬마라는 남자와, 이름은 모르지만 말을 더듬는 체구가 작고 건장한 선원 한 명이었다.

우리는 굶주림 속에 표류했다. 물이 바닥나고 참을 수 없는 갈증이 우리를 괴롭힌 채, 그렇게 총 8일을 보냈다. 이틀째가 지나자 바다는

서서히 찾아들어 거울처럼 매끄럽고 고요해졌다. 일반적인 독자라면 그 8일간의 시간을 상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다행히도 그들에게는 상상에 보탬 만한 기억이 남아 있지 않으니 말이다.

첫날이 지나자 우리는 서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보트 안 제 자리에 누워 수평선을 응시하거나, 날이 갈수록 커지고 초췌해지는 눈으로 동료들을 덮쳐오는 비참함과 쇠약함을 지켜볼 뿐이었다. 태양은 무자비하게 내리쬘었다. 넷째 날에 물이 완전히 떨어지자, 우리는 이미 기괴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고 눈빛으로 그 생각들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품고 있던 그 생각을 헬마르가 입 밖으로 꺼낸 것은 아마도 여섯째 날이었을 것이다.

그때 우리의 목소리는 매우 건조하고 가늘어서, 서로에게 몸을 기울인 채 말을 아껴야 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그 제안에 맞섰다. 차라리 보트를 침몰시키고 우리를 뒤쫓는 상어들과 함께 죽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헬마르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마실 물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자, 선원은 결국 그의 뜻에 따랐다.

하지만 나는 제비뽑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밤새도록 선원은 헬마르에게 끊임없이 속삭였고, 나는 손에 접이식 칼을 쥐든 채 배 앞머리에 앉아 있었다. 사실 내게 싸울 용기가 남아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아침이 되자 나는 헬마르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한 명을 가려내기 위해 동전들을 던졌다. 제비는 선원의 차례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는 우리 중 가장 힘이 썩기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맨손으로 헬마르를 공격했다. 두 사람은 서로 뒤엉켜 거의 일어선 채로 싸웠다. 나

는 선원의 다리를 붙잡아 헬마르를 도우려 하며 배 안을 기어 그들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선원이 발을 헛디뎠고, 두 사람은 배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함께 바다로 굴러떨어졌다. 그들은 돌덩이처럼 가라앉았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웃었던 기억이 난다. 왜 웃었는지 스스로도 의아했다. 웃음은 마치 외부에서 들이닥친 무언가처럼 갑작스럽게 나를 덮쳤다.

얼마나 오랫동안 배의 가로 좌판에 몸을 누어 있었는지 모르겠다. 기운만 있다면 차라리 바닷물을 들이켜 미쳐버림으로써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누워 있는 동안, 수평선 너머로 돛 하나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아무런 감흥도 없었다. 정신이 혼미했던 모양이지만, 뒤이어 일어난 일들은 아주 또렷하게 기억난다. 파도에 머리가 흔들리고, 돛이 걸린 수평선이 위아래로 출렁이던 모습이 기억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가 이미 죽었다고 확신했던 것도 분명히 기억한다. 나를 구하기에는 고작 이만큼의 시간이 늦어버렸으니, 참으로 허망한 농담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내게는 영겁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나는 가로 좌판에 머리를 꺾 채 바다 위로 떠오르는 스쿠너를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그 배는 앞뒤로 스쿠너 돛을 단 작은 배였다. 배는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나아가느라, 점점 넓어지는 호를 그리며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누군가의 주의를 끌어보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배의 옆면이 보인 이후의 일은 선미의 작은 선실에 들어앉을 때까지 무엇 하나 또렷이 기억나지 않는다.

누군가 나를 들어 올려 현문으로 옮겨주던 장면과, 주근깨 가득한 커다란 둥근 얼굴이 붉은 머리카락에 둘러싸인 채 난간 너머로 나를 내려다보던 모습이 희미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또한 내 눈앞에 아주 가까이 다가왔던, 기이한 눈을 가진 검은 얼굴에 대한 단편적인 인상도 있다. 하지만 그건 그저 악몽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마주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내 치아 사이로 무언가 들이부어지던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한데, 기억나는 건 그게 전부다.

제II장

정처 없이 떠도는 사내.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머물고 있던 선실은 좁고 다소 어수선했다. 금빛 머리카락에 뿔뿔한 밀짚색 콧수염을 기르고 아랫입술이 처진 젊은 남자가 내 손목을 붙잡은 채 앉아 있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그의 회색 눈동자는 물기가 어린 채 묘하게 아무런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때 머리 위에서 철제 침대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와 함께 커다란 짐승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동시에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는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던졌다.

“이제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괜찮다고 말했던 것 같다.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는지는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내 얼굴에 서린 의문을 알아챈 모양이었다. 내 목소리는 내 의지대로 나오지 않았다.

“당신은 굶주린 채 보트 한 척에 실려 구조되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레이디 베인 호였고, 난간에는 혈흔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내 눈에 내 손이 들어왔다. 뼈마디가 덜렁거리는 더러운 가죽 주머니처럼 보일 정도로 손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그러자 배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이 다시금 떠올랐다.

“이것 좀 마셔보게.” 그가 말하며 차갑게 식힌 붉은 액체를 한 잔 건넸다.

그것은 피 맛이 났고, 내 몸에 힘이 솟구치게 했다.

“의사가 탄 배에 구조되다니, 운이 좋았군요.” 그가 말했다. 그는 침이 새는 듯 발음을 뭉개며, 희미하게 혀 짧은 소리가 섞인 말투로 이야기했다.

“이 배는 무슨 배입니까?”

오랫동안 침묵을 지킨 탓에 목소리가 췌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나는 천천히 물었다.

“아리카와 카야오를 오가는 작은 무역선이에요. 처음에는 이 배가 원래 어디서 굴러온 건지 묻지도 않았지만, 아마 태생부터 멍청이들만 사는 땅에서 왔겠지요. 저 역시 아리카에서 탄 승객이고요. 이 배의 주인은 데이비스라는 선장인데, 정말 얼간이예요. 선박 면허인지 뭔지를 잃어버린, 그렇고 그런 부류의 인간이죠. 어떤 작자인지 아시잖아요. 이 배에다 하필이면 ‘이페카쿠아나’ 같은 한심하고 끔찍한 이름을 붙였

다니까요. 하기가 바람은 없이 너울만 크게 일 때면, 이 배가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하긴 해요. 속이 뒤집힐 만큼 요동치거든요.”

머리 위에서 다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와 사람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이어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에게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멍청한 놈아!”라며 당장 그 만두라고 꾸짖는 소리였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대화 상대가 말했다. “정말이지 한 곳 차이였어요. 일단 몸에 약물을 좀 주입해 두었습니다. 팔이 아픈 게 느껴지시나요? 주사를 맞았거든요. 거의 서른 시간 동안 의식을 잃고 계셨습니다.”

나는 천천히 생각에 잠겼다. (그때 수많은 개가 짖어대는 소리 때문에 정신이 산만해졌다.) “이제 고형식을 먹어도 됩니까?” 내가 물었다.

“나 덕분에이지.” 그가 말했다. “지금도 양고기가 끓고 있다니까.”

“네, 먹을 수 있습니다.”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양고기라면 좀 먹을 수 있겠군요.”

“하지만,” 그가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그 배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는지 정말이지 듣고 싶어 죽겠단 말이야. 아, 저놈의 울음소리 같으니라고!” 그의 눈빛에서 어떤 의구심이 스치는 것을 나는 느낀 듯했다.

그가 갑자기 선실을 나갔다. 곧이어 누군가와 격렬하게 언쟁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상대방은 그에게 횡설수설 대꾸하는 듯했다. 끝에는 주먹다짐이라도 벌어진 것 같았지만, 그건 내 귀가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더니 그는 개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는 다시 선실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가 문가에 서서 말했다. “막 이야기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잖아.”

나는 내 이름이 에드워드 프렌딕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안락한 독립 생활이 주는 지루함을 달래려 자연사학에 몰두하게 되었다는 사연도 털어놓았다.

그는 이 일에 흥미를 보이는 듯했다. “나도 과학을 좀 해봤네.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생물학을 전공했거든. 지렁이의 난소를 적출하고 달팽이의 치설을 꺼내는 그런 일들 말이야. 세상에, 벌써 10년 전 일이군. 하지만 계속하게! 어서! 그 배에 대해서 더 말해달라고.”

그는 내 이야기가 솔직하다고 느꼈는지 분명 만족해했다. 나는 몸이 너무나 쇠약해진 상태였기에 최대한 간결하게 이야기를 마쳤다.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는 곧장 자연사 이야기와 자신의 생물학 연구 주제로 화제를 돌렸다. 그는 토트넘 코트 로드와 가위 스트리트의 상황을 내게 낱알이 캐묻기 시작했다. “카플라치 상점은 아직도 번창하고 있나? 정말 대단한 가게였는데!” 그는 분명 아주 평범한 의대생 시절을 보냈던 모양이다. 그는 곧바로 음악 홀 이야기로 화제를 옮겼다. 그러고는 내게 몇 가지 일화들을 들려주었다.

“그 모든 걸 다 버렸지.” 그가 말했다. “10년 전 일이야. 예전엔 정말 즐거웠는데! 하지만 내가 미련하게 굴었어. 스물한 살이 되기도 전에 인생을 다 써버린 셈이지.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겠지만 말이야. 그나저나 그 멍청한 요리사 놈을 찾아가서, 자네 양고기를 어떻게 요리해놨는지 확인해 봐야겠군.”

머리 위에서 들려오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도 사나운 분노가 담긴 소리여서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그를 불러 세웠지만, 문은 이미 닫힌 뒤였다. 그는 삶은 양고기를 들고 다시 돌아왔다. 식욕을 돋우는 고기 냄새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나를 괴롭히던 그 짐승의 소리는 까맣게 잊어버렸다.

하루 동안 잠과 식사를 번갈아 하며 기력을 회복한 끝에, 나는 침상에서 일어나 해치까지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몸을 추슬렀다. 해치 너머로는 초록빛 바다가 우리 배의 속도를 따라잡으려는 듯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나는 이 범선이 바람을 등지고 향해 중이라고 판단했다.

내가 그곳에 서 있을 때, 금발의 사내인 몽고메리가 다시 나타났다. 나는 그에게 입을 옷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보트에서 입었던 옷들은 이미 바다에 버린 상태였기에, 그는 자신의 면직물 옷 몇 벌을 내주었다. 그는 체격이 크고 팔다리가 길어서, 그 옷들은 나에게 다소 험렁했다. 그는 선장이 자기 선실에서 거의 만취 상태라는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툭 던지듯 말했다. 나는 옷을 받아 입으며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는 배가 하와이로 향하고 있지만, 우선 자신을 먼저 내려주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어디 말인가?” 내가 물었다.

“내가 사는 곳은 어느 섬이야. 내가 알기로는 이름도 없어.”

그는 아랫입술을 늘어뜨린 채 나를 뻘뻘 응시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주 고집스럽게 멍청한 표정을 지어 보였는데, 그 모습이 마치 내 질문을 교묘히 피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이 상책을 직감했다.

제III장

기이한 얼굴

우리는 선실을 나와 갑판으로 향했으나, 선실 입구를 가로막고 선 한 남자를 마주쳤다. 그는 사다리 위에 서서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해치 입구의 테두리 너머를 살피고 있었다. 내가 보기에 그는 체구가 작고 어깨가 벌어진, 뒤틀린 몸을 가진 기형적인 사내였다. 동작은 둔탁했고, 등은 굽어 있었으며, 목에는 털이 무성했다. 머리는 어깨 사이로 깊숙이 파묻혀 있었다. 그는 짙은 푸른색의 서지 직물 옷을 입고 있었는데, 유독 굵고 거친 검은 머리카락이 눈에 띄었다. 그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개들이 맹렬하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자는 즉시 몸을 숙여 아래로 숨었다. 그 과정에서 그가 내밀어 몸을 피하려던 내 손에 부딪혔다. 그는 짐승 같은 민첩함으로 몸을 돌렸다.

정체 모를 이유였겠지만, 내 눈앞에 번뜩이며 나타난 그 검은 얼굴은 나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기이할 정도로 기형적인 얼굴이었다. 얼굴 앞부분이 툭 튀어나와 마치 짐승의 주둥이를 연상시켰

고, 반쯤 벌어진 거대한 입안에는 내가 지금까지 인간의 입에서 본 적 없는 커다란 흰 이빨들이 드러나 있었다. 눈 가장자리는 핏발이 서 있었고, 개암색 눈동자 주위에는 흰자위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기묘한 흥분이 서린 빛이 감돌고 있었다.

“제기랄!” 몽고메리가 소리쳤다. “도대체 왜 길을 비키지 않는 거야?”

검은 얼굴의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옆으로 비켜섰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를 힐끗거리며 해치 위로 올라갔다. 몽고메리는 잠시 발치에 머물더니, 신중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당신 자리는 앞쪽이라고.”

얼굴이 검은 사내가 몸을 움츠렸다. “그들이…… 나를 앞으로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묘하고 쉼 듯한 목소리로 느릿느릿 말했다.

“앞에서 널 안 받아준다고?!” 몽고메리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래도 가라면 가는 거야!” 그는 무언가 더 쏘아붙이려다 말고, 갑자기 나를 올려다보더니 사다리를 타고 나를 뒤따라 올라왔다.

나는 해치 입구 중간쯤에서 발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검은 얼굴을 한 이 기괴하고 추악한 생명체를 보며 나는 여전히 형언할 수 없는 경악에 빠져 있었다. 이토록 혐오스럽고도 기이한 얼굴은 생전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모순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지금 내 눈앞에서 나를 놀라게 하는 저 이목구비와 몸짓을, 어딘가에서 이미 마주한 적이 있다는 느낌이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마 내가 배 위로 끌어 올려질 때 그를 보았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그를 본 것 같다는 의구심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저토록 특이한 얼굴을 보고도 그 정확한 순간을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 내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았다.

나를 따라 움직이려는 몽고메리의 움직임 덕분에 주의를 돌릴 수 있었다. 나는 몸을 돌려 작은 스쿠너선의 평평한 갑판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미 들려오던 소리들 때문에 눈앞에 펼쳐질 광경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판이 이토록 지저분한 모습은 생전 처음 보았다. 갑판 위에는 당근 조각과 채소 찌꺼기,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오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메인마스트에는 끔찍하게 생긴 스테그하운드 여러 마리가 사슬로 묶여 있었는데, 놈들은 나를 보자마자 짖으며 달려들기 시작했다. 미즌마스트 쪽에는 거대한 퓨마 한 마리가 몸을 돌릴 공간조차 없는 아주 작은 철제 우리에 갇혀 있었다. 우현 난간 아래쪽에는 토끼들이 들어 있는 커다란 우리 몇 개가 보였고, 선수 쪽에는 라마 한 마리가 상자처럼 좁은 우리에 끼어 있었다. 개들은 가죽 끈으로 입마개가 채워져 있었다. 갑판 위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사람은 키를 잡고 있는 수척하고 말 없는 선원뿐이었다.

기워 붙인 자국이 가득하고 때가 탄 스펅커 돛은 바람을 받아 팽팽하게 부풀어 있었고, 돛대 위쪽으로는 이 작은 배가 가진 돛을 모두 펼쳐 단 듯했다. 하늘은 맑았고, 태양은 서쪽 하늘 중간쯤에 걸려 있었

다. 산들바람에 거품이 인 긴 파도가 우리와 나란히 달렸다. 우리는 키를 잡은 사공을 지나 선미 난간까지 걸어갔고, 배 뒷부분 아래로 물이 거품을 일으키며 솟구치고 배가 지나간 자리에는 거품들이 춤추듯 생겨났다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몸을 돌려 불쾌한 기운이 감도는 길쭉한 선체를 훑어보았다.

“이곳은 바다의 동물원인가요?” 내가 물었다.

“그런 것 같군.” 몽고메리가 말했다.

“이 짐승들은 다 무엇을 위한 거지? 상품인가, 아니면 진기한 구경거리인가? 선장은 이놈들을 남태평양 어딘가에 팔아넘길 생각인 건가?”

“그렇게 보이지 않나?” 몽고메리가 말하며 다시 배가 지나간 자리를 향해 몸을 돌렸다.

갑자기 옆 해치 쪽에서 비명과 함께 격렬한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러더니 검은 얼굴을 한 기형적인 남자가 서둘러 올라왔다. 그 뒤를 이어 흰 모자를 쓴 체구가 건장한 붉은 머리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 기형적인 남자를 보자, 나를 향해 짚어대는 데 지쳐 있던 사냥개들이 다시 미친 듯이 흥분하기 시작했다. 개들은 울부짖으며 쇠사슬에 매달려 날뛰었다. 검은 얼굴의 남자가 개들 앞에서 주춤거리자, 그 틈을 타 붉은 머리의 남자가 다가와 그의 견갑골 사이를 강하게 내리쳤다. 불쌍한 남자는 쓰러진 황소처럼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광분한 개들 사이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굴렀다. 개들에게 입마개가 채워져 있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붉은 머리의 남자는 승리감에 도취해 소리를 지르더니

비틀거리며 섰다. 그는 해치 아래로 뒤로 넘어지거나, 아니면 쓰러진 희생자 위로 앞으로 고꾸라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두 번째 남자가 나타나자마자 몽고메리가 앞으로 나섰다. "저기 좀 진정해!" 그가 나무라는 듯 소리쳤다. 선수 갑판 위로 선원 두 명도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얼굴의 남자는 기이한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개들의 발치 사이를 굴러다녔다. 아무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짐승들은 주둥이를 들이밀며 그를 괴롭히기에 여념이 없었다. 유연하고 희색 빛이 도는 개들의 몸이 쓰러져 있는 듯한 남자의 몸뚱이 위에서 춤추듯 분주하게 움직였다. 앞쪽의 선원들은 마치 이 광경이 아주 즐거운 구경거리라도 되는 양 환호성을 질렀다. 몽고메리가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갑판을 성큼성큼 걸어 내려갔고, 나도 그를 따라갔다. 검은 얼굴의 남자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메인 슈라우드 옆 난간에 몸을 기대어 섰다. 그러고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어깨 너머로 개들을 노려보았다. 붉은 머리의 남자는 만족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렸다.

"이봐요, 선장님." 몽고메리가 혀 짧은 소리를 조금 더 섞어가며 말했다. 그는 붉은 머리 사내의 양 팔꿈치를 짹 움켜쥐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나는 몽고메리의 뒤에 서 있었다. 선장은 몸을 반쯤 돌리더니, 술에 취한 사람 특유의 멍하고 엄숙한 눈빛으로 몽고메리를 바라보았다. "뭐가 안 된다는 거야?" 그가 물었다. 그러고는 잠시 동안 졸린 눈으로

몽고메리의 얼굴을 살피더니 덧붙였다. "빌어먹을 외과의사 놈 같으니라고!"

그는 갑작스러운 동작으로 팔을 뿌리쳐 빼내더니, 두어 번 헛되이 시도한 끝에 주근깨 가득한 주먹을 옆 주머니 속으로 찔러 넣었다.

“저 남자는 승객입니다.” 몽고메리가 말했다. “그에게 손대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지옥에나 떨어져라!” 선장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는 갑자기 몸을 돌리더니 비틀거리며 선측으로 향했다. “내 배에서 내 마음대로 하겠는데 누가 뭐라 할 거야!” 그가 말했다.

짐승 같은 그 선장이 술에 취한 것을 보고, 몽고메리가 그쯤에서 그를 내버려 둘 만도 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몽고메리는 그저 안색이 조금 더 창백해졌을 뿐, 선장을 따라 난간 쪽으로 향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선장님.” 그가 말했다. “내 부하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배에 올라탄 순간부터 줄곧 괴롭힘을 당해 왔단 말입니다.”

잠시 동안 선장은 술 냄새에 취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내뱉을 수 있는 말이라곤 "빌어먹을 의사 놈!"이라는 욕설뿐이었다.

몽고메리에게는 특유의 성미가 있었다. 한 번 불붙으면 날이 갈수록 달아올라 백열광처럼 뜨거워지되, 결코 용서의 단계로 식지 않는 느릿

하고도 집요한 성미였다. 이번 다툼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싹터온 것임을 나는 직감했다.

"그 사람은 술에 취했소."

내가 아마도 참견하듯 한마디를 던졌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요."

몽고메리는 입술을 비죽거리며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그자는 늘 술에 취해 있어요. 술에 취했다는 게 승객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변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 배는," 선장이 짐승 우리들 쪽을 향해 떨리는 손을 휘저으며 말을 시작했다. "아주 깨끗한 배였단 말ियो. 지금 꼴을 좀 보시오!" 확실히 그 배는 깨끗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선원들도," 선장이 말을 이었다. "아주 깨끗하고 품격 있는 선원들이었던 말ियो."

"짐승들을 거두기로 약속하지 않았나."

"당신의 그 지옥 같은 섬을 아예 보지 말았어야 했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섬에 짐승들을 데려다 놓은 거야? 그리고 당신과 함께 있는 그 남자 말이야, 분명히 인간이라고 들었어. 그런데 그는 미친놈이야. 애초에 배에 타서는 안 될 인간이었다고. 이 빌어먹을 배 전체가 당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그가 배에 오르자마자 당신네 선원들이 그 불쌍한 친구를 괴롭히기 시작했더군.”

“그자가 바로 그런 인간입니다. 악마예요! 추악한 악마라고요! 내 부하들도 그자를 건디지 못합니다. 나 역시 그자를 건딜 수가 없고요. 우리 중 그 누구도 그자를 참아낼 수 없습니다. 당신 또한 마찬가지일 거고요!”

몽고메리가 고개를 돌렸다. "어쨌든, 그 사람은 당신이 상관하지 마시오." 그는 말을 하며 고개를 까딱였다.

하지만 선장은 이제 말다툼을 하려는 심산이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놈이 다시 배 이쪽 끝으로 기어 나온다면, 내 반드시 창자를 다 꺼내 놓을 줄 알아! 그 빌어먹을 내장을 다 파헤쳐 버리겠다고! 감히 네놈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는 거야? 내가 이 배의 선장이라고 말했을 텐데. 선장이자 주인이다! 내가 바로 이곳의 법이자 예언자란 말이다! 나는 아리카까지 사람 한 명과 그 수행원을 데려다주고, 동물 몇 마리를 실어 오기로 계약했지. 미친 악마와 멍청한 의사 놈을 태워다 주기로 계약한 게 아니란 말이다, 이—”

그가 몽고메리를 뭐라고 불렀든 상관없었다. 나는 몽고메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는 것을 보고 그 사이를 가로막았다. "술에 취했소." 내가 말했다. 선장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저질스러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입 닥치시오!" 나는 날카롭게 그를 몰아세웠다. 몽고메리의 창백

한 얼굴에서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내뱉기가 무섭게, 선장의 거친 폭언이 나에게 쏟아졌다.

하지만 선장의 술주정 섞인 악의를 사더라도, 싸움이 날 뻔한 상황을 피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나는 그동안 별난 사람들을 꽤 많이 겪어왔지만, 누군가의 입에서 저토록 저질스러운 욕설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은 처음이었다. 성격이 온순한 편인 나조차도 그 욕설 중 일부는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하지만 선장에게 "입 좀 닥치라"고 말했을 때, 나는 내가 그저 가진 것 하나 없이 떨어진 인간 부스러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다. 나는 식비조차 지불하지 못한 채, 그저 이 배의 호의나 투기적인 사업에 기대어 사는 뜨내기 의존자일 뿐이었다. 선장은 아주 격렬한 태도로 그 사실을 내게 상기시켰다. 어찌 됐든, 싸움만큼은 막을 수 있었다.

제IV장

범선의 난간에서

해 질 녘이 지나고 나서야 육지가 보였고, 범선은 그곳에 멈춰 섰다. 몽고메리는 그곳이 목적지라고 넌지시 알려주었다. 육지가 너무 멀리 있어서 세부적인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당시 내 눈에는 그저 불확실한 청회색 바다 위에 어스름하게 떠 있는 낮은 푸른 점처럼 보일 뿐이었다. 섬에서는 연기 줄기가 거의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솟구치고 있었다.

육지를 처음 발견했을 때 선장은 갑판에 없었다. 나에게 분노를 쏟았던 선장은 비틀거리며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나중에 듣기로는 자기 선실 바닥에서 잠이 들었다고 했다. 사실상 일등 항해사가 지휘권을 넘겨받은 셈이었다. 그는 우리가 조타륜 앞에서 키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바로 그 수척하고 과묵한 인물이었다. 그는 몽고메리에게 화가 난 듯 보였고, 우리 둘 모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내가 대화를

시도하며 몇 번 애를 써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우리는 그와 함께 침묵 속에서 뚱한 기색으로 저녁 식사를 마쳤다.

선원들이 내 동행인과 그가 데려온 짐승들을 유독 적대적으로 바라본다는 인상도 받았다. 몽고메리는 이 생물들을 데리고 무엇을 하려는지,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인지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다. 두 가지 모두에 대해 호기심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지만, 나는 그를 더 몰아세우지 않았다.

하늘에 별이 뻑뻑하게 들어찰 때까지 우리는 선상 갑판에 남아 대화를 나누었다. 노란 불빛이 새어 나오는 선수실에서 간간이 소리가 들리고 동물들이 이따금 움직이는 것 외에는, 밤은 매우 고요했다. 퓨마는 우리를 번뜩이는 눈으로 지켜보며 우리 안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녀석은 우리 구석에 놓인 검은 더미처럼 보였다. 몽고메리가 시가 몇 대를 꺼냈다. 그는 마치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새기듯 런던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동안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그는 그곳에서의 삶을 사랑했으나, 어느 날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삶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린 사람처럼 말했다. 나 역시 아는 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다. 대화하는 내내 그의 기이함이 내 머릿속에서 형체를 갖추어 갔다. 나는 말을 하면서도 등 뒤에 있는 나침반 등불의 희미한 빛에 의지해, 그의 창백하고 이상한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러고는 어둑해진 바다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 어둠 속에는 그의 작은 섬이 숨겨져 있었다.

내 눈에는 그 남자가 오직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저 거대한 심연 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 내일이면 그는 배 옆으로 몸을 던져, 내 삶의 궤도에서 다시 사라져 버릴 것이다. 평범한 상황이었더라도 조금은 생각이 많아졌겠지만, 상황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우선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 이 이름 모를 작은 섬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이했다. 게다가 그가 가져온 짐의 정체 또한 예사롭지 않았다.

나는 선장이 던졌던 질문을 속으로 되뇌었다. 그는 왜 짐승들을 필요로 하는 걸까? 처음 내가 그 짐승들에 대해 언급했을 때, 왜 그는 마치 제 물건이 아니라는 듯이 잡아땀던 걸까? 게다가 그의 개인 시종에게서 느껴지는 기묘한 분위기는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모든 정황이 그 남자를 신비로운 안개 속에 가두어 놓은 듯했다. 의문들은 내 상상력을 자극했고, 나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망설임 뿐이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런던에 관한 이야기는 잦아들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난간에 몸을 기대는 채, 별빛이 내리는 고요한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각자 저마다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감상에 젖기 좋은 분위기였기에, 나는 우선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내가 말했다. “말씀드려도 괜찮다면, 당신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우연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저 우연일 뿐입니다.”

“나는 직접 만날 수 있는 이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소.”

“누구에게도 고마워할 것 없다. 네게는 필요가 있었고, 내게는 지식이 있었을 뿐이다. 나는 그저 표본을 수집하듯 네게 약물을 주입하고 먹이를 주었을 뿐이야. 지루하던 차에 할 일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만약 그날 내 기분이 좋지 않았거나 네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글썄, 네가 지금 어디에 있을지는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겠지!”

그 말에 기분이 조금 가라앉았다. “어쨌든,” 내가 말을 시작했다.

“이건 기회야, 내 말 좀 들어봐.” 그가 말을 가로챘다. “사람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지. 멍청한 놈들만 그걸 못 알아볼 뿐이야! 내가 왜 지금 런던의 온갖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한 삶 대신, 문명에서 쫓겨난 낙오자가 되어 여기 와 있겠어? 그건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이지. 11년 전, 안개 자욱한 어느 밤에 내가 십 분 동안 정신을 놓아버렸기 때문이야.”

그가 말을 멈췄다. “그래서요?” 내가 물었다.

“그게 전부다.”

우리는 다시 침묵에 빠져들었다. 잠시 후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 별빛에는 사람의 혀를 풀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군. 내가 참 어리석긴 하지만, 웬지 당신에게 다 말해버리고 싶어지네.”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가 가슴에만 묻어두리라 믿으셔도 됩니다—그게 마음에 걸리시는 거라면 말입니다.”

그는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으나, 이내 의구심이 드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만두십시오.” 내가 말했다. “저로서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당신의 비밀은 묻어두시는 편이 나을 겁니다. 제가 당신의 신뢰를 지켜준다 한들 당신이 얻는 것이라곤 잠깐의 후련함뿐일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지켜주지 않는다면—그땐 어찌 되겠습니까?”

그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듯 웅얼거렸다. 나는 그가 방심한 틈을 타 실언을 유도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사실, 젊은 의대생을 무엇이 런던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는지 그 내막이 그리 궁금하지도 않았다. 나에게는 상상력이 있었기에, 나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몸을 돌렸다. 난간 너머에는 검은 형체 하나가 별을 바라보며 말없이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몽고메리를 따르는 기이한 수행원이었다. 내가 움직이자 그 형체는 재빨리 어깨너머로 나를 훑어보더니, 다시 시선을 돌려버렸다.

당신에게는 그저 사소한 일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에게는 갑작스러운 타격처럼 다가온 충격이었다. 우리 주변에는 키를 잡는 곳에 놓인 랜턴 하나만이 빛을 밝히고 있었다. 그 찰나의 순간, 배 뒷부분의 어스름 속에 있던 괴물의 얼굴이 빛을 향해 돌아갔다. 나를 훑던 그 눈동자가 창백한 초록빛으로 번뜩이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때의 나는 인간의 눈에서도 적어도 붉은빛이 도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내게 그 존재는 그저 지독한 비인간성 그 자체로 다가왔다. 불타는 눈을 가진 그 검은 형체는 성인으로서 내가 가진 모든 사

고와 감정을 단숨에 무너뜨렸고, 그 순간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공포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 충격은 찾아왔을 때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 별빛을 등진 채 난간 너머로 서 있는 모습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투박하고 검은 남자의 형체일 뿐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몽고메리가 나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당신이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느낀다면, 난 이제 그만 들어가 쉬어야겠어.” 그가 말했다.

나는 그에게 영 동떨어진 대답을 내뱉었다. 우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그는 내 선실 문 앞에서 잘 자라는 인사를 건넸다.

그날 밤, 나는 매우 불쾌한 꿈을 꾸었다. 기울어가는 달이 뒤늦게 떠올랐다. 달빛은 내 선실을 가로질러 유령 같은 흰 빛줄기를 드리웠고, 내 침대 옆 판자 위에 불길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곧이어 사냥개들이 깨어나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 소란 때문에 나는 꿈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채 뒤척였고, 새벽이 다가올 때까지 거의 잠들지 못했다.

제V장

갈 곳 없는 사내.

이른 아침이었다. 내가 회복한 뒤 맞이한 두 번째 아침이자, 구조된 뒤로는 네 번째 아침이었을 것이다. 나는 총소리와 울부짖는 군중이 뒤섞인 격렬한 꿈을 꾸다 깨어났다. 머리 위에서는 쉼 목소리로 무언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눈을 비비며 누운 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잠시 혼란스러웠다.

그때 갑자기 맨발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무거운 물건들을 내던지는 소리와 격렬한 빼격거림, 그리고 쇠사슬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배가 갑자기 방향을 틀자 물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고, 거품 섞인 황록색 파도가 작은 원형 창문 안으로 들이닥쳐 창을 적셨다. 나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갑판으로 나갔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자 붉게 물든 하늘이 보였다. 막 해가 떠오르던 참이었다. 그 하늘을 배경으로 선장의 넓은 등과 붉은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왔다. 선장의 어깨 너머로는 미존 스팅커 불에 설치된 도르래를 타고 퓨마가 회전하며 내려오고 있었다.

가련한 짐승은 무척이나 겁에 질린 듯, 작은 우리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전부 바다로 던져버려!” 선장이 고함을 질렀다. “전부 던져버리라 고! 그래야 이 빌어먹을 것들로부터 곧 깨끗한 배를 되찾을 테니까.”

그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바람에, 나는 갑판 위로 올라가려면 어쩔 수 없이 그의 어깨를 툭 쳐야만 했다. 그는 깜짝 놀라 몸을 돌리더니, 몇 발자국 비틀거리며 물러나 나를 뵈히 쳐다보았다. 그 남자가 여전히 술에 취해 있다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어라!” 그가 멍청하게 소리쳤다. 그러더니 이내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며 덧붙였다. “아니, 이거 미스터… 미스터 뭐라고 했더라?”

“프렌딕.” 내가 대답했다.

“프렌딕, 빌어먹을 놈!” 그가 내뱉었다. “입 닥쳐. 그래, 네 이름은 이제부터 닥쳐다. 닥쳐 씨라고.”

그 짐승 같은 놈에게 대답해 봤자 소용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놈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놈은 몽고메리가 서 있는 승강장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몽고메리는 그곳에서 방금 배에

올라탄 듯한, 더러운 청색 플란넬 옷을 입은 거구의 백발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저쪽이다, 이 빌어먹을 닥쳐 씨! 저쪽으로 가란 말이다!” 선장이 포효했다.

그가 말을 하자 몽고메리와 그의 동행이 고개를 돌렸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쪽이야, 이 빌어먹을 닥쳐 씨! 내 말은 그 뜻이라고! 바다로 던져 버려, 닥쳐 씨! 어서, 빨리! 우린 배를 청소하는 중이란 말이다. 이 빌어먹을 배 전체를 싹 다 청소하는 중이라고! 그러니 넌 배 밖으로 꺼져버려!”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이것이야말로 내가 정확히 바라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다투기 좋아하는 술꾼과 단둘이 여행을 떠날 수도 있었던 아쉬운 기회는, 딱히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몽고메리 쪽으로 몸을 돌렸다.

“당신은 안 되겠소.” 몽고메리의 동행이 간결하게 말했다.

“날 데려갈 순 없어!” 내가 경악하며 외쳤다. 그의 얼굴은 내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각이 졌고 결연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이보시오,” 나는 선장을 향해 몸을 돌리며 말을 시작했다.

“바다로 던져버려!” 선장이 외쳤다. “이 배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이나 식인종, 혹은 그보다 더 끔찍한 것들을 태울 배가 아니다. 입 닥치고 당장 바다로 꺼져버려! 저놈들이 너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바다에 처박히는 게 나아. 어쨌든 너는 네 친구들과 함께 떠나게 될 거다. 나는 이 빌어먹을 섬과 영원히 작별하겠다. 아아, 신이시여, 이제 정말 진저리가 나는군!”

“하지만, 몽고메리.” 내가 호소하듯 말했다.

그는 아랫입술을 빠죽거리더니, 옆에 선 백발의 남자를 향해 절망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처한 상황을 도울 힘이 자신에게는 전혀 없다는 뜻이었다.

“곧 당신을 상대해 주지.” 선장이 말했다.

그때부터 기묘한 삼각 갈등이 시작되었다. 나는 세 사람에게 번갈아 호소했다. 먼저 백발의 사내에게는 나를 육지에 내려달라고 매달렸고, 그다음에는 술에 취한 선장에게 나를 배에 머물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선원들에게는 소리까지 질러가며 간청했다. 하지만 몽고메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선장은 “당신은 배 밖으로 떨어지게 될 거야”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빌어먹을 법 따위는 상관없어! 여기선 내가 왕이니까.” 마침내 나는 격렬하게 위협을 퍼붓던 도중 갑자기 목소리가 갈라지고 말았다. 히스테리 섞인 짜증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나는 배 뒤편으로 가서 허공을 응시하며 암울하게 서 있었다.

그사이 선원들은 상자와 우리에게 갇힌 동물들을 내리는 작업에 속도를 냈다. 스쿠너호의 바람막이 쪽에는 두 개의 루그 돛을 세운 커다란 보트 한 척이 놓여 있었고, 기이한 물건들은 그 보트 안으로 옮겨졌다. 당시에는 보트의 선체가 스쿠너호의 측면에 가려져 있었기에, 물건을 받아내는 섬의 일꾼들이 누구인지 볼 수 없었다. 몽고메리와 그의 동행인은 나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짐을 내리는 네다섯 명의 선원을 돕고 지휘하느라 분주했다. 선장은 돕기는커녕 오히려 일을 방해하며 앞으로 나섰다.

나는 절망과 자포자기를 오갔다. 상황이 저절로 해결되기만을 기다리며 서 있다 보니, 이 비참한 곤경이 어처구니없어 한두 번은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충동을 참기 힘들 정도였다. 아침 식사를 거른 탓에 몸은 더욱 처참하게 느껴졌다. 허기와 혈액 부족은 인간의 기력을 송두리째 앗아간다. 나는 선장이 나를 쫓아내려고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저항할 힘이 없으며, 몽고메리와 그의 동행에게 다가가 도움을 청할 기력조차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결국 나는 운명에 몸을 맡긴 채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몽고메리의 소지품을 보트로 옮기는 작업은 마치 내가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계속되었다.

곧 작업이 끝났고, 곧이어 실랑이가 벌어졌다. 나는 힘없이 저항하며 선박의 현문으로 끌려갔다. 그때 몽고메리와 함께 작은 보트에 탄 사람들의 갈색 얼굴이 어딘가 기이하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하지만 보트는 이미 짐을 가득 실은 상태였고, 서둘러 밀려 나갔다. 내 발밑으로 초록빛 바닷물이 넓게 벌어지자, 나는 앞으로 고꾸라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뒤로 버텼다. 보트에 탄 선원들이 비웃으며 소리를 질렀고,

몽고메리가 그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나서 선장과 일등 항해사, 그리고 그를 돕던 선원 한 명이 나를 붙잡고 선미 쪽으로 달려갔다.

레이디 베인 호의 구명정이 뒤에서 끌려오고 있었다. 구명정 안에는 물이 절반이나 차 있었고, 노도 없었으며, 식량조차 전혀 없었다. 나는 그 구명정으로 옮겨 타기를 거부하고 갑판 위에 몸을 길게 내던졌다. 결국 사람들은—배 뒤편에 사다리가 없었던 탓에—밧줄을 이용해 나를 구명정 안으로 내려 보냈고, 그런 다음 밧줄을 끊어 나를 표류하게 내버려 두었다. 나는 천천히 범선에서 멀어져 갔다. 몽롱한 정신 속에서 나는 선원들이 모두 돛대에 매달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범선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람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 펄럭이던 돛은 바람을 머금더니 이내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나는 나를 향해 급격히 기울어진 채 파도에 깔린 배의 옆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다 이윽고 배는 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멀어져 가는 배를 따라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방금 일어난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멍한 상태로 작은 보트 바닥에 웅크린 채,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텅 빈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다 내가 다시 그 작은 지옥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보트는 이제 절반쯤 물에 잠겨 있었다. 뱃전 너머로 뒤를 돌아보니, 붉은 머리의 선장이 선미 난간 너머에서 나를 비웃으며 멀어져 가는 스쿠너 호가 보였다. 다시 섬 쪽을 바라보자, 해변을 향해 나아가는 작은 보트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이 갑작스러운 버려짐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그제야 실감이 났다. 운 좋게 육지에 떠밀려가지 않는 한, 내가 땅에 닿을 방법은 전혀 없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보트 위에서 비바람을 맞은 탓에 나는 여전히 기력이 쇠약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속이 비어 허기가 지고 정신이 아득해진 탓에, 차라리 버틸 기운조차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나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어린 시절 이후 이토록 서럽게 울어본 적이 없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절망에 휩싸인 나는 주먹으로 보트 바닥의 물을 내리치고, 보트 가장자리를 사정없이 발로 찼다. 나는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신에게 소리 높여 기도했다.

제VI장

험악한 인상의 사공들

하지만 섬사람들은 내가 정말로 표류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를 가엽게 여겼다. 나는 동쪽을 향해 아주 천천히 떠내려가며 섬에 비스듬히 접근했다. 그때 그 작은 보트가 방향을 돌려 다시 내 쪽으로 돌아오는 것이 보였고, 나는 히스테릭할 정도의 안도감을 느꼈다. 보트는 짐을 가득 실은 상태였다. 보트가 가까워지자 선미 쪽에 개들과 여러 개의 포장 상자 사이에 끼어 앉아 있는 몽고메리의 백발이 성성하고 어깨가 넓은 동료의 모습이 보였다. 그 남자는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은 채 나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퓨마 근처 선수(船首)에 있는 검은 얼굴의 불구자 역시 나를 똑같이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다. 그 외에도 세 명의 남자가 더 있었는데, 사냥개들이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그들은 하나같이 기괴하고 짐승처럼 생긴 사내들이었다. 키를 잡고 있던 몽고메리가 보트를 내 곁으로 몰고 왔다. 그는 몸을 일으켜 내 구명정의 계류 밧줄을 잡아 키 손잡이에 단단히 묶었다. 배 안에 자리가 없었기에 나를 건인하기 위해서였다.

그 무렵 나는 히스테리 증세에서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였다. 그래서 다가오는 그가 나를 부르자, 충분히 용기를 내어 응답했다. 나는 작은 배가 거의 침몰할 지경이라고 그에게 말했고, 그는 나에게 나무 바가지 하나를 건네주었다. 배와 배 사이의 바닷줄이 팽팽해지면서 나는 반동으로 뒤로 핵 끌려갔다. 그 후 한동안 나는 정신없이 물을 퍼냈다.

구명정에 차오른 물을 다 퍼내고 나서야 비로소 배에 탄 사람들을 다시 살피볼 여유가 생겼다. 구명정에 들어찼던 물은 배가 새서가 아니라 파도에 넘쳐 들어온 것일 뿐, 배 자체는 전혀 흠 없이 멀쩡했다.

다시 보니 백발의 남자는 여전히 나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표정에 어딘지 모를 당혹감이 서려 있는 듯했다. 내가 눈을 맞추자, 그는 자신의 무릎 사이에 앉아 있는 스태그하운드를 내려다 보았다. 앞서 말했듯 그는 건장한 체격에 이마가 넓고 이목구비가 다소 굼직한 사람이었다. 다만 눈꺼풀 위로 살이 처진 모습이 보였는데, 이는 나이가 들면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또한 입꼬리가 아래로 처진 탓에 그는 마치 무엇이든 맞서 싸울 듯한 완고한 인상을 풍겼다. 그는 내가 들을 수 없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몽고메리에게 말을 건넸다.

내 시선은 그를 지나 그의 부하 세 명에게로 향했다. 참으로 기이한 무리였다. 나는 그들의 얼굴만을 보았을 뿐인데, 그 얼굴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기묘한 혐오감이 경련처럼 나를 덮쳤다. 나는 그들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불쾌한 느낌은 가시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손가락과 발

가락 끝까지 얇고 더러운 흰 천으로 기묘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렇게 온몸을 뽀뽀 싸맨 남자들은 생전 처음 보았고, 여자들조차 동양에서나 저토록 입는다고 들었다. 그들은 터번을 쓰고 있었는데, 그 아래로 요정처럼 기이한 얼굴들이 나를 뵈히 들여다보았다. 아래턱이 푹 튀어나오고 눈이 형형한 얼굴들이었다. 말갈기처럼 뺨뺨하고 긴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그들은, 앉아 있는 모습만 보아도 내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인종보다도 체구가 커 보였다. 키가 족히 6피트는 되어 보이는 백발의 남자가 그들 세 명보다 머리 하나는 더 낮게 앉아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 그들 중 누구도 나보다 키가 크지는 않았다. 다만 몸이 비정상적으로 길었고, 허벅지 부분이 짧은 데다 기묘하게 뒤틀려 있었다. 어쨌든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못생긴 무리였다. 그들의 머리 위, 앞 뒀 아래로는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이는 한 남자의 검은 얼굴이 보였다. 내가 그들을 뵈히 바라보자 그들도 내 시선을 마주했다. 그러더니 한 명씩 차례로 내 시선을 피하며, 기묘하고도 은밀한 눈빛으로 나를 살폈다. 내가 그들을 성가시게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나는 시선을 돌려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 섬을 바라보았다.

섬은 지대가 낮았고, 생전 처음 보는 종류의 야자수를 비롯한 울창한 식물들로 뒤덮여 있었다. 어느 지점에서는 가느다란 흰 증기 줄기가 비스듬히 솟구쳐 올라가더니, 엄청난 높이에 이르러 깃털처럼 가볍게 흩어졌다. 우리는 양옆으로 낮은 곳이 둘러싸고 있는 넓은 만의 품 안으로 들어섰다. 해변은 탁한 회색 모래로 이루어져 있었고, 해수면으로부터 약 60~70피트 높이의 능선까지 가파르게 경사져 있었다. 그 능선에는 나무와 덩불이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었다. 경사면 중간쯤에는

회색빛 돌로 만든 사각형의 울타리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산호와 부석질 용암을 섞어 만든 것이었다. 그 울타리 안으로는 초가 지붕 두 채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물가에는 한 남자가 우리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아직 거리가 멀었을 때, 나는 기괴하게 생긴 다른 생물들이 경사면의 덩불 속으로 허겁지겁 숨어드는 것을 본 것 같다는 착각이 들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생물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남자는 보통 체격에 검은색 흑인 계열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입술이 거의 없는 커다란 입과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진 팔, 가늘고 긴 발, 그리고 굵은 다리를 가진 그는 무거운 얼굴을 앞으로 내민 채 우리를 뻔히 응시하며 서 있었다. 그는 몽고메리와 백발의 동행자처럼 푸른색 서지 직물로 된 재킷과 바지를 입고 있었다.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자, 이 남자는 해변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기괴한 몸짓을 하기 시작했다.

몽고메리가 명령을 내리자 보트에 타고 있던 네 남자가 벌떡 일어났다. 그들은 무척이나 어색한 몸짓으로 돛을 내렸다. 몽고메리는 배를 몰아 해변에 파여 있는 좁은 선착장 안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그러자 해변에 있던 남자가 우리를 향해 서둘러 다가왔다. 내가 선착장이라 부른 그곳은 사실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 긴 보트를 겨우 들여놓을 수 있을 만큼만 파인 작은 도랑에 불과했다. 배 앞머리가 모래에 닿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바가지로 작은 보트가 큰 배의 키에 부딪히지 않게 밀어낸 뒤, 계류 밧줄을 풀어 육지에 내렸다. 붕대를 칭칭 감은 세 명의 사내들은 아주 서투른 동작으로 모래사장 위로 기어 올라왔고, 해변의 남자가 돕는 가운데 곧바로 화물을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온몸을 감싼

채 봉대를 감고 있던 그 세 명의 사내들이 움직일 때, 그 다리 모양이 유독 기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다리가 뻗뻗한 것은 아니었으나, 마치 관절이 잘못된 위치에 붙어 있는 것처럼 기묘하게 뒤틀려 있었다. 백발의 남자가 그들과 함께 상륙하자, 개들은 여전히 으르렁거리며 사내들을 향해 사슬을 팽팽히 잡아당겼다. 덩치 큰 세 사내는 기묘한 목소리로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 해변에서 우리를 기다리던 남자는 그들에게 흥분한 듯 무언가를 재잘거렸다. 내가 듣기에 그것은 외국어 같았다. 사내들은 선미 근처에 쌓인 화물 더미를 손에 잡았다. 어디선가 이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 듯했지만, 도무지 어디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백발의 남자는 날뛰는 개 여섯 마리를 붙잡은 채, 개들의 소란을 뚫고 명령을 내리르며 서 있었다. 몽고메리 역시 키를 분리하고 육지로 올라와 모두가 짐을 내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오랫동안 굶은 데다 맨머리에 내리쬐는 햇볕 때문에 나는 너무 어지러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다.

잠시 후, 백발의 남자는 내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 듯 내게 다가왔다.

“아침 식사를 거의 못 하신 모양이군요.” 그가 말했다. 짙은 눈썹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눈이 검게 빛났다. “그 점은 사과드려야겠습니다. 이제 우리 손님이 되셨으니 편히 모셔야지요. 비록 초대받은 분은 아니시지만 말입니다.” 그는 내 얼굴을 예리하게 살폈다. “몽고메리 말로는 프렌딕 씨가 교육을 받은 분이라고 하더군요. 과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안다고 하던데,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나는 왕립 과학 대학에서 몇 년간 수학했으며, 헉슬리 교수 밑에서 생물학 연구를 수행했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 말에 그는 눈썹을 살짝 치켜올렸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군요, 프렌딕 씨.” 그가 약간 더 정중한 태도로 말했다. “마침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이 생물학이니까요. 이곳은 일종의 생물학 연구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흰 옷을 입은 사내들에게 머물렀다. 사내들은 표마를 굴림대에 올려 담장으로 둘러싸인 마당 쪽으로 분주히 끌고 가고 있었다. “적어도 저와 몽고메리는 그렇습니다.” 그가 덧붙였다. 이어 그가 말했다. “언제쯤 이곳을 떠날 수 있을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어디로 가는 길목에서도 벗어난 외딴 곳이라서요. 배도 일 년에 한 번쯤이나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는 나를 갑작스럽게 남겨둔 채, 이 무리를 지나 해변 위쪽으로 올라갔다. 아마도 그는 우리(enclosure) 안으로 들어간 모양이다. 다른 두 남자는 몽고메리와 함께 낮은 바위가 달린 수레 위에 작은 짐 꾸러미들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라마는 토끼 우리와 함께 여전히 보조선에 실려 있었고, 사냥개들은 여전히 배의 가로막대에 묶여 있었다. 짐 쌓기를 마친 세 남자는 모두 수레를 붙잡더니, 표마를 따라 수레를 밀기 시작했다. 수레에는 대략 1톤 정도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잠시 후 몽고메리가 그들을 떠나 나에게로 돌아오더니,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오히려 다행이야.” 그가 말했다. “그 선장은 정말 얼간이였거든. 만약 그가 계속 있었다라면 자네는 아주 피곤했을 거야.”

“당신이었군요.” 내가 말했다. “당신이 나를 다시 구해주었군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 장담컨대 이 섬이 지독하게 기묘한 곳이 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나라면 매사에 행동을 조심스럽게 살필 거야. 그 자가—” 그는 말을 멈췄더니, 막 입 밖에 내려던 말에 대해 마음을 바꾼 듯 보였다. “이 토끼들 옮기는 것 좀 도와줬으면 좋겠군.” 그가 말했다.

토끼를 다루는 그의 방식은 기이했다. 나는 그와 함께 물속을 헤치고 들어가, 토끼 우리 중 하나를 해안가로 끌어 올리는 것을 도왔다. 일을 마치기가 무섭게 그는 우리 문을 열더니, 한쪽 끝을 기울여 그 안에 든 생명체들을 땅 위로 쏟아냈다. 토끼들은 서로 뒤엉킨 채 비틀거리며 한데 쌓였다. 그가 손뼉을 치자, 토끼들은 곧장 해변 위로 특유의 꺾충 거리는 걸음걸이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내 짐작으로는 한 열다섯 마리에서 스무 마리 정도는 되어 보였다.

“번식하고 개체 수를 늘리게나, 친구들.” 몽고메리가 말했다. “이 섬을 가득 채우란 말이야. 지금까지 이곳은 고기가 좀 부족했거든.”

그들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백발의 남자가 브랜디 병과 비스킷 몇 조각을 들고 돌아왔다. “기운 좀 차리게, 프렌디.” 그가 이전보다 훨씬 친근한 말투로 말했다. 나는 군더더기 없이 곧장 비스킷

을 먹기 시작했다. 그사이 백발의 남자는 몽고메리가 토끼 스무 마리 정도를 더 풀어주는 것을 도왔다. 하지만 커다란 우리 세 개는 퓨마와 함께 집으로 옮겨졌다. 브랜디는 손도 대지 않았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술을 입에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VII장

잠긴 문

처음에는 내 처지나 주변의 모든 상황이 너무나 기이했다. 예상치 못한 모험의 결과로 맞이한 상황이었기에, 무엇이 더 이상하고 무엇이 덜 이상한지 분간할 겨를조차 없었을 것이다. 나는 해변을 따라 라마를 뒤쫓았다. 그때 몽고메리가 나를 가로막으며, 돌로 된 울타리 안으로 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다. 그제야 나는 우리 안의 퓨마와 쌓여 있는 화물들이 이 사각형 마당의 입구 바로 바깥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고개를 돌려 보니 보트의 짐은 이미 다 내려진 상태였다. 보트는 다시 바다로 밀려 나갔고, 이제 해변으로 끌려 올려지고 있었다. 백발의 남자가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몽고메리에게 말을 건넸다.

“이제 이 불청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문제군. 이 사람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과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 몽고메리가 말했다.

“이 새로운 재료들로 다시 연구를 시작하고 싶어 몸이 근질거릴 정도라네.” 백발의 남자가 우리 쪽을 톡톡히며 말했다. 그의 눈빛이 한층 밝게 빛났다.

“그렇지도 모르겠군.” 몽고메리가 말했다. 결코 다정한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말투였다.

“그를 저쪽으로 보낼 수도 없고, 그를 위해 새 오두막을 지어줄 시간적 여유도 없네. 게다가 아직 그를 믿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단계도 아니지 않나.”

“전부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가 말한 ‘저쪽’이 대체 어디를 뜻하는지 나는 전혀 알 수 없었다.

“나도 같은 걸 생각하고 있었네.” 몽고메리가 대답했다. “내 방이 있잖나, 바깥으로 통하는 문이 달린—”

“그게 좋겠군.” 나이 든 남자가 몽고메리를 바라보며 즉시 대답했다. 우리 세 사람은 모두 울타리가 쳐진 곳을 향해 걸어갔다. “프렌딕 씨, 비밀스럽게 굴어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곳의 작은 시설에는 한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일종의 ‘푸른 수염의 방’ 같은 곳이지요. 제정신인 사람에게는 정말 그리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당신을 잘 모르니 말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가 말했다. “상대방이 신뢰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불쾌하게 받아들인다면, 그건 제가 바보 같은 짓이겠지요.”

그는 무거운 입술을 비틀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입꼬리가 아래로 처진 채 웃는, 전형적인 우울한 인상의 소유자였다. 그는 나의 호의에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우리는 울타리의 정문을 지나갔다. 철제 틀로 짜인 육중한 나무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그 앞에는 보트에 실려 온 화물들이 쌓여 있었다. 모퉁이에 다다르자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문 하나가 나타났다. 백발의 남자는 기름때 절은 푸른 재킷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눈앞에 두고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열쇠를 사용해 이곳을 이토록 복잡하게 잠그는 모습이 내게는 기이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를 따라 들어갔다. 그곳은 소박하지만 불편하지 않게 꾸며진 작은 방이었고, 살짝 열려 있는 안쪽 문을 통해 돌을 깐 안뜰로 이어졌다. 몽고메리는 안쪽 문을 곧장 닫아버렸다. 방의 어두운 구석에는 해먹 하나가 걸려 있었고, 철창으로 보호된 작은 무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백발의 남자는 이곳이 내가 머물 방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안쪽 문을 반대편에서 잠가 두겠다고 했고, 그 문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안쪽의 한계였다. 그는 창가에 놓인 편안한 선베드를 가리켜 보였다. 해먹 근처 선반에는 오래된 책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는데, 살펴보니 주로 외과 서적이거나 라틴어와 그리스어 고전 판본들이었다. 내가 읽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언어들이었다. 그는 안쪽 문

을 다시 열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듯, 바깥쪽 문을 통해 방을 나갔다.

“우리는 보통 여기서 식사를 합니다.” 몽고메리가 말했다. 그러더니 그는 망설이는 듯한 기색을 보이며 다른 사람의 뒤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모로!” 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순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선반 위에 놓인 책들을 만지작거리다 보니 문득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다. 모로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 나는 창가에 앉아 남은 비스킷을 꺼내어 아주 맛있게 먹었다. 모로!

창밖으로 흰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사내 중 한 명이 해변을 따라 커다란 포장 상자를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다. 곧 창틀에 가려 그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나서 등 뒤의 문에 열쇠가 꽂히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잠긴 문 너머로 해변에서 옮겨온 사냥개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개들은 짖지 않았다. 대신 기묘한 방식으로 쿵쿵거리며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발바닥이 바닥을 빠르게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그들을 달래는 몽고메리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그 두 남자가 이곳의 정체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지키려 하는 모습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동안 나는 그 비밀스러움과, 모로라는 이름이 웬지 모르게 낯익다는 사실을 곱씹었다. 하지만 인간의 기억이란 참으로 묘해서, 당시에는 그 유명한 이름을 마땅히 연결되어야 할 대상과 결부해 떠올리지 못했다.

생각은 자연히 해변에서 보았던 기괴한 형상의 사내에게로 흘러갔다. 그가 상자를 끌어당길 때 보여준 걸음걸이와 기묘한 움직임은 생전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들 중 누구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는 사실도 떠올랐다. 비록 그들 대부분이 때때로 나를 훑쳐보긴 했지만 말이다. 그 눈빛은 순박한 야만인이 보여주는 솔직한 응시와는 전혀 달랐고, 무언가 은밀한 구석이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모두 유난히 말이 없었으며, 간혹 입을 열 때면 소름 끼치도록 기이한 목소리를 냈다. 대체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러다 문득, 몽고메리의 서투른 수행원이 보여준 눈빛이 기억났다.

그를 생각하던 찰나, 그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흰 옷을 입고 있었으며, 커피와 삶은 채소가 담긴 작은 쟁반을 들고 있었다. 그가 다가와 상냥하게 몸을 굽히며 테이블 위에 쟁반을 내려놓을 때, 나는 몸서리치며 뒤로 물러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그 순간, 경악이 나를 마비시켰다. 그의 형클어진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귀가 보였다. 그 귀가 내 얼굴 가까이로 불쑥 다가왔다. 그 남자의 귀는 뽀족했고, 가느다란 갈색 털로 덮여 있었다!

“식사 가져왔습니다, 주인님.” 그가 말했다.

나는 대답하려 애쓰지 않은 채 그의 얼굴을 뻗히 응시했다. 그는 몸을 돌려 문 쪽으로 향하며, 어깨너머로 나를 기묘한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나는 눈으로 그의 뒤를 쫓았다. 그러자 무의식적인 뇌의 작용 때문인지, 묘한 기분과 함께 어떤 문구가 머릿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모로의 구덩이’였던가? ‘모로의……’ 아! 그 순간 기억이 10년 전으로 거슬

러 올라갔다. ‘모로의 공포!’ 그 문구는 잠시 내 마음속을 떠돌더니, 이내 황갈색의 작은 팸플릿 위에 붉은 글씨로 새겨진 모습으로 떠올랐다. 그 글귀를 읽고 나면 누구나 몸서리치며 뒷걸음질 칠 만큼 섬뜩한 내용이었다. 그러자 그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다. 오래전 잊었던 그 팸플릿이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게 머릿속을 스쳤다. 당시 나는 어린 소년 이었고, 모로 박사는 아마 쉰 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는 뛰어난 상상력과 토론할 때의 잔인할 정도로 직설적인 태도로 과학계에서 명성을 떨치던, 권위 있고 위압적인 생리학자였다.

이 사람이 정말 그 모로 박사가 맞을까? 그는 과거에 수혈과 관련하여 매우 놀라운 사실들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게다가 병적인 종양에 관한 가치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었다. 그러다 돌연 그의 경력은 끊겨버렸다. 그는 영국을 떠나야만 했다. 한 기자가 자극적인 폭로를 하겠다는 작정으로 실험실 조수 자리를 꿰차고 그의 연구실에 잠입했다. 그리고 어떤 충격적인 사고(그것이 정말 사고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를 빌미로, 그의 소름 끼치는 팸플릿은 악명을 떨치게 되었다. 팸플릿이 출간되던 날, 가족이 벗겨지고 온몸이 훼손된 가련한 개 한 마리가 모로의 집에서 탈출했다. 마침 사람들의 관심이 흩어지는 한가한 시기였던 데다, 그 임시 조수의 사촌인 저명한 편집장까지 나서서 국민의 양심에 호소했다. 연구 방법론을 두고 양심이 등을 돌린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결국 박사는 사람들의 야유를 받으며 나라 밖으로 쫓겨나듯 떠나야 했다. 어쩌면 그럴 만한 대가를 치른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료 연구자들의 미온적인 지지와 대다수 과학계 종사자들의 외면은 여전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고

는 해도, 그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박사의 실험 중 일부는 무모할 정도로 잔인했다. 연구를 포기했다면 사회적 평온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연구를 계속하는 쪽을 택한 듯했다. 일단 연구라는 압도적인 마력에 빠져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하듯 말이다. 그는 미혼이었기에, 고려해야 할 대상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다.

그가 분명 같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모든 정황이 그렇게 가리고 있었다. 집 뒤편 울타리 안으로 다른 짐들처럼 옮겨진 표마와 다른 동물들이 결국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러자 묘하게 희미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지금까지 의식 저편에 머물러 있던, 무언가 익숙한 기운이 담긴 그 냄새가 갑자기 머릿속을 강렬하게 파고들었다. 그것은 바로 해부실에서나 날 법한 소독약 냄새였다. 벽 너머로 표마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개 한 마리는 마치 무언가에 맞은 듯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분명히, 특히 과학자인 나에게는 이토록 철저한 비밀을 정당화할 만큼 생체 실험이 끔찍한 일은 없었다. 그러다 문득 내 생각은 기묘한 도약을 일으켰고, 몽고메리의 수행원이 보여준 뽀족한 귀와 번뜩이는 눈동자가 마치 눈앞에 있는 듯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나는 새로 불어오는 바람에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일렁이는 초록빛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겪은 이 기이한 기억들을 머릿속에서 하나씩 되짚어 보았다.

이 모든 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외딴섬에 놓인 폐쇄된 우리,
악명 높은 생체 실험가, 그리고 이 기형적이고 뒤틀린 인간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제VIII장

퓨마의 울음소리

한 시쯤 되었을 때, 의구심과 혼란이 뒤섞여 갈피를 잡지 못하던 나를 몽고메리가 말을 끊으며 가로막았다. 그의 기괴한 하인이 쟁반을 들고 그 뒤를 따랐다. 쟁반 위에는 빵과 허브, 몇 가지 음식과 위스키 한 병, 물 한 항아리, 그리고 유리잔 세 개와 칼이 놓여 있었다. 나는 이 기이한 생명체를 걸논질로 훑어보았다. 그는 특유의 불안하고 기묘한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몽고메리는 나와 함께 점심을 먹겠다고 말하면서도, 모로 박사는 어떤 작업에 너무 몰두해 있어 올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로!” 내가 말했다.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그가 말했다. “당신에게 그런 말을 꺼내다니, 내가 정말 바보 같았군!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게 있었어. 어쨌든, 이 일로 우리 섬의 그…… 신비로운 일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겠지. 위스키 한잔할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말을 도둑맞고 나서 마구간 문을 잠가봐야 무슨 소용이겠나. 나를 이곳으로 이끈 건 그 빌어먹을 술이었어. 그 술과 안개 자욱한 밤 말이지. 모로가 나를 빼내주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난 그게 행운이라고 생각했지. 참 이상한 일이야——”

바깥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불쑥 물었다. “몽고메리, 당신네 하인은 왜 귀가 뽀족한 겁니까?”

“제길!” 음식을 한 입 머금자마자 그가 내뱉었다. 그는 잠시 나를 뵈히 바라보더니 다시 물었다. “귀가 뽀족하다고?”

“끝이 뽀족하군요.” 나는 숨이 가빠오는 것을 억누르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가장자리에 검은 털이 나 있나요?”

그는 아주 신중한 태도로 위스키와 물을 섞어 마셨다. “난 그저—그 친구 머리카락이 귀를 덮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가 당신이 보내준 커피를 탁자 위에 놓으려고 내 곁으로 몸을 굽혔을 때, 그 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를 보니, 모르는 척 연기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그가 거짓말쟁이라고 대놓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뽀죽해요.” 내가 말했다. “꽤 작고 털이 숭숭 나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털이 나 있다고요. 하지만 그 사람 전체가, 내가 지금까지 본 존재 중 가장 기이한 생명체예요.”

우리 뒤편 우리 안에서 짐승이 고통에 겨워 내지르는 날카롭고 거친 비명이 들려왔다. 그 비명의 깊이와 크기로 보아 퓨마임이 분명했다. 몽고메리가 움찔하는 것이 내 눈에 보였다.

“응?” 그가 말했다.

“그 생물은 어디서 주워온 겁니까?”

“샌프란시스코 출신이지. 인정하건대 아주 못생긴 짐승 같은 놈이야. 머리도 좀 모자라고 말이야. 어디서 왔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 하지만 난 그놈한테 익숙해. 우리 둘 다 말이지. 자네가 보기엔 어떤 것 같나?”

“그는 비정상적이예요.” 내가 말했다. “그에게는 무언가 있어요. 내가 괜한 상상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가 내 곁으로 다가올 때면 기분이 아주 불쾌해져요.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될 정도라니까요. 사실, 그에게선 악마 같은 기운이 느껴져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몽고메리는 식사를 멈춘 상태였다. “거참 이상하군!” 그가 말했다. “내 눈에는 전혀 안 보이는데.” 그는 다시 식사를 이어갔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군.” 그는 음식을 씹으며 말을 이었다. “범선 선원들도 똑같이 느꼈던 게 분명해. 그 불쌍한 녀석을 아주 가만두지 않았겠지. 선장은 봤나?”

갑자기 퓨마가 다시 울부짖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비명이었다. 몽고메리는 나직이 욕설을 내뱉었다.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그를 몰아세워 따질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때, 간혀 있던 불쌍한 짐승이 짧고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연달아 내질렀다.

“해변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 말입니다.” 내가 물었다. “그들은 어느 민족입니까?”

“정말 훌륭한 녀석들이지, 안 그런가?” 짐승이 날카롭게 울부짖자,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멍하니 중얼거렸다.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전보다 더 심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는 흐릿한 회색 눈으로 나를 뵈히 바라보더니, 위스키를 좀 더 들이켰다. 그는 위스키 덕분에 내가 목숨을 건졌다고 주장하며, 술을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내려 애썼다. 그는 내가 자신에게 생명의 빛을 졌다는 사실을 유독 강조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나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곧 식사가 끝났다. 뾰족한 귀를 가진 기괴한 형상의 괴물이 남은 음식들을 치웠고, 몽고메리는 나를 방에 홀로 남겨둔 채 다시 떠났다. 식사 내내 그는 생체 실험을 당하는 퓨마의 울음소리에 잘 감추지도 못한 짜증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묘하게 담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꺼내고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내가 알아서 헤아리도록 남겨두었다.

그 비명 소리는 유독 신경을 긁어댔다. 오후가 깊어갈수록 소리는 점점 더 깊고 강렬해졌다. 처음에는 그저 고통스럽게 들릴 뿐이었으나,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그 소음은 결국 내 평정심마저 무너뜨리고 말았다. 나는 읽고 있던 호라티우스 번역본을 내팽개쳤다. 그러고는 주먹을 짝 움켜쥐고 입술을 깨물며 방 안을 서성였다. 이윽고 나는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그 비명 소리에 담긴 감정적인 호소는 나를 끊임없이 압도했다. 마침내 그 소리는 고통을 너무나도 절절하게 표현해냈고, 나는 그 좁은 방 안에서 더는 그 소리를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문을 열고 나가 늦은 오후의 나른한 열기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다시 잠겨 있는 정문을 지나 담장 모퉁이를 돌아갔다.

밖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마치 세상의 모든 고통이 한데 모여 목소리를 낸 것만 같았다. 설령 옆방에 그런 고통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고통이 소리 없는 것이었다면, 나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었으리라. 적어도 나는 나중에 그렇게 생각했다. 고통이 목소리를 얻어 우리의 신경을 떨리게 만들 때, 비로소 그 연민이 우리를 괴롭히며 찾아오는 법이다. 눈부신 햇살이 내리쬘고 부드러운 바닷바람에 나무들이 초록빛 부채처럼 흔들리고 있었지만, 내 눈앞의 세상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검고 붉은 환영들이 떠다니며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고, 격자무늬 벽으로 둘러싸인 그 집의 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는 곳에 이를 때까지 나는 그 혼란 속을 헤맸다.

제IX장

숲속의 괴물

나는 집 뒤편 능선을 뒤덮은 덤불 사이를 성큼성큼 헤치며 나아갔다. 어디로 향하는지도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였다. 능선을 지나 곧게 뻗은 나무들이 뺨뺨하게 모여 있는 그늘을 통과했다. 그러다 어느덧 능선 반대편에 이르렀고, 좁은 계곡을 따라 흐르는 작은 시냇물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내가 멀리 떨어져 온 탓인지, 아니면 중간에 가로막힌 울창한 덤불 때문인지, 울타리 안쪽에서 들려올 법한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공기는 정지한 듯 고요했다. 그때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내 앞의 비탈길을 따라 급히 달아났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늘진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그곳은 쾌적한 곳이었다. 시냇물은 양옆 독을 뒤덮은 무성한 식물들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으나, 단 한 곳, 반짝이는 물결이 삼각형 모양으로 드러난 지점이 있었다. 건너편에는 푸르스름한 안개 너머로 나무와

덩굴식물들이 뒤엉킨 모습이 보였고, 그 위로는 빛나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여기저기 흰색이나 진홍색 얼룩이 점점이 박혀, 늘어진 착생식물들이 꽃을 피웠음을 알려 주었다. 나는 잠시 눈을 돌려 이 풍경을 감상하다가, 다시 몽고메리의 부하가 보여준 기이한 특징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기에는 날이 너무 더웠다. 이윽고 나는 졸음과 깨어 있음 그 중간 어디쯤의 평온한 상태로 빠져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개울 건너편 수풀 사이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잠시 동안은 물결치는 양치식물과 갈대 끝자락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개울가에 무언가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것은 둥근 머리를 물가로 숙이더니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곧 그것이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다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푸르스름한 천을 몸에 걸치고 있었으며, 구릿빛 피부에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 이 섬 주민들은 하나같이 기괴하고 추악한 외양을 지녔었다. 그가 물을 마실 때 입술 사이로 물을 들이켜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그를 더 잘 보려고 몸을 앞으로 숙이자, 내 손에 건드려져 떨어져 나간 용암 조각 하나가 경사면을 따라 투둑투둑 소리를 내며 굴러떨어졌다. 그는 죄책감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 그는 즉시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투박한 손으로 입을 닦으며 나를 뻔히 바라보았다. 그의 다리는 몸길이의 절반도 채 되지 않을 만큼 짧았다. 우리는 서로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한 1분 정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그러다 그는 한두 번 뒤를 돌아보며 멈칫하더니, 내 오른쪽 덩불 사이로 살금살금 사라져 갔다. 멀어지는 잎사귀들의 스치는 소리가 점차 희미해지다 이내 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가 사라진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이나 그가 도망친 방향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나를 감싸고 있던 나른한 평온함은 이미 깨져 버린 뒤였다.

뒤에서 들려온 소리에 깜짝 놀라 급히 뒤를 돌아보니, 토끼의 하얀 꼬리가 파닥거리며 언덕 위로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기괴하고 반쯤 짐승 같은 그 생명체의 환영이 나타나자, 평온하던 오후의 정적이 순식간에 깨져버린 듯했다. 나는 다소 초조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무기조차 챙기지 않은 내 처지가 후회스러웠다. 그러다 문득 방금 본 남자가 푸르스름한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야만인처럼 벌거숭이 상태는 아니었다. 나는 그 사실을 근거 삼아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 남자가 결국은 평범하고 온순한 사람일 것이라고, 그 무뚝뚝하고 험악한 얼굴은 그저 겉모습일 뿐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 환영을 목격한 뒤 나는 몹시 동요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나무들의 곧은 줄기 사이를 이리저리 살피며, 경사면을 따라 왼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째서 사람이 네 발로 기어 다니며 입술로 물을 마신단 말인가? 그때 다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것이 퓨마라고 생각하여, 소리가 나는 곳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려 걸었다. 그 길을 따라 시냇가에 다다랐고, 시냇물을 건너 그 너머의 덩불을 헤치며 나아갔다.

땅 위에 선명한 진홍색으로 물든 커다란 얼룩이 보여 나는 깜짝 놀랐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 보니 그것은 기이한 형태의 버섯이었다. 잎 모양의 지의류처럼 가지가 뻗어 있고 주름이 잡혀 있었으나, 손을 대자마자 진득한 점액질로 녹아내렸다. 이어 무성한 고사리 덩불 그림자 속에서 나는 불쾌한 광경을 마주했다. 번들거리는 파리 떼가 꼬인 토끼의 사체였다. 머리는 뜯겨 나간 상태였으나 몸은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사방에 흩뿌려진 피를 본 나는 경악하며 발을 멈췄다. 적어도 이 섬을 찾아온 방문객 중 한 명은 이렇게 처단된 모양이었다. 주변에 다른 폭력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에 갑자기 낚아채여 죽임을 당한 듯한 모습이었다. 그 작은 털 뭉치를 뺨히 바라보고 있자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시냇가에서 그 비인간적인 얼굴을 한 남자를 본 이후부터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던 막연한 공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동안 더욱 선명해졌다. 나는 이 미지의 사람들 사이로 탐험을 떠나온 내 행위가 얼마나 무모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상상력이 자극되자 주변의 덩불들이 변해 보였다. 모든 그림자는 단순한 그림자를 넘어 매복한 적처럼 느껴졌고, 바스락거리는 모든 소리는 위협으로 다가왔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해변에 있는 우리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갑자기 몸을 돌려 덩불 사이를 거칠게, 어쩌면 광적으로 헤치며 나아갔다. 다시 탁 트인 공간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탁 트인 공간으로 갑자기 튀어나가는 것을 막으려 나는 간신히 발걸음을 멈췄다. 그곳은 나무가 쓰러지면서 만들어진 숲속의 작은 공터였

다. 비어 있는 공간을 차지하려는 어린 싹들이 이미 고개를 내밀며 자라나고 있었다. 공터 너머로는 줄기와 덩굴이 뻗뻗하게 뒤엉켜 있었고, 버섯과 꽃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다시금 숲의 밀도를 채우고 있었다.

내 앞에는 거대한 고목이 쓰러져 버섯이 핀 잔해 위에 세 명의 기괴한 형체가 웅기종기 웅크리고 있었다. 내가 다가오는 줄도 모르는 모양이었다. 한 명은 분명 여성이었고, 나머지 둘은 남성이었다. 그들은 허리에 붉은 천을 감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였다. 피부색은 탁한 분홍빛이 도는 갈색이었는데, 지금까지 보아온 그 어떤 야만인에게서도 본 적 없는 색이었다. 그들은 턱이 없이 살이 처진 둔중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이마는 뒤로 물러나 있었으며, 머리에는 거친 털이 드문드문 나 있었다. 나는 그토록 짐승 같은 형상을 한 생명체는 생전 처음 보았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적어도 한 남자가 다른 두 명에게 말을 건네는 중이었는데, 세 사람 모두 대화에 너무 깊이 몰입한 나머지 내가 다가오는 바스락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그들은 머리와 어깨를 좌우로 흔들거렸다. 말하는 이의 목소리는 뭉개지고 흐릿했다. 분명히 들리기는 했으나, 무슨 말을 하는지는 도무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내 귀에는 그저 복잡한 헛소리를 읊조리는 것처럼 들렸다.

이윽고 그의 발음이 날카로워지더니, 그는 두 손을 벌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나머지 두 사람도 일제히 횡설수설하며 함께 일어섰다. 그들은 손을 뻗고, 마치 주문을 외듯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그제야 나는 그들의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짧고, 발이 길쭉하고 투박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세 사람 모두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발을 들어 올렸다가 구르고 팔을 휘둘렀다. 리듬감 있는 율조림 속에는 일종의 선율이 스며 있었고, "알룰라" 혹은 "발룰라"처럼 들리는 후렴구도 섞여 있었다. 그들의 눈은 반짝이기 시작했고, 흥축한 얼굴에는 기묘한 즐거움이 서리며 밝아졌다. 입술이 없는 그들의 입에서는 침이 흘러내렸다.

그들의 기괴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몸짓을 지켜보던 나는, 문득 무엇이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는지 처음으로 명확히 깨달았다. 왜 그들을 보며 형언할 수 없는 이질감과 동시에 기묘할 정도로 익숙한 느낌을 동시에 받았는지도 알 것 같았다. 이 신비로운 의식을 치르는 세 생명체는 형태는 인간이었으나, 어딘가 익숙한 짐승의 기운을 풍기는 이상한 인간들이었다. 그들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누더기를 걸쳤으며 몸의 생김새 또한 거친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그 움직임과 얼굴 표정, 그리고 존재 전체에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암시를 품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돼지의 형상이었고, 돼지 같은 불결한 흔적이었으며, 짐승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낙인이었다.

나는 이 경악스러운 깨달음에 압도되어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뒤이어 가장 끔찍한 의문들이 머릿속으로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나가 먼저, 이어 다른 하나가 잇따라 공중으로 펄쩍 뛰어오르며 소리를 지르고 뽕뽕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중 하나가 미끄러지며 잠시 네 발로 엎드리는 듯하더니, 곧바로 자세를 바로잡았다. 하지만 이 괴물들이 보여준 그 찰나의 짐승 같은 본성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들키지 않으려 최대한 소리 죽여 몸을 돌렸다.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잎사귀가 바스락거릴 때마다 정체가 탄로 날까 두려워 몸이 뻗뻗하게 굳기도 했지만, 나는 계속해서 덤불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다시 용기를 내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오직 이 불결한 존재들에게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나무들 사이에 희미하게 난 오솔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조차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다 작은 공터를 가로지르던 순간, 나는 불길한 예감과 함께 깜짝 놀라며 나무 사이로 보이는 투박한 다리 두 개를 목격했다. 그것은 나와 나란히, 아마도 30야드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소리 없이 걷고 있었다. 머리와 상체는 엉킨 덩굴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나는 저 괴물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기를 바라며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내가 멈추자 그 발걸음도 멈췄다.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당장이라도 앞을 향해 내달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다.

나는 엉켜 있는 덩굴 사이를 뚫어지게 살피며, 아까 물을 마시던 그 짐승의 머리와 몸을 찾아냈다. 짐승이 머리를 움직였다. 나무 그림자 속에서 놈이 나를 힐끗 바라보았을 때, 놈의 눈에서 에메랄드빛 섬광이 번뜩였다. 그 반투명한 빛은 놈이 다시 고개를 돌리자마자 사라졌다. 짐승은 잠시 움직임 없이 서 있더니, 이내 소리 없는 발걸음으로 초록빛 덤불 사이를 달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놈은 덤불 너머로 사라졌다. 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놈이 어딘가에 멈춰 서서 다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도대체 그는 무엇인가. 인간인가, 아니면 짐승인가? 그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 내게는 무기도, 막대기 하나조차 없었다. 도망치는 건 미친 짓이었다. 어쨌든 그 정체 모를 존재는 나를 공격할 용기조차 없어 보였다. 나는 어금니를 짹 깨물고 그를 향해 곧장 걸어갔다. 척추를 타고 흐르는 듯한 공포를 들키지 않으려 애쓰며 나아갔다. 하얀 꽃이 핀 키 큰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자, 스무 걸음 너머에 그가 보였다. 그는 나를 돌아보며 머뭇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두 걸음 더 다가갔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가 물었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으려 애썼다. “아니야!” 그가 갑자기 외치더니, 몸을 돌려 덤불 사이로 나를 뒤로한 채 꺾충꺾충 뛰어갔다. 그러다 다시 몸을 돌려 나를 뻘히 바라보았다. 나무 아래 깔린 어스름 속에서 그의 눈이 형형하게 빛났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쳤다. 하지만 태연한 척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며, 나는 그를 향해 꾸준히 발을 옮겼다. 그는 다시 몸을 돌리더니 어스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나는 그의 눈이 번뜩이는 것을 다시 한번 본 듯했으나, 그것이 전부였다.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는 처음으로 실감했다. 해가 진 지는 이미 몇 분이 지났고, 열대 특유의 빠른 황혼빛은 벌써 동쪽 하늘에서 스러지고 있었으며, 첫 나방 한 마리가 내 머리맡을 소리 없이 너울거리며 지나갔다. 이 신비로운 숲의 정체 모를 위험들 속에서 밤을 지새우지 않으려면, 서둘러 울타리로 돌아가

야만 했다. 고통이 깃든 그 은신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몹시 불쾌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탁 트인 곳에서 어둠에, 그리고 그 어둠이 감추고 있을지 모를 온갖 것들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었다. 나는 이 기이한 생명체를 삼켜버린 푸르스름한 그림자 속을 한번 더 응시한 뒤, 내가 왔다고 짐작되는 방향을 따라 시냇물 쪽으로 비탈길을 내려갔다.

머릿속이 여러 생각으로 어지러운 채 나는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흠어진 나무들 사이로 평탄한 지형이 나타났다. 노을이 지나간 뒤 찾아오는 무채색의 맑은 공기는 점차 어둑해졌다. 머리 위 푸른 하늘은 순간적으로 더 짙어졌고, 가늘게 남은 빛 사이로 작은 별들이 하나둘씩 박히기 시작했다. 낮 동안 뿌연 푸른빛을 띠던 나무 사이의 틈새와 멀리 보이는 숲의 빈 공간들은 이제 검고 신비로운 어둠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계속 나아갔다. 세상에서 색채가 사라져 갔다. 나무 꼭대기들은 빛을 머금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먹색 실루엣을 그리며 솟아 있었고, 그 윤곽 아래의 모든 것은 형체 없는 검은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곧 나무들은 드문드문해졌고, 관목이 우거진 덤불은 더욱 무성해졌다. 그러다 흰 모래로 뒤덮인 황량한 공간이 나타났고, 뒤이어 엉킨 덤불이 넓게 펼쳐졌다. 전에 이 모래 벌판을 지나온 기억은 없었다.

오른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바스락거림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환청이라 생각했다. 걸음을 멈출 때마다 나무 꼭대기를 스치는 저녁 바람 소리를 제외하고는 정적만이 감돌았기 때문이다. 하

지만 다시 서둘러 발을 떼자, 내 발소리에 맞춰 메아리 같은 소리가 뒤 따라왔다.

나는 덤불을 피해 탁 트인 지형을 따라 걸었다. 그러면서도 무언가 나를 몰래 기어오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려 가끔씩 갑자기 몸을 돌려 주위를 살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 곁에 있다는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다. 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낮은 능선에 이르러 그곳을 넘은 뒤, 나는 핵 몸을 돌려 건너편에서 그 능선을 뚫어지게 지켜보았다. 능선은 어둑해진 하늘을 배경으로 검고 또렷한 윤곽을 드러냈다. 곧이어 형체 없는 덩어리 하나가 하늘 경계선 위로 잠시 솟아올랐다가 다시 사라졌다. 황갈색 얼굴을 한 적이 다시 나를 몰래 뒤쫓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또 하나의 불쾌한 사실을 깨달았으니, 바로 길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한동안 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혹감에 빠진 채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뒤에서는 무언가 은밀하게 다가오는 기척이 계속 따라붙었다. 그 정체는 무엇이든, 그 '것'은 나를 공격할 용기가 없거나, 혹은 내가 방심한 틈을 노리며 기다리는 중이었다. 나는 일부러 탁 트인 곳으로만 다녔다. 때때로 뒤를 돌아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추격자가 추적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그저 혼란에 빠진 내 상상이 만들어진 환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반쯤 설득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그때,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거의 뛰다시피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자 곧바로 내 뒤에서 무언가 비틀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갑자기 몸을 돌려 뒤편의 어두운 나무들을 응시했다. 검은 그림자 하나가 다른 그림자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몸을 굳힌 채 귀를 기울였으나, 귓가에 피가 흐르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신경이 곤두서서 상상력이 나를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다시 결연히 바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1분쯤 지났을까, 나무들이 점차 드문드문해지더니 마침내 어두운 바다로 길게 뻗은 낮고 황량한 곳이 나타났다. 밤공기는 고요하고 맑았다. 수없이 늘어난 별빛이 잔잔하게 일렁이는 바다 위로 떨어지며 비쳤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불규칙하게 이어진 암초 지대에 부딪히는 파도가 스스로 창백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서쪽 하늘에는 황도광이 저녁 별의 노란 광채와 뒤섞여 보였다. 동쪽으로는 해안선이 나에게서 멀어지며 뻗어 갔고, 서쪽은 곳의 능선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그때 문득 모로 박사의 해변이 서쪽에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내 뒤에서 나뭇가지가 툭 부러지더니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몸을 돌려 어두운 나무들을 마주 보고 섰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것이 보이는 것 같았다. 어스름 속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검은 형체들은 하나같이 불길한 기운을 뿜어냈고,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며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그 상태로 1분 정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다 여전히 나무 쪽을 살피며 서쪽으로 몸을 돌려 곳을 가로질러 가기 시작했다. 내가 움직이자, 숨어 있던 그림자 중 하나가 나를 뒤쫓듯 움직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윽고 서쪽으로 길게 뻗은 만의 전경이 눈에 들어오자 나는 다시 발을 멈추었다. 소리 없이 따라오던 그림자도 내게서 십여 야드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다. 만의 굽이진 끝자락에는 작은 빛 한 점이 반짝이고 있었고, 별빛 아래로 회색빛 모래사장이 희미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 빛은 아마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새어나오는 듯했다. 해변에 닿으려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는 나무 사이를 지나 덩불이 우거진 경사로를 내려가야만 했다.

이제 그 형체가 조금 더 또렷하게 보였다. 똑바로 서 있는 모습으로 보아 짐승은 아니었다. 나는 무언가 말하려 입을 벌렸으나, 목소리는 가래 끓는 듯한 거친 소리로 막혀버렸다. 다시 한번 시도하며 소리쳤다. “거기 누구냐!” 대답은 없었다. 내가 한 걸음 다가갔다. 그 형체는 움직이지 않고 그저 몸을 웅크릴 뿐이었다. 그때 발에 돌 하나가 채였다.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눈앞의 검은 형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몸을 굽혀 그 돌덩이를 집어 들었다. 하지만 내가 움직이자 그 형체는 마치 개가 그러하듯 갑자기 몸을 돌리더니,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비스듬히 스며들어 갔다. 나는 커다란 개를 만났을 때 소년들이 쓰던 방책이 떠올라, 돌을 손수건으로 감싸고 손목에 단단히 고정했다. 어둠 속 저 멀리서 그 형체가 후퇴하는 듯한 움직임이 들렸다. 그러다 갑자기 팽팽했던 긴장감이 한꺼번에 풀려버렸다. 적은 물러갔고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었지만, 나는 온몸이 떨리며 비 오듯 땀을 흘렸다.

숲과 덩불이 우거진 곳의 비탈을 따라 해변까지 내려갈 결심을 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다. 마침내 나는 달음박질치듯 내려갔다. 덩불을 헤치고 모래사장으로 나오자마자, 뒤를 따라 무언가 거칠게 부딪히

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나는 공포로 완전히 정신을 잃고 모래사장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곧이어 부드러운 발바닥이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가 뒤를 쫓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더욱 속도를 높였다. 내가 지나갈 때마다 토끼보다 서너 배는 더 큰 검고 희미한 형체들이 해변에서 덩불 쪽을 향해 뛰거나 꺾충꺾충 뛰어오르고 있었다.

살아있는 한, 나는 그 추격의 공포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물가 근처를 달렸고, 간간이 나를 뒤쫓으며 거리를 좁혀오는 발소리의 침범거림을 들었다. 저 멀리, 절망적일 만큼 먼 곳에서 노란 불빛이 보였다. 밤새도록 우리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뿐이었다. 침병, 침병. 뒤쫓는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탓에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쉼쉼거리는 소리가 났고, 옆구리에는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저 괴물이 내가 울타리에 도착하기도 전에 나를 따라잡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흐느끼던 나는 몸을 돌려 다가오는 괴물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내리쳤다. 그 순간 손수건으로 만든 투석기에서 돌이 튀어나갔다. 네 발로 달리던 그 괴물은 내가 몸을 돌리는 찰나 두 발로 일어섰고, 내가 던진 돌은 괴물의 왼쪽 관자놀이에 정확히 명중했다. 두개골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짐승인간은 비틀거리며 나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나를 밀쳐냈고, 그대로 비틀거리며 내 곁을 지나쳐 모래 위로 고꾸라졌다. 남은 얼굴이 물에 잠긴 채 그대로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다.

그 검은 더미에는 차마 다가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그대로 둔 채, 고요한 별빛 아래 물결이 일렁이는 그 곁을 멀찍이 돌아서

집에서 흘러나오는 노란 불빛을 향해 나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도감이 밀려올 정도로 애처로운 퓨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 이 신비로운 섬을 탐험하러 나서게 만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듣자 기운이 다 빠지고 몸은 형편없이 지쳐 있었지만, 나는 남은 힘을 모두 쥐어짜 다시 불빛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제X장

그 남자의 울부짖음.

집 근처에 다다르자 내 방의 열린 문틈으로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때 주황색 직사각형 모양으로 빛나는 문틈 옆, 어둠 속에서 몽고메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프렌딕!" 하고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달렸다. 곧이어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나는 힘겹게 "여기예요!"라고 대답하며 비틀거리며 그에게 다가갔다.

“어디 갔다 오는 건가?”

그는 나를 팔을 뻗어 멀찍이 떨어뜨려 세웠다. 덕분에 문틈으로 새어 나온 빛이 내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었다.

“우리 둘 다 너무 바빠서, 한 시간 전쯤까지는 자네를 잊고 있었네.”

그는 나를 방 안으로 이끌더니 데크 의자에 앉혔다. 한동안은 눈이 부셔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우리에게 말도 없이 이 섬을 탐험하러 나갈 줄은 몰랐네.” 그가 말을 이었다. “걱정했다네. 그런데, 대체 무슨—어라!”

남아 있던 마지막 기력마저 빠져나가며, 나는 고개를 떨구고 가슴팍 위로 엎어졌다. 그는 내게 브랜디를 건네며 어떤 만족감을 느꼈던 모양이다.

“제발 부탁이니,” 내가 말했다. “그 문 좀 잠가요.”

“우리 섬의 기이한 것들을 좀 만나본 모양이군?” 그가 말했다.

그는 문을 잠그고 다시 나를 향해 돌아섰다.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대신, 그는 브랜디에 물을 더 타서 건네주며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다. 나는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는 미리 경고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 모호하게 한마디 덧붙이더니, 내가 언제 집을 나섰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았는지 짧게 물었다.

나도 그에게 짧은 문장들을 끊어 가며 간략히 대답했다. 나는 거의 히스테리 상태에 빠진 채 그에게 말했다. “이게 다 대체 무슨 뜻인지 말해줘요.”

“그리 대단히 끔찍한 일은 아닐세.” 그가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좋겠네.” 그때 갑자기 퓨마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에 그는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제기랄,” 그가 말했다. “이 섬도 고양이 들끓는 고위 스트리트 못지않게 지독하군그래.”

“몽고메리,” 내가 물었다. “방금 나를 뒤쫓아온 건 대체 뭐였습니까?
짐승이었나요, 아니면 사람이었나요?”

“오늘 밤 잠을 자지 않으면,” 그가 말했다. “내일은 제정신이 아닐
걸세.”

나는 그의 앞에 서서 물었다. “나를 뒤쫓아온 그건 대체 무엇이었습
니까?”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더니 입술을 비뚤게 뒤틀었다. 조금 전
까지만 해도 생기가 돌던 그의 눈동자는 이내 흐릿하게 죽어버렸다.
“자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가 말했다. “그건 유령이었던 것 같군.”

강렬한 짜증이 울컥 치밀어 올랐으나, 그 기분은 찾아온 만큼이나
빠르게 가라앉았다. 나는 다시 의자에 몸을 던지듯 앉아 두 손으로 이
마를 짓눌렀다. 뿔마가 다시 울부짖기 시작했다.

몽고메리가 내 뒤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봐, 프렌딕.” 그
가 말했다. “자네를 이 어처구니없는 섬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었는데,
내 실수였네. 하지만 자네가 느끼는 것만큼 상황이 나쁘지는 않아. 지
금 자네는 신경이 완전히 닳아 해진 상태라네. 잠들 수 있게 약을 좀 주
겠네. _저것_은—앞으로도 몇 시간은 계속될 테니 말일세. 무조건 잠
을 자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더는 책임질 수 없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몸을 앞으로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릴 뿐이었다. 잠시 후, 그는 검은 액체가 담긴 작은 잔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내게 그 잔을 건넸다. 나는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 마셨고, 그는 내가 해먹에 누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해가 높이 떠 있었다. 나는 한동안 납작하게 누워 머리 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서까래는 배를 만들 때 쓴 목재로 짜여 있었다. 고개를 돌리자 탁자 위에 나를 위해 차려진 식사가 보였다. 허기가 느껴졌다. 나는 해먹에서 기어 나오려 했다. 그러자 해먹은 마치 내 의도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아주 정중하게 몸을 비틀더니 나를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내려놓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 앞에 앉았다. 머리는 무거웠고, 밤사이 일어난 일들은 처음에는 그저 희미한 기억으로만 떠올랐다. 유리창도 없는 창문 사이로 아침 바람이 아주 기분 좋게 불어왔다. 그 바람과 음식 덕분에 나는 짐승 같은 안락함을 느꼈다. 잠시 후, 내 뒤편에 있는 문, 즉 우리 안쪽 마당으로 통하는 문이 열렸다. 내가 몸을 돌리자 몽고 메리의 얼굴이 보였다.

“알겠네.” 그가 말했다. “지금 아주 정신없이 바쁘거든.” 그러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나중에야 그가 문을 다시 잠그는 것을 잊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제야 전날 밤 그가 지었던 표정이 떠올랐고, 그 기억을 기점으로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눈앞에 다시 재구성되었다. 공포가 되살아남과 동시에 안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퓨마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입술 끝에서 머뭇거리던 무언가를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다. 아침 바람이 속삭이는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내 귀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에야 나는 다시 식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귀는 여전히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깨어 있었다. 잠시 후, 아주 희미하고 낮은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마치 얼어붙은 듯 그 자세 그대로 멈춰 앉았다. 소리는 작고 낮았으나, 지금까지 담장 너머에서 들었던 그 어떤 끔찍한 소리보다도 내 마음을 깊게 뒤흔들었다. 이번에는 그 희미하고 끊어질 듯한 소리의 정체를 결코 오해할 수 없었다. 소리의 근원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흐느낌과 혈떡임이 뒤섞인 신음이었다. 이번에 들린 것은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한 인간의 비명이었다!

그 사실을 깨달자마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 걸음 만에 방을 가로지른 나는 마당으로 통하는 문손잡이를 움켜쥐고 문을 확 열어젖혔다.

“프렌딕, 이 사람아! 멈추게!” 몽고메리가 끼어들며 외쳤다.

깜짝 놀란 디어하운드 한 마리가 짖으며 으르렁거렸다. 싱크대 안에는 피가 고여 있었다. 갈색으로 변한 피와 선홍색 피가 섞여 있었고, 코 끝에는 특유의 석탄산 냄새가 스쳤다. 그때 열린 문 너머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가 보였다. 그것은 어떤 틀에 고통스럽게 묶여 있었는데, 온몸이 흉터로 가득했고 붉게 부어오른 채 봉대가 감겨 있었다. 곧 이어 그 형상을 가리며 모로 박사의 얼굴이 나타났다. 창백하고도 섬뜩한 얼굴이었다.

순식간이었다. 붉은 피가 묻은 손이 내 어깨를 움켜쥐더니, 그는 나를 바닥에서 들어 올려 내 방 안으로 거칠게 내동댕이쳤다. 그는 마치 나를 어린아이 다루듯 번쩍 들어 올렸다. 나는 바닥에 완전히 고꾸라졌고, 문이 쿵 닫히며 격정적인 그의 얼굴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어서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몽고메리가 항의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생을 바쳐 일군 결과물을 망쳐놓다니.” 모로 박사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몽고메리가 말했다. 뒤이어 그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덧붙였다.

“아직은 시간을 낼 수가 없네.” 모로 박사가 말했다.

그 뒤의 말은 듣지 못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세웠지만, 온몸은 떨리고 있었다. 머릿속은 끔찍한 불길함으로 뒤엉켜 혼란스러웠다. 설마, 정말로 이곳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하고 있단 말인가? 그 의문이 요동치는 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다. 그러자 안개처럼 뿌영던 공포가 순식간에 응축되며, 내가 처한 위험이 생생한 현실로 다가왔다.

제XI장

인간 사냥.

내 방의 바깥문이 여전히 열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치에 맞지 않는 희망이 머릿속을 스쳤다. 모로가 인간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해왔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 확신을 넘어 완전히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의 이름을 처음 들은 순간부터, 나는 섬사람들이 보여주는 기괴한 야수성을 그의 끔찍한 행위와 어떻게든 연결 지어 생각하려 애써왔다. 그리고 이제야 그 모든 실체가 눈앞에 선명히 보였다. 혈액 수혈에 관한 그의 연구 내용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내가 목격한 이 생명체들은 어떤 끔찍한 실험의 희생양이었다. 이 역겨운 악당들은 단지 나를 붙들어 두려 했을 뿐이다. 자신만만한 태도로 나를 속인 뒤, 머지않아 죽음보다 더 끔찍한 운명, 즉 고문으로 나를 덮치려 한 것이다. 고문 뒤에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타락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들은 나를 구제 불능의 영혼이자 짐승으로 만들어, 저들의 광란적인 잔치 속으로 내던지려 하고 있었다.

무기라도 될 만한 게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선상 의자를 뒤집어 놓고 옆면에 발을 디딘 채 옆쪽 난간을 뜯어냈다. 마침 나무와 함께 못 하나가 빠져나와 툭 튀어나왔는데, 그 덕분에 보잘것없던 무기에 제법 위협적인 데가 생겼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즉시 문을 벌컥 열었고, 몽고메리가 문 바로 앞에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바깥문을 잠그려던 참이었다! 나는 못이 박힌 막대기를 들어 그의 얼굴을 내리쳤으나, 그는 몸을 뒤로 꺾 짓히며 피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대로 몸을 돌려 집 모퉁이를 돌아 달아났다.

“프렌딕, 이 사람아!” 그의 경악 섞인 외침이 들려왔다. “바보같이 굴지 말게, 이 친구야!”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나는 생각했다. '그가 나를 가두었을 것이고, 나는 병원에서 실험을 기다리는 토끼처럼 내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을 것이다.' 몽고메리가 모퉁이 뒤에서 나타났다. "프렌딕!" 하고 그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그는 나를 뒤쫓으며 소리를 질러댔다. 나는 이번에는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렸다. 이전의 도주 경로와 직각을 이루는 북동쪽 방향이었다. 해변을 따라 정신없이 달려가던 중, 나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가 그의 수행원까지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미친 듯이 언덕을 뛰어 올라갔다. 언덕을 넘어 양옆이 정글로 둘러싸인 바위 계곡을 따라 동쪽으로 달렸다. 그렇게 1마일쯤 달렸을까. 가슴은 터질 듯 조여왔고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다. 몽고

메리와 그의 수행원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자, 나는 탈진 직전의 상태에서 해변 쪽으로 급히 방향을 틀어 달렸다. 그러고는 갈대숲의 은신처에 몸을 누였다. 나는 한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움직이기엔 너무 두려웠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엄두가 나지 않았다. 주변의 거친 풍경은 태양 아래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내 곁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나를 찾아낸 작은 날벌레들의 가느다란 웅웅거림뿐이었다. 이윽고 해변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나른한 숨소리처럼 들려오기 시작했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북쪽 멀리서 몽고메리가 내 이름을 부르며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자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되었다. 당시 내가 판단하기로, 이 섬에는 오직 두 명의 생체 실험가와 그들에게 붙잡혀 짐승처럼 변해버린 희생자들뿐이었다. 만약 상황이 나빠진다면, 저들은 분명 나를 공격하기 위해 저 실험가들의 수하로 움직일 것이었다. 모로 박사와 몽고메리 둘 다 리볼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반면 나는 작은 못 하나를 박아 넣은 가냘픈 나무 막대기 하나뿐이었다. 둔기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조잡한 물건 외에는 아무런 무기도 없었다.

나는 그곳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러다 문득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생각나기 시작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주변에 있을지도 모를 뿌리나 열매를 찾아낼 만큼 식물학에 해박하지도 못했다. 섬에 몇 안 되는 토끼를 잡을 방도도 없었다. 앞날을 생각하면 할수록 눈앞이 캄캄해졌다.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른 나는 내가 마

주쳤던 짐승인간들을 떠올렸다. 그들에 대해 기억나는 것에서라도 어떤 희망을 찾아보려 애썼다. 나는 내가 보았던 짐승인간들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기억을 더듬어 그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 가늠해 보았다.

그때 갑자기 사냥개의 짖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새로운 위험이 닥쳤음을 깨달았다.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가는 그들에게 붙잡히고 말 터였다.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못이 박힌 막대기를 움켜쥐고, 소리가 나는 바다를 향해 은신처에서 튀어 나갔다. 펜칼처럼 날카로운 가시가 돌친 덤불을 헤치고 지나온 기억이 난다. 북쪽으로 열린 긴 개울가에 다다랐을 때, 내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나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개울을 따라 물을 헤치며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다. 마침내 서쪽 기슭으로 기어 올라온 나는, 귀가 울릴 정도로 세차게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고사리 덤불 속으로 몸을 숨긴 채 상황을 지켜보았다. 개 한 마리가(그것은 단 한 마리뿐이었다) 점점 가까워지더니, 가시덤불에 걸려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마침내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침묵은 길게 이어졌고, 한 시간가량 안도감이 감돌자 마침내 용기가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쯤 되니 공포나 비참함도 그리 심하지 않았다. 나는 말하자면 공포와 절망의 한계를 이미 넘어선 상태였다. 내 목숨은 사실상 끝났다는 생각이 들자, 오히려 무엇이든 저지를 수 있는 대담함이 생겼다. 모로 박사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다는 기묘한 욕망마저 들었다. 물속을 헤치며 나아가던 중, 나는

만약 상황이 너무나 절박해지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마지막 탈출구가 하나 남아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내가 스스로 물에 빠져 죽는 것까지 그들이 막을 수는 없을 터였다. 그 순간 차라리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으나, 이 모든 모험이 어떻게 끝날지 지켜보고 싶다는 이상한 욕구가 나를 붙잡았다. 마치 남의 일을 구경하듯 무심하고도 기이한 흥미가 나 자신을 관찰하게 만든 것이다.

나는 가시 돋친 식물들에 찢려 쓰리고 아픈 팔다리를 쭉 뻗으며 주변의 나무들을 둘러보았다. 그때였다. 초록빛 잎사귀들이 얇힌 틈 사이에서 갑자기 검은 얼굴 하나가 툭 튀어나오듯 내 시야에 들어왔다. 나를 지켜보고 있는 얼굴이었다. 해변에서 보트와 마주쳤던 그 유인원 생물이었다. 그는 야자나무의 비스듬한 줄기에 매달려 있었다. 나는 지팡이를 움켜쥐고 그를 마주 보며 일어섰다. 그는 실 새 없이 짹짹거리며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너, 너, 너"라는 말만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가 나무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순식간에 야자수 잎을 양옆으로 벌린 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뵈응시했다.

그 생명체를 마주했을 때, 다른 짐승인간들을 만났을 때 느꼈던 것과 같은 혐오감은 들지 않았다. “당신,” 그가 말했다. “배에 탄 사람 말 이야.” 그는 말을 할 수 있었다. 적어도 몽고메리의 수행원만큼은 인간의 면모를 갖춘, 분명한 사람이었다.

“네,” 내가 말했다. “보트를 타고 왔습니다. 배에서요.”

“오!”

그가 외쳤다. 그의 밝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가 나를 훑어 내려갔다. 내 손과 내가 쥐고 있는 지팡이, 발끝, 그리고 코트 여기저기 해진 곳과 가시덤불에 긁힌 상처들까지 훑었다. 그는 무언가에 혼란스러운 듯 보였다. 그러더니 다시 내 손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밀어 손가락을 하나씩 천천히 쫓아보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여덟?”

그때는 그의 뜻을 알아채지 못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짐승인간들 중 상당수는 손의 형태가 기형적이었고, 어떤 이들은 손가락이 세 개나 모자라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행동이 일종의 인사라고 짐작하여, 나 역시 답례로 똑같이 행동했다. 그러자 그는 무척 만족스럽다는 듯 씨익 웃어 보였다. 그러고는 빠르게 눈을 굴려 주위를 다시 살피더니, 순식간에 몸을 움직여 사라져 버렸다. 그가 서 있던 양 옆의 고사리 잎들이 스르륵 맞물리며 닫혔다.

나는 덤불을 헤치고 그를 뒤쫓아 나갔다. 그러다 머리 위 나뭇잎 사이로 늘어진 덩굴 줄기에 매달려, 한쪽 가느다란 팔로 경쾌하게 몸을 흔들고 있는 그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는 나를 등지고 있었다.

“여보세요!” 내가 말했다.

그는 몸을 비틀며 펄쩍 뛰어 내려오더니, 내 앞을 가로막고 섰다.

“저기요,” 내가 말했다. “어디 가서 뭘 좀 먹을 수 있을까요?”

“먹어!” 그가 말했다. “이제부터는 인간의 음식을 먹어라.” 그러고는 다시 흔들리는 밧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오두막에서 말아야.”

“그런데 오두막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는 그 말을 마치자마자 몸을 뒹 돌리더니 빠른 걸음으로 앞서 나갔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기이할 정도로 빨랐다. “어서 따라오게.” 그가 말했다.

나는 그와 함께 그 모험의 끝을 확인하러 갔다. 그들이 사는 오두막은 그와 몇몇 짐승인간들이 머무는 거친 피난처일 것이라 짐작했다. 어쩌면 그들이 나를 우호적으로 대할지도 모른다. 그들의 정신 어딘가에 서 내가 붙잡고 대화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유산을 얼마나 멀리 잊어버렸는지는 알 수 없었다.

유인원 같은 동행자는 손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턱을 앞으로 쭉 내민 채 내 곁에서 종종걸음으로 따라왔다. 저 녀석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남아 있을지 궁금했다. 내가 물었다. “이 섬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나?” 그가 되물었다. 질문을 다시 듣고 나서야 그는 손가락 세 개를 들어 보였다.

그 생물은 백치나 다름없었다. 나는 그가 대체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파악하려 애썼으나, 내 질문이 그를 지루하게 만든 모양이었다. 한두 마디 질문을 더 주고받은 뒤, 그는 갑자기 내 곁을 떠나 나무에 매달린 열매를 향해 뛰어올랐다. 그는 가시 돋친 껍질을 한 움큼 따내더니 그 안의 내용물을 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적어도 먹이를 어떻게 주어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질문들을 던지며 그를 시험해 보았다. 하지만 그가 재잘거리며 즉각 내뱉는 대답들은 내 질문의 의도와 어긋나는 경우가 허다했다. 간혹 적절한 대답이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앵무새처럼 흉내 내는 수준이었다.

나는 이러한 기묘한 점들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우리가 따라가는 길조차 거의 의식하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게 그을린 갈색 나무들이 나타났고, 곧이어 황백색의 딱딱한 피막으로 뒤덮인 벌거숭이 땅이 나타났다. 그 위로는 코와 눈을 찌를 듯 매캐한 연기가 훑날리고 있었다. 오른쪽의 민머리 바위 언덕 너머로는 평평하고 푸른 바다가 보였다. 길은 검은 화산 쇄설물이 뒤엉킨 채 무너져 내린 두 덩어리 사이, 좁은 협곡을 향해 갑작스럽게 굽어 내려갔다. 우리는 그 속으로 뛰어들었다.

유황빛 땅에 반사된 눈부신 햇빛을 지나 이 통로로 들어서자, 사방은 지독할 정도로 어두워졌다. 벽은 점점 가팔라지더니 양옆에서 서로 맞닿을 듯 좁혀져 왔다. 눈앞에는 초록색과 진홍색 얼룩이 어지럽게 어른거렸다. 안내하던 이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도착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처음에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깊은 구덩이 바닥에 서 있었다. 정체 모를 기괴한 소리들이 들려왔고, 나는 왼손 마디를 눈에 밀어 넣으며 눈을 압박했다. 동시에 불쾌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마치 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원숭이 우리에서 날 법한 냄새였다.

그 너머로 암벽이 다시 열리며 햇빛을 머금은 완만한 초록빛 경사지가 나타났다. 양옆으로는 좁은 틈을 타고 내려온 빛줄기들이 중앙의 어스름 속으로 거세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제XII장

법을 외치는 자들

그때 무언가 차가운 것이 내 손에 닿았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떨었다. 가까이 보니 희미하게 분홍빛을 띠는 무언가가 있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족이 벗겨진 어린아이를 닮은 형상이었다. 그 생명체는 나무늘보처럼 온순하면서도 역겨운 이목구비를 지녔고, 낮게 내려앉은 이마와 느릿한 몸짓까지 똑 닮아 있었다.

빛의 변화로 인한 첫 충격이 가라앉자, 주변의 모습이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무늘보를 닮은 작은 생물 하나가 서서 나를 뵈며 응시하고 있었다. 나를 안내하던 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내가 있는 곳은 높은 용암 벽 사이로 난 좁은 통로이자, 뒤엀킨 바위틈이었다. 양옆으로는 바위에 기대어 쌓인 해초 더미와 종려나무 부채꼴 잎, 갈대들이 서로 얹혀 거칠고도 칠흑같이 어두운 은신처를 이루고 있었다. 이 협곡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진 길은 폭이 채 3야드도 되지 않았으며, 썩어가

는 과육 덩어리와 각종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어 길의 형체가 엉망이었다. 그 오물들 때문에 이곳에서는 불쾌한 악취가 풍겨 나왔다.

작고 분홍빛을 띠는 나무늘보 같은 생물은 여전히 나를 향해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그때 내 안내자 역할을 하는 유인원 인간이 가장 가까운 굴의 입구에 나타나 나를 안으로 손짓하며 불렀다. 그가 손짓하는 순간, 이 기이한 거리 위쪽의 거처 중 한 곳에서 구부정한 괴물 하나가 꿈틀거리며 기어 나왔다. 괴물은 저 멀리 보이는 밝은 초록빛을 배경으로 형체 없는 실루엣이 되어 일어선 채 나를 뵈듯 응시했다. 나는 왔던 길로 도망쳐 버릴까 하는 마음이 들어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이 모험을 끝까지 해내기로 마음먹은 나는, 손톱이 박힌 지팡이의 중간 부분을 움켜쥐고 안내자를 따라 악취가 진동하는 작은 움막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곳은 벌집의 절반을 떼어놓은 듯한 반원형 공간이었다. 안쪽을 이루는 암벽에는 코코넛을 비롯한形形色색의 과일들이 쌓여 있었다. 바닥에는 용암과 나무로 만든 거친 그릇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그중 하나는 투박한 의자 위에 놓여 있었다. 불은 피워져 있지 않았다. 오두막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덩어리가 앉아 있었는데, 내가 안으로 들어서자 그 덩어리는 "헤이!" 하고 퐁퐁거리는 소리를 냈다. 내가 다른 쪽 구석으로 기어 들어가 쪼그려 앉는 동안, 유인원 인간은 문가에 희미한 빛을 받으며 서서 반으로 쪼갠 코코넛을 내밀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과 참기 힘들 정도로 답답한 공간의 공기 속에서도, 최대한 태연하게 코코넛을 받아 갹아먹기 시작했다. 분홍빛을 띠는 작은 나무늘보 같은 생물 하나가 오두막의 입구에 서 있었고, 그

어깨 너머로 칙칙한 얼굴에 눈만 번뜩이는 무언가가 나를 뵈듯 응시하며 다가왔다.

“이봐!” 맞은편에 있는 정체 모를 형체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람이군.”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요!” 내 안내자가 말을 더듬으며 내뱉었다.
“사람이에요, 사람, 나처럼 다섯 명의 몫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닥쳐!”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끄 하는 신음이 이어졌다. 압도적인 정적 속에서 나는 코코넛을 갇아먹었다.

나는 어둠 속을 뚫어지게 응시했으나,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다.

“사람이야.” 목소리가 되풀이했다. “그가 우리와 함께 살러 오는 거야?”

목소리는 걸걸했다. 그 안에는 일종의 휘파람 같은 배음이 섞여 있었는데, 그것이 무척이나 기이하게 들렸다. 하지만 영어 억양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유창했다.

유인원 인간은 마치 무언가 기대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가 잠시 멈췄던 이유가 내게 질문을 던지려는 의도임을 알아차렸다.

“그가 당신과 함께 살게 될 겁니다.” 내가 말했다.

“사람이다. 저놈은 법을 배워야만 해.”

이제 검은 어둠 속에서 한층 더 짙은 어둠이 보이기 시작했다. 구부정하게 몸을 웅크린 형체의 희미한 윤곽이었다. 이어 그곳의 입구가 두 개의 검은 머리에 가려져 어둑해진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지팡이를 왼손에 힘을 주었다.

어둠 속의 존재가 더 큰 목소리로 "그 말을 해라"라고 되풀이했다. 나는 그 존재가 마지막에 한 말을 놓치고 말았다. "네 발로 기어 다니지 말 것, 그것이 법이다." 그 존재는 마치 노래를 부르듯 리듬을 실어 그 말을 반복했다.

나는 당혹스러웠다.

"그 말을 해!" 유인원인 사내가 되풀이하며 말했다. 문가에 서 있던 형체들도 그 말을 따라 하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거들었다.

나는 이 어리석은 주문을 반복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고 나서 미친 듯한 의식이 시작되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광기 어린 기도문을 한 줄씩 읊조리기 시작했고, 나를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 했다. 사람들은 주문을 외우며 기묘한 모습으로 몸을 좌우로 흔들었고, 무릎을 손바닥으로 두드렸다. 나 역시 그들을 따라 했다. 나는 내가 이미 죽어서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착각마저 들었다. 어두컴컴한 오두막, 희미한 빛이 여기저기 얼룩진 채 나타나는 기괴하고 흐릿한 형체들, 그리고 그 모두가 일제히 몸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광경이라니.

"네 발로 기어 다니지 말 것. 그것이 법이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냐?"

술을 들이켜지 말 것. 그것이 법이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냐?

물고기나 고기를 먹지 말 것. 그것이 법이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냐?

나무껍질을 핥지 말 것. 그것이 법이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냐?

다른 인간을 쫓지 말 것. 그것이 법이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냐?”

그리하여 어리석은 행위들을 금지하는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미친 짓이자, 가장 불가능하며, 가장 외설적인 행위들이었다. 우리 모두에게 일종의 리드미컬한 열광이 몰아쳤다. 우리는 이 경이로운 법을 반복하며 점점 더 빠르게 재잘거리고 몸을 흔들었다. 겉으로 보기에 나는 이 짐승인간들의 광기에 전염된 듯했으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웃음과 혐오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우리는 금지 사항이 담긴 긴 목록을 훑어 내려갔고, 이윽고 구호는 새로운 문구로 넘어갔다.

“고통의 집은 그의 것이다. 만드는 손도 그의 것이다. 상처 입히는 손도 그의 것이다. 치유하는 손도 그의 것이다.”

그 뒤로도 정체 모를 '그분'에 관한 이야기가 길게 이어졌으나, 내게는 그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황설수설에 불과했다.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꿈속에서 이토록 기괴한 찬송 소리를 들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번개는 그분의 것이요,” 우리는 노래했다. “깊고 짙 바다 또한 그분의 것이라.”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다. 모로 박사가 이들을 짐승으로 만든 뒤, 그 왜소해진 뇌 속에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도록 일종의 세뇌를 해 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내 주변을 에워싼 하얀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이 너무도 생생하게 느껴졌기에, 나는 그 공포를 곱씹을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주문을 외워야만 했다.

“하늘에 떠 있는 저 별들은 모두 그의 것이다.”

마침내 그 노래가 끝났다. 유인원 인간의 얼굴이 땀으로 번들거리는 것이 보였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목소리가 흘러나오던 구석의 형체가 더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사람 크기였지만, 마치 스카이 테리어처럼 칙칙한 회색 털로 뒤덮인 듯 보였다. 그것은 대체 무엇인가? 그들은 모두 무엇이란 말인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불구자들과 미치광이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을 떠올려 보라. 그러면 내 주변을 에워싼 이 기괴한 인간의 모사품들을 마주한 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다섯 명의 몫을 하는 사람이야, 다섯 명의 몫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처럼 말이야.” 유인원인간이 말했다.

나는 두 손을 내밀었다. 구석에 있던 회색 생명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네 발로 뛰지 말 것. 이것이 법이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냐?” 그가 말했다.

그는 기괴하게 뒤틀린 발톱을 내밀어 내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그것은 마치 사슴의 발굽이 발톱으로 변한 것 같은 형상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고 아파서 비명을 질렀을지도 모른다. 그의 얼굴이 다가와 내 손톱을 유심히 살피더니, 오두막 입구에서 새어 나오는 빛 속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나는 떨리는 혐오감을 느끼며 그 얼굴을 마주했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도, 짐승의 얼굴도 아니었다. 그저 회색 털 멩치에 불과했으며, 눈과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어두운 그림자 세 줄기만이 굴곡져 있을 뿐이었다.

“손톱이 아주 작군.” 털이 덩수룩한 수염을 가진 이 기괴한 생물이 말했다. “다행이야.”

그가 내 손을 내팽개치자, 나는 본능적으로 지팡이를 움켜쥐었다.

“뿌리와 풀을 먹어라. 그것이 그분의 뜻이다.” 유인원 인간이 말했다.

“나는 법을 외치는 자다.” 회색 형체가 말했다. “법을 새로 배우려는 자들은 모두 이곳으로 온다. 나는 어둠 속에 앉아 법을 외친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문가에 서 있던 짐승인간 중 하나가 말했다.

“법을 어긴 자에게 내리는 형벌은 가혹하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해요.” 짐승인간들이 서로를 슬쩍 곁눈질하며 말했다.

“아무도, 아무도 없어요.” 유인원인 그가 말했다. “아무도 도망치지 못해요. 보세요! 예전에 제가 아주 작은 일, 잘못된 일을 저지른 적이 있어요. 제가 계속 웅얼거리고 떠들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말을 멈췄죠. 아무도 제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제 손에는 화상 자국이 낙인처럼 남아 있어요. 그는 위대해요. 그는 선한 분이예요!”

“아무도 탈출하지 못해.” 구석에 있던 회색 생명체가 말했다.

“아무도 탈출하지 못해요.” 짐승인간들이 서로를 결눈질하며 말했다.

“모두에게는 저마다 나쁜 욕망이 있다.” 회색빛의 법을 외치는 자가 말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게 될지 우리는 아직 모르나, 곧 알게 될 것이다. 어떤 것들은 움직이는 것을 쫓고, 살금살금 다가가 지켜보다가, 때를 기다려 덮치고 싶어 한다. 죽이고 물어뜯고 싶어 한다. 깊숙이, 아주 진하게 물어뜯어 피를 빨아먹고 싶어 한다. 그것은 나쁜 짓이다. ‘다른 인간을 쫓지 말라. 이것이 법이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더냐? 고기나 생선을 먹지 말라. 이것이 법이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더냐?’”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해.” 문가에 서 있던 얼룩무늬 짐승이 말했다.

“모두에게는 저마다 나쁜 욕망이 있다.” 회색빛의 법을 외치는 자가 말했다. “어떤 것들은 이빨과 손을 휘둘러 만물의 뿌리를 헤집고, 땅속을 킁킁거리며 뒤지고 싶어 한다. 그것은 나쁜 짓이다.”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문가에 서 있던 사내들이 말했다.

“어떤 것들은 나무를 할퀴고, 어떤 것들은 죽은 이들의 무덤을 파헤친다. 어떤 것들은 이마나 발, 혹은 발톱으로 맞서 싸우기도 한다. 어떤 것들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물어뜯고, 어떤 것들은 불결한 것을 탐닉한다.”

“아무도 못 나가요.” 유인원 인간이 종아리를 긁으며 말했다.

“아무도 탈출하지 못해요.” 분홍빛을 띤 작은 나무늘보 형상의 생물이 말했다.

“벌은 매섭고 확실하다. 그러니 법을 배워라. 그 문구들을 외쳐라.”

그는 지체 없이 다시 '법'을 읊조리는 기이한 의식을 시작했다. 그러자 나를 포함한 모든 짐승인간이 다시 노래하며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횡설수설 떠드는 소리와 이곳을 가득 채운 지독한 악취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하지만 나는 곧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그 자리를 지켰다.

“네 발로 기어 다니지 말 것. 이것이 법이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냐?”

우리는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바람에 밖에서 일어나는 소란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다 누군가 머리를 들이밀었다. 이전에 보았던 돼지인간 둘 중 한 명이었던 것 같다. 그는 분홍빛을 띤 작은 나무늘보 모양의 생물 너머로 머리를 쑥 내밀더니, 무언가를 흥분해서 외쳤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 순간 오두막 입구에 있던 이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유인원인간이 밖으로 달려 나갔고, 어둠 속에 앉아 있던 그것도 그를 따라 나갔다. 그 존재가 덩치가 크고 둔하며 은빛 털로 뒤덮여 있다는 것 정도만 눈에 들어왔을 뿐이다. 나는 홀로 남겨졌다. 이윽고 내가 입구로 다가가기도 전에, 사냥개의 날카로운 짖음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나는 움막 밖에 서 있었다. 손에는 의자 받침대를 쥔 채 온몸의 근육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내 앞에는 스무 명쯤 되어 보이는 짐승인간들이 둔탁한 등을 보인 채 서 있었다. 그들의 기형적인 머리는 어깨뼈에 반쯤 가려져 있었다. 짐승인간들은 흥분한 듯 몸짓을 해댔다. 움막 곳곳에서는 반인반수의 얼굴들이 나타나 나를 매섭게 노려보며 무엇인지 묻는 듯한 눈초리를 보냈다.

짐승인간들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굴들이 늘어선 통로 끝, 나무들 사이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곳에서 모로 박사가 걸어오고 있었다. 박사의 어두운 형체와 섬뜩할 정도로 하얀 얼굴이 보였다. 박사는 날뛰는 사냥개를 붙잡고 있었고, 그 바로 뒤에는 몽고메리가 권총을 든 채 뒤따라오고 있었다.

순간 나는 공포에 질려 굳어버렸다. 몸을 돌리자 뒤쪽 통로가 다른 거대한 짐승에게 가로막혀 있었다. 거대한 회색 얼굴에 눈을 반짝이는 짐승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내 오른쪽이자 앞쪽으로 대여섯 야드 떨어진 곳에 바위벽 사이로 좁은 틈이 보였다. 그 틈 사이로 빛줄기 하나가 어둠 속을 비스듬히 파고들고 있었다.

내가 그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가자 모로 박사가 소리쳤다. “멈춰!”
그러고는 곧이어 외쳤다. “그를 붙잡아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 명의 얼굴이 나를 향하더니, 이내 다른 이들도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짐승인간들의 지능은 다행히도 느릿느릿했다. 나는 모로 박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하려 몸을 돌리던 둔한 괴물에게 어깨를 세게 들이받았다. 그리고 그 괴물을 밀쳐 옆에 있던 다른 놈에게 처박았다. 나를 붙잡으려는 놈의 손이 허공을 휘저으며 내 몸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때 분홍빛을 띤 작은 나무늘보 같은 괴물이 나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지팡이에 달린 못으로 그 흉측한 얼굴을 깊게 그어버렸다. 그리고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협곡을 벗어나기 위해 경사진 굴뚝 모양의 가파른 옆길을 필사적으로 기어올랐다. 뒤편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잡아라!" "붙잡아!" 하는 외침도 들렸다. 곧이어 얼굴이 회색빛인 괴물이 내 뒤를 쫓아와 거대한 몸집으로 바위 틈새를 막아섰다. "가라! 계속 가!" 놈들이 울부짖었다. 나는 바위의 좁은 틈을 타고 필사적으로 기어올라, 짐승인간 마을 서쪽의 유황 지대로 빠져나왔다.

그 틈새는 내게 천만다행이었다. 위쪽으로 비스듬히 솟은 좁은 굴뚝 통로가 뒤쫓아오는 추격자들의 발을 묶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얀 빈터를 가로질러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달렸다. 들판 들판 사라난 나무들 사이를 지나자 키 큰 갈대들이 낮게 깔린 지대가 나타났다. 나는 갈대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 어둡고 울창한 덤불 속으로 몸을 던졌다. 발밑에는 검고 축축한 흙이 밟혔다.

내가 갈대밭으로 뛰어들자마자, 가장 앞서 나를 쫓던 자들이 그 틈새를 통해 나타났다. 나는 몇 분 동안이나 덤불을 헤치며 나아갔다. 곧 내 뒤편과 주변은 위협적인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언덕 위 틈새에서 추격자들이 뒤엉켜 소란을 피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서 갈대가 짓눌리는 소리와 나뭇가지가 꺾이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어떤 괴물들은 흥분한 포식자처럼 포효했다. 왼쪽에서는 사냥개가 짖어댔다. 모로 박사와 몽고메리가 같은 방향에서 소리치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급히 오른쪽으로 몸을 틀었다. 그때조차 몽고메리가 나를 향해 살기 위해 도망치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발밑의 지면이 이내 축축하고 진흙투성이로 변했다. 하지만 나는 필사적이었기에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속으로 뛰어들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진흙을 헤치며 나아간 끝에, 키 큰 갈대숲 사이로 난 굽이진 길에 다다랐다. 나를 뒤쫓던 자들의 소음은 왼쪽 멀리서 점차 사라져 갔다. 길을 가던 중, 고양이만 한 크기의 분홍빛을 띤 기이한 동물 세 마리가 내 발소리에 놀라 튀어나가기도 했다. 이 길은 언덕을 타고 올라가 흰 결정체가 뒤덮인 또 다른 빈터를 가로지르더니, 다시 갈대숲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길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급격히 꺾였다. 마치 영국 공원의 해자처럼,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가파른 벽이 솟은 낭떠러지가 나타나 길과 나란히 이어졌다. 나는 여전히 온 힘을 다해 달리고 있었고, 몸이 허공으로 곤두박질치기 전까지는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나는 가시덤불 사이로 팔뚝과 머리를 쥘으며 떨어졌고, 귀가 찢기고 얼굴에 피를 흘린 채 몸을 일으켰다. 내가 떨어진 곳은 바위와 가시가 뒤엉킨 가파른 협곡이었다. 그곳에는 뿌연 안개가 가득가득 흩날리며 내 주위를 맴돌았고, 안개를 머금은 좁은 시냇물이 협곡 중앙을 따라 구불구불 흘러내리고 있었다. 대낮의 밝은 햇살 아래서 이런 열은 안개를 마주하자 나는 경악했으나,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을 여유는 없었다. 나는 오른쪽 하류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그쪽으로 가면 바다가 나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바다에 닿기만 한다면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길을 택할 심산이었다. 추락하는 과정에서 손에 쥐고 있던 못 박힌 지팡이를 떨어뜨렸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협곡이 잠시 좁아졌고, 나는 무심코 시냇물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하지만 물이 거의 끓는 듯 뜨거웠기에 곧바로 다시 뛰어 나왔다.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물 위로는 얇은 유황 찌꺼기가 떠다니는 것도 보였다. 곧 협곡이 꺾이며 흐릿한 푸른 지평선이 나타났다. 가까운 바다는 수만 개의 물결로 햇빛을 반사하며 번뜩이고 있었다. 눈앞에 죽음이 보였다. 하지만 나는 몸이 뜨겁게 달아오른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얼굴에서는 따뜻한 피가 배어 나와 혈관을 따라 기분 좋게 흐르고 있었다. 추격자들을 따돌렸다는 사실에 약간의 환희마저 느껴졌다. 그때의 나로서는 밖으로 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마음이 도저히 들지 않았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았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가시덤불 사이를 뛰어다니는 작은 곤충들의 저림과 모기 떼의 웅웅거리는 소리 외에는 공기가 완전히 정지한 듯 고요했다. 그러다 아주 희미하게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뒤이어 무

언가 재잘거리고 횡설수설하는 소리, 채찍을 휘두르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점점 커졌다가 다시 멀어졌다. 소음은 시냇물을 따라 올라가며 점차 잦아들었다. 한동안 추격전은 끝난 듯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깨달았다. 짐승인간들에게서 도움을 기대하기란 얼마나 가망 없는 일인지를.

제XIII장

협상

나는 다시 몸을 돌려 바다를 향해 내려갔다. 뜨거운 물줄기는 어느덧 넓고 얇은 모래톱으로 변해 있었다. 그곳에는 수초가 무성했는데, 내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게들과 몸이 길고 다리가 많은 생물들이 무더기로 튀어 올랐다. 나는 바닷물이 닿는 가장자리까지 걸어갔다. 그제야 비로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허리에 손을 얹고 뒤를 돌아보았다. 등 뒤로는 질푸른 녹음이 펼쳐져 있었고, 그 사이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협곡이 마치 연기 나는 상처처럼 깊게 파여 있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나는 너무나 흥분한 상태였다. 그리고 (위험을 겪어보지 못한 이들은 의심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죽기에는 너무나 절박했다.

그때 문득 내 머릿속에 마지막 희망이 하나 떠올랐다. 모로 박사와 몽고메리, 그리고 그 짐승인간 무리가 섬 전체를 뒤지며 나를 쫓는 동안, 해안을 따라 돌아 그들의 거처에 도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

각이었다. 사실상 그들의 측면을 공격하겠다는 계산이었다. 만약 그들의 허술한 담장에서 바위를 하나 끌어낼 수만 있다면, 작은 문에 달린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 이를테면 칼이나 권총 같은 것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했다.

나는 서쪽으로 몸을 돌려 물가를 따라 걸었다. 지는 해가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한 열기를 내 눈에 쏟아부었다. 태평양의 잔잔한 조수가 부드러운 물결을 일으키며 밀려들고 있었다. 이윽고 해안선이 남쪽으로 꺾이며 굽어지자, 태양은 내 오른편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때 갑자기 저 멀리 앞쪽 덩불 사이에서 형체들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한 명, 그다음에는 여러 명이었다. 회색 사냥개를 데리고 있는 모로 박사가 보였고, 이어 몽고메리와 다른 두 사람이 나타났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들이 나를 발견하고는 손짓을 해대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이 다가오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서 있었다. 짐승인간 둘이 덩불을 가로질러 내 앞길을 막으려는 듯 내륙 쪽으로 달려왔다. 몽고메리 역시 달려왔지만, 그는 나를 향해 곧장 직진했다. 모로 박사는 개를 데리고 그 뒤를 천천히 따라왔다.

마침내 나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돌아서서 곧장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처음에는 물이 아주 얇았다. 파도가 허리춤까지 차오를 무렵에는 이미 서른 야드쯤 나간 상

태였다. 발치에서 조수 간만의 차로 드러난 생물들이 황급히 달아나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몽고메리가 외쳤다.

나는 허리까지 물에 잠긴 채 몸을 돌려 그들을 응시했다. 몽고메리는 물가 가장자리에 서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격한 움직임 탓에 그의 얼굴은 새빨갳게 달아올랐고, 긴 금발은 머리 주위로 어지럽게 흩날렸다. 축 늘어진 아랫입술 사이로 고르지 못한 치열이 드러났다. 모로 박사가 막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박사의 얼굴은 창백하면서도 단호한 기색이었다. 박사의 손에 이끌린 개 한 마리가 나를 향해 짖어댔다. 두 사람 모두 손에는 굵은 채찍을 들고 있었다. 해변 저 멀리 위쪽에서는 짐승인간들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뭘 하고 있냐고요? 나는 물에 빠져 죽으려는 겁니다.” 내가 말했다.

몽고메리와 모로 박사가 서로를 마주 보았다. "이유가 무엇인가?" 모로 박사가 물었다.

“당신에게 고문당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으니까요.”

“내 말이 맞았지?” 몽고메리가 말했다. 그러자 모로 박사는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중얼거렸다.

“내가 당신을 고문할 거라고 왜 생각합니까?” 모로 박사가 물었다.

“내가 본 것들 말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저기, 저 너머에 있는 것들도요.”

“조용히!” 모로 박사가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난 안 해.” 내가 말했다. “그들은 인간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대체 무엇이 되었던 말인가? 적어도 나는 그들처럼 되지는 않을 거야.”

나는 대화 상대들을 지나쳐 시선을 멀리 던졌다. 해변 위쪽에는 몽고메리의 시종인 음링과, 배에서 내린 하얀 천을 두른 짐승인간 하나가 있었다. 더 멀리 나무 그림자 속에는 나의 작은 유인원 인간이 보였고, 그 뒤로 희미한 형체들이 몇몇 더 있었다.

“저 생물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들에게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점점 더 크게 소리를 높였다. “저들은 인간이었습니다. 당신들과 같은 인간이었던 말입니다. 당신이 어떤 짐승 같은 오염을 퍼뜨려 변질시켜 버린, 당신들이 노예로 삼았고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 인간들 말입니다.”

“듣고 있는 당신들!” 나는 모로 박사를 가리키며 외쳤다. 그리고 그를 지나쳐 짐승인간들을 향해 소리쳤다. “듣고 있는 당신들 말이야! 이 사람들이 여전히 당신들을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며 피한다는 게 보이지 않나? 그런데 왜 당신들이 저들을 두려워하는 거지? 당신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은데!”

“제발 좀, 프렌딕!” 몽고메리가 외쳤다. “그만 좀 해!”

“프렌딕!” 모로 박사가 외쳤다.

두 사람은 마치 내 목소리를 집어삼키려는 듯 동시에 소리를 질러댔다. 그들 뒤로는 짐승인간들이 뚫어지게 쳐다보며 모습을 드러냈다. 짐승인간들은 기형적인 손을 아래로 늘어뜨린 채 어깨를 움츠리고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내 착각이었을지도 모르나, 그들은 내 말을 이해하려 애쓰는 듯 보였다. 어쩌면 인간이었던 과거의 무언가를 기억해 내려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 무엇을 외쳤는지는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모로 박사와 몽고메리를 죽일 수 있다고,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소리쳤을 뿐이다. 그것이 내가 짐승인간들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내가 도착한 날 저녁에 마주쳤던, 남루한 옷을 입고 눈이 초록빛이던 사내가 나무 사이에서 나타났다. 내 목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 다른 이들도 그를 따라 나왔다. 결국 나는 숨이 차올라 말을 멈추고 말았다.

“잠시 내 말을 들어보게.” 모로 박사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 나서 자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나.”

“그래서요?” 내가 물었다.

그는 기침을 하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소리쳤다. “라틴어라 네, 프렌딕! 형편없는 라틴어지, 학교에서나 배우는 수준이야. 하지만 어떻게든 이해해 보게. *Hi non sunt homines; sunt animalia qui nos habemus*—생체 실험을 당한, 우리가 가진 짐승들이라는 뜻이

라네. 인간으로 만드는 과정이지. 자세히 설명하겠네. 일단 상륙하게 나.”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꽤 근사한 이야기군요.” 내가 말했다. “그들이 말을 하고 집을 짓는다니. 원래 인간이었다는 건가요. 어쩌면 내가 그 섬에 상륙하게 될지도 모르겠군요.”

“당신이 서 있는 곳 바로 너머의 바다는 수심이 깊고, 상어떼로 가득합니다.”

“그게 내 방식이야.” 내가 말했다. “짧고 강렬하게. 곧바로 말이지.”

“잠깐 기다려요.” 그가 주머니에서 햇빛에 번쩍이는 물건 하나를 꺼내더니 발치에 떨어뜨렸다. “장전된 리볼버입니다.” 그가 말했다. “여기 몽고메리도 똑같이 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해변을 따라 올라갈 겁니다. 당신이 거리가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말이죠. 그러고 나서 와서 리볼버를 가져가세요.”

“난 안 가! 너희 둘에게는 세 번째 권총이 있잖아.”

“프렌딕, 생각을 좀 해보게. 우선, 자네가 이 섬에 발을 들여놓게 해달라고 내가 부탁한 적은 없네. 만약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한다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데려와야겠지. 그리고 어젯밤 자네에게 약을 먹인 건, 우리가 자네를 해치려 했다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일이었네. 이제 첫 번째 공포가 지나가고 자네가 조금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니 물어보겠네. 자네가 말하는 몽고메리가 정말 그런 인물인가? 우리는 자네를 보호하려고 쫓아다닌 것이네. 이

섬에는 적대적인 현상들이 가득하니까 말이야. 게다가, 자네가 방금 스스로 익사하겠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왜 자네를 쫓 필요가 있겠나?”

“내가 오두막에 있을 때, 왜 당신의 사람들—그 짐승인간들을 나에게 달려들게 했습니까?”

“당신을 반드시 찾아내어 위험에서 구해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후에는 당신을 위해서 일부러 흔적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에 잠겼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가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제가 봤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 우리 안에서 말입니다—”

“그건 퓨마였어.”

“이봐, 프렌디.” 몽고메리가 말했다. “자네 정말 바보 같군! 어서 물에서 나와서 이 리볼버들을 받고 이야기 좀 하자고. 어차피 자네가 물에서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자네한테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때도 그랬고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모로 박사를 믿지 못했고 그가 두려웠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몽고메리만큼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해변을 따라 올라가시오.” 잠시 생각하던 내가 말했다. 그러고는 덧붙였다.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말ियो.”

“그건 안 돼.” 몽고메리가 어깨너머로 고개를 까닥이며 설명하듯 말했다. “품위가 떨어지거든.”

“그럼 나무 있는 데까지 올라가시오.” 내가 말했다. “마음대로 하고.”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의식이야.” 몽고메리가 말했다.

두 사람은 몸을 돌려 햇빛 아래 서 있는 여섯 일곱 마리의 기괴한 생물들을 마주했다. 그들은 분명 실체가 있어 그림자를 드리우고 움직이고 있었으나, 믿기지 않을 만큼 비현실적인 모습이었다. 몽고메리가 그들을 향해 채찍을 휘두르자, 짐승들은 즉시 몸을 돌려 나무 사이로 허둥지둥 도망쳤다. 몽고메리와 모로 박사가 충분히 멀어졌다고 판단될 때쯤, 나는 해안으로 걸어 들어가 리볼버를 집어 들고 살펴보았다. 혹시 모를 교묘한 함정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나는 둥글게 뭉쳐진 용암 덩어리를 향해 총을 한 발 발사했다. 돌덩이가 가루가 되고 해변에 납 파편이 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나는 안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잠시 망설이며 머뭇거렸다.

“위험을 감수하겠어.” 마침내 내가 말했다. 나는 양손에 리볼버를 한 자루씩 쥐고 그들이 있는 해변을 향해 걸어갔다.

“이제야 좀 낫군.” 모로 박사가 꾸밈없는 말투로 말했다. “자네의 그 망할 놈의 상상력 때문에 내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을 통째로 날려버렸어.” 모로 박사는 나를 모욕할 만큼 경멸 어린 눈빛을 던지더니, 몽고메리와 함께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내 앞에서 앞서 걸어갔다.

짐승인간 무리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으로 나무 사이로 물러나 서 있었다. 나는 최대한 태연한 척 그들 곁을 지나쳤다. 그중 한 마리가 나를 따라오려 했으나, 몽고메리가 채찍을 휘두르자 다시 뒤로 물러났다. 나머지 무리는 침묵을 지킨 채 나를 지켜보았다. 그들도 한때는 짐승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무언가를 생각하려 애쓰는 짐승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제XIV장

모로 박사의 설명.

“자, 프렌딕, 이제 설명해 주겠네.” 식사와 술을 마시자마자 모로 박사가 말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자네는 내가 맞아본 손님 중 가장 독단적인 사람이군. 경고해 두는데, 자네를 위해 호의를 베푸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세. 다음에 또 자살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설령 내게 개인적인 불편이 생기더라도 절대 들어주지 않겠네.”

그는 내 갑판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얗고 민첩해 보이는 손가락 사이에는 시가 한 대가 반쯤 타들어 가고 있었다. 흔들리는 등불의 빛이 그의 백발 위로 떨어졌다. 그는 작은 창 너머로 쏟아지는 별빛을 멍하니 응시했다. 나는 그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앉았다. 우리 사이에는 탁자가 놓여 있었고, 손을 뻗으면 바로 닿을 곳에 리볼버가 있었다. 몽고메리는 그 자리에 없었다. 나는 그 좁은 방에 그 두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다.

“결국 당신이 말한 그 생체 실험을 당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실상은 그저 퓨마일 뿐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건가요?” 모로 박사가 물었다. 그는 내가 그 비인간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려고, 안쪽 방에 있는 그 끔찍한 광경을 보게 했다.

“퓨마예요.” 내가 말했다. “살아는 있지만, 온몸이 난도질당하고 훼손되어 있어요. 제발 다시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그런 모습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 모든 추악한—”

“그건 신경 쓰지 말게.” 모로 박사가 말했다. “적어도 그런 어린애 같은 공포심은 나를 괴롭히지 말아 주게나. 몽고메리도 예전엔 딱 자네 같았으니 말이야. 저게 퓨마라는 건 자네도 인정하지 않았나. 이제 조용히 하게. 내가 자네에게 생리학 강의를 들려줄 테니.”

그는 처음에는 지독히도 지루해하는 사람처럼 말하기 시작하더니, 이내 조금씩 열을 올리며 자신의 연구 내용을 내게 설명했다. 그의 설명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설득력이 있었다. 간혹 목소리에 냉소적인 기색이 섞여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 문득, 서로 처한 상황을 떠올리자 나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가 보았던 생물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단 한 번도 인간이었던 적이 없었다. 그것들은 짐승이었다. 인간의 형상을 한 짐승, 즉 생체 실험이 낳은 승리물이었다.

“숙련된 생체 실험가가 살아있는 생명체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간과하고 있군요.” 모로 박사가 말했다. “나조차도

내가 여기서 해온 일들이 왜 이전에는 시도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니까요. 물론 절단이나 허를 자르는 것, 혹은 일부를 도려내는 식의 소규모 실험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수술로 사시를 유발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당신도 알고 있겠지요? 절제 수술을 하면 그에 따른 온갖 이차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색소 침착이 일어나거나, 감정이 변하기도 하고, 지방 조직의 분비 방식이 바뀌기도 하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분명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만든 이 끔찍한 생물들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는 내게 손짓하며 말했다. “이제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방금 본 것들은 변형의 아주 사소한 사례들에 불과하지요. 외과 수술로는 그보다 더 나은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파괴하고 변화시키는 것만큼이나, 무언가를 다시 세우는 일도 가능합니다. 아마 코가 뭉개진 환자들에게 행하는 흔한 수술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마에서 피부 한 조각을 잘라내 코 위로 덮어 씌우면, 그 자리에 붙어 새로운 코로 아물게 되지요. 이것은 동물의 일부를 새로운 위치에 이식하는 일종의 접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에게서 갓 얻어낸 재료를 이식하는 것도 가능하지요. 예를 들어 치아 같은 경우 말입니다. 피부나 뼈를 이식하는 것은 상처가 잘 아물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외과 의사는 상처 한가운데에 다른 동물에게서 잘라낸 피부 조각이나, 방금 죽인 희생물에게서 떼어낸 뼈 파편을 채워 넣습니다. 헌터의 담벼슬—아마 들어봤을지도 모르겠군요—은 황소의 목 부분에서 무성하게 자라나기도 했고, 알제리 주아브 부대의 코뿔소

쥐도 생각해 볼 만한 사례지요. 평범한 쥐의 꼬리 부분을 잘라 코끝에 옮겨 붙인 뒤 그 상태로 아물게 하여 만들어낸 괴물들 말입니다.”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니!” 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 말은—”

“그렇습니다. 당신이 본 이 생명체들은 새로운 형상으로 깎이고 다듬어진 동물들입니다. 나는 생명체의 가소성을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수년간 연구를 거듭하며 지식을 쌓아왔지요. 당신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든 것이 보입니다만, 사실 제가 하는 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 실용 해부학의 영역에 모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지만, 감히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동물의 외형만이 아닙니다. 생리적 기능이나 생명체가 가진 화학적 리듬 또한 영구적으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생물이나 사체를 주입하는 백신 접종이나 기타 접종법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당신에게도 익숙한 방식일 겁니다. 수혈 또한 비슷한 원리이지요. 사실 나는 수혈을 통해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례들입니다.

오히려 중세의 시술자들이 행했던 작업들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생소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난쟁이나 구걸하는 장애인, 혹은 구경거리로 삼을 괴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곡예사나 기예가를 길들이는 초기 단계의 기술에는 여전히 그들의 기술적 흔적이 남아 있지요. 빅토르 위고 가 『웃는 남자』에서 그들에 대해 기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뜻이 무엇인지 명확해지겠지요. 동물의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혹은 한 동물에서 다른 동물로 조직을 이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생명체의 화학 반응과 성장 방식을 바꾸고, 사지의 관절 구조를 수정하며, 나아가 생명체의 가장 내밀한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 말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지식의 영역은 내가 연구를 시작하기 전까지, 현대의 연구자들이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탐구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술의 막바지 단계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간혹 발견되기는 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를 법한 비슷한 증거들은 대부분 우연히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폭군이나 범죄자, 혹은 말이나 개를 사육하는 이들처럼, 그저 당장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미숙하고 서툰 이들이 우연히 맞닥뜨린 결과물이었을 뿐입니다. 나는 방부 소독법을 갖추고, 성장의 법칙에 관한 진정한 과학적 지식을 무기로 이 문제를 다룬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치 이 일이 이전부터 비밀리에 행해져 왔던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삼쌍둥이 같은 존재들이나, 종교재판소의 지하 감옥에서 벌어진 일들 말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의 주된 목적은 예술적인 고문이었겠지만, 적어도 종교 재판관 중 몇몇은 과학적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말했다. “이것들은, 이 동물들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는 사실이 그러하다고 말하며, 생체 실험이 단순히 신체적인 변형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덧붙여 설명했다. 돼지조차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적 구조는 신체적 구조보다 훨씬 더 가변적이다. 발전하는 최면학을 살펴보면, 새로운 암시를 통해 오래된 본능을 대체할 가능성이 보인다. 즉, 타고난 고정 관념에 새로운 관념을 접목하거나 아예 갈아치울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우리가 도덕 교육이라 부르는 것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본능을 인위적으로 수정하거나 왜곡한 결과라고 말했다. 싸우려는 성질을 용기 있는 자기희생으로 길러내고, 억눌린 성욕을 종교적 감정으로 바꾸어 놓는 식이다. 인간과 원숭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후두에 있다고 그는 말을 이었다. 인간은 사고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섬세하고 다양한 음성 기호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원숭이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이 대목에서 그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으나, 그는 다소 무례하게도 내 반론을 무시해 버렸다. 그는 사실이 그러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자신의 연구에 대한 설명을 계속했다.

나는 그에게 왜 하필 인간의 형상을 본보기로 삼았느냐고 물었다. 당시에든 그렇게 느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그 선택에는 기이할 정도로 사악한 의도가 담겨 있는 듯하다.

그는 그런 형태를 선택한 것이 우연이었다고 고백했다. “양을 라마로 만들거나, 라마를 양으로 만드는 실험을 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인간의 형태라는 것이 다른 어떤 동물의 형상보다 예술적 기질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인간을 만드는 일에만 매달린 것은 아닙니다. 한두 번은—” 그는 잠시 말을 멈췄

다. 아마도 1분 정도는 침묵이 이어졌다. “세월이여! 그 세월이 어찌나 빠르게 흘러갔는지! 당신의 목숨을 구하느라 하루를 허비하더니, 이제는 내 처지를 설명하느라 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군요!”

“하지만,” 내가 말했다.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가해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게 생체 실험이 용납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그것이 어떤 실용적인 용도로 쓰일 때뿐입니다.”

“정확합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당신과 구성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차원에 서 있는 셈이지요. 당신은 유물론자입니다.”

“나는 결코 유물론자가 아닙니다.” 내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제 생각에는—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바로 이 고통의 문제니까요.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고통을 마주할 때마다 구역질이 나는 한, 스스로 느끼는 고통에 휘둘리는 한, 그리고 죄에 관한 당신의 모든 주장이 고통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한—단언컨대 당신은 그저 동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물이 느끼는 것을 조금 덜 어렵게 생각할 줄 아는 동물 말입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이—”

나는 그런 궤변에 짜증스럽게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오, 하지만 이건 정말 사소한 일일 뿐입니다! 과학이 가르쳐 주는 바를 진정으로 깨우친 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사소한 문제인지 알 수밖

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 작은 행성, 가장 가까운 항성에 도달하기도 전에 보이지도 않을 우주의 먼지 같은 이곳을 제외하면, 고통이라 불리는 것이 다른 그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능적으로 깨달아가는 그 법칙들을 보십시오. 아니, 이 지구에서조차, 살아있는 생명체들 사이에서 고통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 그리 대단 하단 말입니까?”

그는 말을 하며 주머니에서 작은 펜나이프를 꺼냈다. 작은 칼날을 펼친 그는 내가 자신의 허벅지를 볼 수 있도록 의자를 움직였다. 그러고는 신중하게 자리를 고르더니, 칼날을 다리에 박아 넣었다가 다시 뽑아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가 말했다. “당신도 전에도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늘로 찌르는 정도로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죠.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근육에는 통증을 느낄 능력이 필요하지 않기에 그곳에는 통증 수용체가 배치되지 않았습니 다. 피부 역시 통증이 거의 필요하지 않으며, 허벅지 곳곳에 드문드문 자리 잡은 지점들만이 겨우 통증을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통증이란 그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자극을 주어 스스로를 지키게 만드는, 우리 몸에 내재된 의학적 조언자일 뿐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살점이 통증을 느끼는 것은 아니며, 모든 신경이 통증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감각 신경조차도 말이죠. 시신경이 느끼는 감각에는 실질적인 통증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시신경을 다치면 그저 빛이 번쩍이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청신경에 병이 생기면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물이나 하등 동물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불가사리나 가재

같은 동물들은 통증을 아예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 또한 지능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안녕을 더 지혜롭게 살필 것이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채찍질 같은 통증의 자극을 덜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조만간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는 쓸모없는 것이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통증은 불필요한 것이 되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프렌딕.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야만 하듯이 말입니다. 내 생각엔 당신보다 내가 이 세상 창조주의 섭리를 더 많이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평생 나만의 방식으로 그분의 법을 찾아 헤매왔지만, 당신은 그저 나비를 수집하며 지내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쾌락과 고통은 천국이나 지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쾌락과 고통이라니, 흥! 신학자들이 말하는 황홀경이라는 게 어둠 속에서 마호메트의 천녀를 꿈꾸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프렌딕, 남녀가 쾌락과 고통에 부여하는 그 과도한 가치야말로 그들에게 새겨진 짐승의 낙인이자, 그들이 비롯된 근원인 짐승의 낙인입니다! 고통과 쾌락은 우리가 먼지 속을 꿈틀거리며 살아가는 동안에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나는 연구가 이끄는 대로 그저 계속 나아갔을 뿐일세. 내가 아는 진정한 연구란 오직 그런 방식뿐이었으니까.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얻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면, 곧바로 새로운 질문이 뒤따라왔지. 이것이 가능할까, 혹은 저것이 가능할까 하는 질문 말일세. 연구자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뜨거운 지적 열망이 솟구치는지 자네는 상상조차 못 할 걸세! 이러한 지적 욕구가 주는, 그

기묘하고도 무채색의 즐거움은 또 어떻고! 눈앞에 놓인 대상은 더 이상 동물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동료 생명체도 아닐세. 그것은 오로지 하나의 문제일 뿐이지! 공감에서 오는 고통이라... 그것에 관해 내가 아는 것이라곤, 아주 오래전 한때 앓았던 병처럼 기억할 뿐일세. 나는 알고 싶었네. 아니, 그것이야말로 내가 유일하게 바라던 것이었지. 살아있는 형체가 어디까지 변형될 수 있는지, 그 가소성의 극한을 알아내고 싶었네.”

“하지만,” 내가 말했다. “이건 정말이지 끔찍한 짓입니다—”

“지금껏 나는 이 일의 윤리적 문제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았네.” 그가 말을 이었다. “자연을 연구하다 보면 인간은 결국 자연만큼이나 냉혹해지기 마련이지. 나는 오로지 내가 추구하는 문제에만 몰두했을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저기 오두막 안으로 흘러 들어왔지. 나와 몽고메리, 그리고 여섯 명의 카나카 원주민이 이곳에 온 지도 벌써 11년이 다 되어 가네. 섬의 초록빛 정적과 우리를 둘러싼 텅 빈 바다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군. 마치 이 장소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만 같았네.”

“물자를 물으로 내리고 집도 지었네. 카나카인들은 협곡 근처에 오두막을 몇 채 세웠지. 나는 가져온 것들을 가지고 이곳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불쾌한 일들이 좀 있었지. 우선 양 한 마리로 시작했는데, 메스를 잘못 놀리는 바람에 하루 반 만에 죽이고 말았네. 그다음 양 한 마리를 가져와 고통과 공포의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뒤, 상처가 아물도록 묶어 둔 채 내버려 두었지. 작업을 마쳤을 때는 내 눈에 꽤 사

람처럼 보였네. 하지만 막상 그 짐승에게 다가가니 실망감이 밀려왔어. 놈은 나를 알아보고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겁에 질려 있었는데, 지능은 고작 양 수준에 불과했네. 쳐다보면 볼수록 놈은 점점 더 둔해 보였고, 결국 나는 그 괴물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려고 죽여 버렸네. 용기도 없고, 공포에 쫓기며, 고통에 휘둘리기만 하는 이 동물들 말일세. 고난에 맞설 투쟁심이라곤 한 점도 없는 이런 존재들은 인간을 만드는 데 아무런 쓸모가 없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고릴라 한 마리를 데려왔네. 수많은 난관을 하나씩 극복하며 지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끝에, 마침내 나의 첫 번째 인간을 만들어냈지. 일주일 내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를 빚어냈네. 그에게 가장 공을 들여야 했던 부분은 주로 뇌였어. 많은 것을 덧붙여야 했고, 많은 것을 바꿔야 했으니까. 작업을 마치고 그가 봉대를 감은 채 결박되어 내 앞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을 때, 나는 그가 흑인 유형의 꽤 괜찮은 표본이라고 생각했네. 그의 생존이 확실해진 뒤에야 나는 그를 두고 다시 이 방으로 돌아왔고, 거기서 자네와 비슷한 모습의 몽고메리를 만났지. 몽고메리는 그 생명체가 인간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를 들었더군. 자네를 그토록 괴롭혔던 것과 같은 비명 말일세. 처음부터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않았네. 카나카인들도 무언가 눈치챈 모양이었지. 그들은 나를 보고 겁에 질려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으니까. 어떻게든 몽고메리를 내 편으로 만들긴 했지만, 카나카인들이 도망치는 것을 막는 일은 나와 그에게 가장 힘겨운 과제였네. 결국 그들은 도망쳤고, 그 바람에 요트도 잃고 말았지. 나는 그 짐승을 교육하는 데 여러 날을 보냈네. 총 서너 달 정도 그를 데리고

있었지. 영어의 기초를 가르쳤고, 숫자의 개념도 알려주었으며, 심지어 알파벳을 읽을 수 있게까지 만들었네. 비록 습득은 느렸지만, 내가 본 바보들보다는 나았네. 그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기에, 이전에 자신이 무엇이었는데 대한 기억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네.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통증과 경직이 사라져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해졌을 때, 나는 그를 저쪽으로 데려가 카나카인들에게 흥미로운 밀항자라고 소개했네.”

“처음에는 카나카인들이 웬지 모르게 그를 몹시 두려워했네. 나는 그를 꽤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던 터라 그 반응이 다소 불쾌하기까지 했지. 하지만 그의 행동이 워낙 온순하고 비굴할 정도로 공손했기에, 시간이 흐르자 카나카인들도 그를 받아들였고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네. 그는 배우는 속도가 빨랐고 모방과 적응력도 뛰어났지. 그는 자신이 머물 오두막을 지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카나카인들이 사는 허름한 움막보다 훨씬 나아 보였네. 카나카 소년들 중에는 선교사 기질이 있는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그 짐승에게 글 읽는 법을, 적어도 글자를 가려내는 법을 가르쳤고 도덕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도 일러 주었지. 하지만 그 짐승의 습성이 모두 바람직하지만은 않았던 모양일세.”

“이 일이 있은 후 나는 며칠 동안 일을 쉬었고, 이 모든 사건을 기록하여 영국 생리학계를 일깨워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네. 그러던 중 나무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을 괴롭히던 카나카인 두 명을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껄여 대는 그 생명체를 발견했지. 나는 그를 위협하며 그런 짓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꾸짖었고, 그에게 수치심을 일깨워

주었네. 그리고 이 작업을 영국으로 가져가기 전에 반드시 더 나은 결과를 내겠다고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왔지.

그 뒤로 나는 더 나은 시도를 해 왔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것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만다네. 완강한 짐승의 삶은 날이 갈수록 다시금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더 나은 것을 만들어 낼 작정일세. 나는 반드시 그것을 정복하고야 말 것이네. 이 퓨마를 말이야—”

“하지만 그게 전부일세. 카나카인 소년들은 이제 모두 죽었네. 한 명은 보트에서 바다로 떨어졌고, 다른 한 명은 발뒤꿈치를 다친 뒤 어찌 다 식물 즙으로 상처를 곱게 하는 바람에 죽고 말았지. 세 명은 요트를 타고 떠났는데, 아마 익사했으리라 짐작하고 또 그러기를 바라네. 그리고 남은 한 명은 살해당했지. 어쨌든 나는 그들을 새 일꾼으로 대체했네. 몽고메리도 처음에는 지금 자네가 그러려는 것과 똑같이 굴었지만, 그 뒤에는—”

“다른 녀석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날카롭게 물었다. “죽임을 당했던, 그 다른 카나카인은요?”

“사실은 말일세, 인간의 형상을 한 존재들을 여럿 만들어낸 뒤에, 나는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었네—” 그는 말을 망설였다.

“그래서요?” 내가 물었다.

“그건 죽임을 당했네.”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말했다. “설마 그 말씀은——”

“그놈이 카나카인을 죽였네. 그래, 잡은 다른 것들도 몇 마리 죽였지. 우리는 이틀 동안 그놈을 뒤쫓았네. 그놈이 풀려난 건 순전히 사고였어. 결코 놓아줄 생각은 없었지. 실험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었네. 그 건 순전히 실험에 불과했어. 팔다리도 없는 데다 끔찍한 얼굴을 하고서 뱀처럼 몸을 뒤틀며 땅을 기어 다니는 놈이었지. 힘은 엄청나게 센 데다 미칠 듯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네. 그놈은 며칠 동안 숲속에 숨어 지냈고, 우리가 사냥에 나서자 섬 북쪽으로 꿈틀거리며 기어 들어갔지. 그래서 우리는 그놈을 포위하려고 일행을 나누었네. 몽고메리는 한사코 나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어. 그에게는 소충이 있었네. 나중에 그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총신 하나가 S자 모양으로 휘어진 채 거의 물어뜯겨 끊어질 지경이었지. 몽고메리가 그놈을 쏘아 죽였네. 그 일이 있는 뒤로 나는 사소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줄곧 인간이라는 이상을 고수해 왔네.”

그는 침묵에 잠겼다. 나는 말없이 앉아 그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영국에서의 9년을 포함해, 도합 20년 동안 나는 이 일을 계속해 왔네. 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여전히 나를 좌절시키고, 불만스럽게 만들며, 끊임없이 더 노력하라고 몰아붙이는 무언가가 남아 있어. 때로는 내 수준을 뛰어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아래로 추락하기도 하지. 하지만 언제나 내가 꿈꾸는 모습에는 미치지 못한다네. 이제 인간의 형태를 만드는 건 거의 식은 죽 먹기야. 유연하고 우아한 몸을 만들 수도 있고, 두껍고 강인한 몸을 만들 수도 있지. 하지만 손과 발톱을 만

드는 데는 종종 문제가 생기곤 해. 너무 마음대로 빚었다가는 고통스러운 결과가 초래되기에 감히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부분이지. 진짜 문제는 뇌를 미세하게 접목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네. 지능이 이상할 정도로 낮게 형성될 때가 많고,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이나 예상치 못한 결손이 생기기도 하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건, 내가 직접 만질 수도 없는 무언가라네. 감정이 머무는 곳 어딘가에,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야. 인류를 해칠 법한 갈망과 본능, 욕망들이 도사리고 있어. 마치 숨겨진 기괴한 저수지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터져 나와 생명체 전체를 분노나 증오, 혹은 공포로 집어삼켜 버리지. 자네는 이 생명체들을 관찰하자마자 낯설고 기괴하다고 느꼈겠지만, 나는 이들을 막 만들어낸 직후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네. 하지만 관찰을 계속하다 보면 그 확신이 사라지곤 하지. 처음에는 동물적인 특성이 하나씩, 그다음에는 또 다른 특성이 수면 위로 기어 올라와 나를 뻘뻘하게 응시하거든. 하지만 나는 반드시 정복하고 말 것이네! 살아있는 생명체를 타오르는 고통의 욕조에 담글 때마다 나는 다짐한다네. ‘이번에는 짐승의 본성을 완전히 태워 없애겠다, 이번에는 반드시 내 손으로 이성적인 생명체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이야. 결국 10년이라는 시간이 무슨 대수겠나? 인간이라는 존재도 십만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인데.”

그는 어두운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요새에 다가서고 있네. 나의 이 퓨마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을 이었다. “결국 그들은 되돌아간다네. 내 손길이 닿지 않는 순간, 짐승의 본성이 다시 기어 나오기 시작하고, 다시금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지.”

또 한 번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럼 당신이 만든 것들을 저 굴속으로 데려가는 겁니까?” 내가 물었다.

“그들은 떠납니다. 짐승의 본성이 꿈틀거리는 게 느껴지면 내가 밖으로 내쫓고, 그러면 곧장 저기로 가서 떠돌아다니죠. 그들은 모두 이 집과 나를 두려워합니다. 저곳에는 인간을 흉내 낸 기괴한 모습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몽고메리는 그들의 일에 간섭하느라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짐승인간 한둘을 길들여 우리를 돕게 만들기도 했죠. 본인은 부끄러워하지만, 내 생각에 그는 그 짐승들을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고 있으면 실패했다는 기분만 들어 역겨울 뿐이죠. 나는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가엾은 짐승들 같으니! 그들은 카나카 선교사가 정해진 규칙을 따르며, 이성적인 삶을 흉내 내며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뱀’이라 불리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며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죠. 스스로 굴을 만들고, 열매를 따고, 풀을 뜯고, 심지어 혼인까지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짐승의 영혼뿐이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멸망할 운명인 짐승, 분노와 생존에 대한 욕구, 그리고 쾌락을 탐하는 짐승의 영혼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이합니다. 살아있는 다른 모든 것들처럼 복잡하거든요. 그들에게는 위를 향해 나아가려는 어떤 의지가 보입니다. 그것은 허영심이기도 하고, 낭비되는 성적 감정이나 헛된 호기심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은 그저 나를 조롱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퓨마에게는 약간의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이 퓨마의 머리와 뇌를 연구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는 각자 자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자, 이제 어떻게 생각하나? 아직도 내가 두려운가?”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 눈에 비친 그는 창백한 얼굴과 백발을 가진, 눈빛만은 차분한 노인이었다. 그 평온함과, 흔들림 없는 침착함과 당당한 체구에서 배어 나오는 미묘한 아름다움을 제외한다면, 그는 평범하고 인자한 노신사들 사이에 섞여 있어도 전혀 위화감이 없을 모습이었다. 순간, 나는 몸서리를 쳤다. 나는 그의 두 번째 질문에 답하듯, 양손에 권총을 한 자루씩 들어 그에게 건넸다.

“자네가 갖고 있게.” 그가 말하며 하품을 참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나를 뻘히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파란만장한 이들을 보냈군.” 그가 말했다. “이제 잠을 좀 자는 게 좋겠어. 모든 일이 일단

락되어 다행이군. 잘 자게.” 그는 잠시 나를 찬찬히 살피더니 안쪽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나는 즉시 바깥쪽 문에 열쇠를 돌려 잠갔다. 그러고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한동안은 정체된 기분에 사로잡힌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어서 그가 나를 떠난 그 순간 너머의 일은 도무지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검은 창문은 마치 눈동자처럼 나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마침내 나는 간신히 힘을 내어 불을 끄고 해먹 속으로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제XV장

짐승인간에 관하여.

나는 일찍 깨어났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모로 박사가 했던 설명이 머릿속에 선명하고도 확고하게 떠올랐다. 나는 해먹에서 나와 문으로 향했다. 열쇠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어 창문의 창살을 건드려 보았으나,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인간을 닮은 저 생명체들이 사실은 그저 짐승 같은 괴물일 뿐이며, 인간을 기괴하게 흉내 낸 가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막연한 불확실성이, 차라리 명확한 공포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다가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음령의 끈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권총 한 자루를 주머니에 넣고 한 손으로는 그것을 움켜쥔 채 문을 열어 그를 맞이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나으리.” 그가 말했다. 그는 평소처럼 약초로 만든 아침 식사 외에, 제대로 익히지도 않은 토끼 고기를 함께 들고

들어왔다. 몽고메리가 그의 뒤를 따라 들어왔다. 이곳저곳을 살피던 그의 눈에 내 팔의 위치가 들어오자, 그는 비스듬히 미소를 지었다.

그날 퓨마는 상처를 치료하며 쉬고 있었다. 하지만 유독 혼자 지내기를 즐기는 모로 박사는 우리와 합류하지 않았다. 나는 짐승인간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명확히 파악하고자 몽고메리와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내가 간곡히 묻고 싶었던 점은, 이 비인간적인 괴물들이 어떻게 모로 박사와 몽고메리를 공격하지 않고, 서로를 물어뜯지도 않으며 통제되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몽고메리는 모로 박사와 자신이 비교적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이 괴물들의 지적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짐승인간들은 지능이 높아졌고 동물적 본능이 다시 살아나려는 경향을 보였지만, 모로 박사가 그들의 정신에 심어놓은 특정한 관념들이 그들의 상상력을 완전히 가두고 있었다. 그들은 사실상 최면에 걸린 상태였다. 어떤 일들은 불가능하며, 어떤 행동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금기 사항들은 그들의 정신 구조 속에 깊숙이 짜여 들어 있어서, 도저히 거부하거나 논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있었다.

하지만 모로 박사가 정해진 질서와 오래된 본능이 충돌하는 몇몇 문제에 있어서는 상황이 그리 안정적이지 못했다. 이른바 '법'이라 불리는 일련의 규율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요동쳤다. 나는 이미 그들이 법을 암송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규율들은 짐승으로서의 뿌리 깊고 반항적인 욕구와 격렬하게 맞서 싸우고 있었다. 내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짐승인간들은 이 법을 끊임없이 되뇌면서도 동시에 끊임없이 어겼다. 몽고메리와 모로 박사는 그들이 피의 맛을 알게 될까 봐 유독 노심초사했다. 그들은 짐승인간들이 피의 풍미를 접했을 때 필연적으로 뒤따를 충동을 두려워했다. 몽고메리의 말에 따르면, 특히 고양이와 짐승인간들 사이에서 법의 힘은 해 질 녘이 되면 기묘할 정도로 약해진다고 했다. 그때가 되면 짐승의 본성이 가장 강해지며, 황혼이 찾아오면 그들은 낮에는 꿈조차 꾸지 못할 대담한 일들을 저지르려는 모험심에 휩싸인다는 것이다. 내가 도착한 날 밤, 표범인간에 쫓겼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내가 머물기 시작한 초기에는 그들이 법을 어기는 일이 드물었다. 그들은 주로 어둠이 내린 뒤에 몰래 법을 어겼을 뿐, 낮 동안에는 법이 정한 수많은 금기 사항을 전반적으로 존중하는 분위기였다.

이제 이 섬과 짐승인간에 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사실을 말해두려 한다. 섬은 해안선이 불규칙하고 넓은 바다 위에 낮게 깔려 있었으며, 전체 면적은 대략 7~8제곱마일 정도였다.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이 섬은 현재 세 면이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다. 북쪽의 분화구 몇 개와 온천만이, 아주 오래전 섬을 탄생시켰던 거대한 힘의 흔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었다. 이따금 지진의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기도 했고, 때로는 돌출된 연기 기둥이 수증기 돌풍에 휘말려 요동치기도 했으나, 그게 전부였다.

몽고메리의 말에 따르면, 섬에 사는 인구는 모로 박사의 기술로 만들어진 이 기이한 피조물들로 60여 명에 달했다. 덩불 속에 숨어 사는, 인간의 형체조차 갖추지 못한 작은 괴물들은 제외한 수치였다. 모로 박

사가 만든 피조물은 총 120명에 육박했으나, 그중 많은 이가 죽었고, 내게 말해주었던 꿈틀거리는 '발 없는 존재'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들도 있었다. 내가 그들이 새끼를 낳는지 묻자, 몽고메리는 실제로 새끼를 낳기는 하지만 대개 죽고 만다고 답했다. 살아남은 새끼가 있다면 모로 박사가 데려가 인간의 형상을 새겨 넣었다. 그렇게 얻은 인간의 특성이 유전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암컷은 수컷보다 수가 적었는데, 법이 일부일처제를 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컷들은 은밀한 괴롭힘에 시달리곤 했다.

이 묘사는 모든 면에서 노블의 섬과 일치한다.—C. E. P.

이 짐승인간들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은 내게 불가능한 일이다. 내 눈은 세밀한 것을 포착하도록 길들여지지 않았고, 불행히도 나는 그림을 그릴 줄도 모른다. 그들의 전체적인 모습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아마도 몸 길이에 비해 다리가 너무 짧다는 불균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우아함'이라는 기준이 얼마나 상대적인지, 내 눈은 점차 그들의 형태에 익숙해졌다. 결국에는 내 긴 허벅지조차 오히려 꼴불견이라는 그들의 생각에 나조차 동조할 지경이었다.

또 다른 특징은 머리가 앞으로 쏠려 있는 자세와, 투박하고 비인간적인 척추의 곡선이었다. 인간의 체형을 우아하게 만드는 등뼈의 부드러운 곡선은 유인원 인간에게서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대부분은 어깨를 어색하게 움츠리고 있었으며, 짧은 팔뚝은 옆구리에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적어도 내가 섬에 머무는 동안에는, 눈에 띄게 털이 많은 개체는 거의 없었다.

그다음으로 눈에 띄는 기형은 얼굴이었다. 거의 모든 얼굴이 턱이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었고, 귀 주변은 뒤틀려 있었다. 코는 크고 뭉툭하게 솟아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털이 아주 많거나 뿔뿔했다. 눈 또한 기묘한 색을 띠거나 이상한 위치에 자리 잡은 경우가 많았다. 그들 중 누구도 웃을 수 없었지만, 유인원 인간만큼은 킬킬거리는 듯한 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러한 공통점 외에 머리 모양은 제각각이었다. 각자의 머리는 본래 속했던 종의 특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인간의 흔적이 남아 있긴 했으나, 그 형체가 일그러진 탓에 그 밑에 숨겨진 표범이나 황소, 암돼지, 혹은 그 외 다른 짐승의 모습까지 가릴 수는 없었다. 목소리 또한 매우 다양했다.

손은 예외 없이 기형이었다. 어떤 손은 뜻밖에도 인간의 손과 닮아 놀라움을 주기도 했으나, 거의 모든 손은 손가락 개수가 모자랐다. 손톱은 투박하고 뭉툭했으며, 촉각 또한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가장 위협적인 짐승인간은 두 명이었다. 하나는 나의 표범인간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이에나와 돼지를 섞어 만든 생물이었다. 배를 끌고 온 세 마리의 황소 생물은 이들보다 몸집이 더 컸다. 그다음으로는 은빛 털이 난 인간이 있었는데, 그는 곧 법을 외치는 자이기도 했다. 그리고 음링, 유인원과 염소를 섞어 놓은 듯한 사티로스 형상의 생물이 있었다. 돼지인간 세 명과 돼지인간 여성 한 명, 암말과 코뿔소를 섞은 듯한 생물,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암컷 생물들도 여럿 있었다. 늑대 생물 몇 마리와 곰과 황소를 섞은 생물, 그리고 세인트 버나드 개를 닮

은 인간도 있었다. 유인원인간은 이미 묘사했으니 생략하겠다. 그리고 여우와 곰을 섞어 만든, 유독 혐오스럽고(악취까지 풍기는) 한 노파가 있었는데, 나는 처음 본 순간부터 그 여자를 증오했다. 그 노파는 법을 아주 열렬히 따르는 자라고 했다. 그보다 작은 생물들로는 얼룩무늬가 있는 몇몇 청년들과 나의 작은 나무늘보 생물이 있었다. 하지만 이 목록은 이쯤 해두겠다.

처음에는 그 짐승들을 마주할 때마다 몸서리쳐지는 공포를 느꼈다. 그들이 여전히 짐승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데 조금씩 익숙해졌고, 무엇보다 그들을 대하는 몽고메리의 태도에 영향을 받았다. 그는 짐승인간들과 너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나머지, 그들을 거의 평범한 인간처럼 여기게 된 듯했다. 그에게 런던에서의 시절은 찬란하면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과거처럼 보였다. 그는 1년에 한 번 정도 아프리카로 건너가 모로 박사의 대리인이자 그곳의 동물 상인인 인물을 만날 뿐이었다. 스페인 잡종들이 모여 사는 그 해안 마을에서 그가 인류의 가장 고결한 유형을 만날 일은 거의 없었다. 몽고메리의 말에 따르면, 배에 탄 사람들도 처음에는 나에게 짐승인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낯설게만 느껴졌다고 한다. 다리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길고, 얼굴은 평평하며, 이마는 툭 튀어나온 데다, 의심 많고 위험하며 냉혹한 인간들 말이다. 사실 그는 인간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자신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기에 나에게 마음을 열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때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그가 변형된 짐승인간들 중 일부에게 남몰래 연민을 품고 있으며, 그들의 방식에 비뚤어진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다만 그는 처음에는 그 마음을 내게 들키지 않으려 애쓰는 듯 했다.

몽고메리의 수행원이자 내가 처음으로 마주친 짐승인간, 얼굴이 검은 음링은 섬의 다른 이들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살지 않았다. 대신 울타리 뒤편에 있는 작은 개집에서 지냈다. 이 생물은 유인원 인간만큼 영리하지는 않았지만, 훨씬 온순했으며 모든 짐승인간 중에서 가장 인간과 닮아 있었다. 몽고메리는 음링에게 음식을 준비하는 법을 가르쳤고, 사실상 필요한 모든 사소한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끔 길들여 놓았다. 음링은 모로 박사의 꼼직한 기술이 만들어낸 복잡한 전리품이었다. 곰의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개와 황소의 형질이 섞여 있었는데, 박사가 만든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정교하게 만들어진 존재 중 하나였다.

음링은 몽고메리를 기이할 정도로 다정하고 헌신적으로 따랐다. 때때로 몽고메리는 음링을 눈여겨보며 쓰다듬기도 하고, 반쯤 놀리듯 장난스러운 이름으로 부르며 음링이 아주 기뻐서 꺾충꺾충 뛰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때로는 음링을 학대하기도 했다. 특히 위스키를 마신 뒤에는 발로 차거나 매질을 하고, 돌이나 불붙은 성냥을 던지며 괴롭혔다. 그러나 몽고메리가 잘해주는 못해주는, 음링은 그의 곁에 있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다.

나는 짐승인간들에게 익숙해졌다고 말하겠다.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고 혐오스럽게만 느껴졌던 수천 가지 일들이 어느덧 자연스럽게 평범하게 다가왔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신이 처한 주변 환경의 평균적인

색조에 따라 그 빛깔이 결정되는 법이다. 몽고메리와 모로 박사는 워낙 독특하고 개성이 강한 인물들이었기에, 그들만으로는 인간에 대한 나의 일반적인 인상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보트를 젓는 서투른 소 형상의 생명체가 덤불 사이를 무겁게 헤치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곤 했다. 그러면 나는 그 존재가 기계적인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진짜 인간 시골뜨기와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기억해 내려 애쓰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혹은 여우-곰 여인의 교활하고 눈치 빠른 얼굴을 마주할 때도 있었다. 그 얼굴은 무언가를 꾀하는 듯한 영악함이 묘하게 인간 같아서, 마치 도시의 어느 골목길에서 예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착각마저 들 정도였다.

하지만 때때로 그 짐승의 본성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하게 나를 향해 튀어나오곤 했다. 굴 입구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흥측한 물골의 사내를 보았다. 겉모습만 봐서는 등이 굽은 야만인 같았다. 그가 팔을 뻗으며 하품을 할 때면, 가위처럼 날카로운 앞니와 칼날처럼 예리하고 번뜩이는 송곳니가 돌연히 모습을 드러내어 나를 놀라게 했다. 좁은 길을 지나갈 때면, 하얀 천을 몸에 두른 유연한 체구의 여인이 찰나의 대담함을 품고 내 눈을 응시하곤 했다. 그때 나는 발작적인 혐오감을 느끼며 그녀의 눈동자가 세로로 찢어진 듯한 형태라는 사실을 깨닫거나, 그녀가 몸을 감싼 형체 없는 옷을 움켜쥐고 있는 구부러진 손톱을 내려다보게 되었다.

덧붙이자면, 내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점이 하나 있었다. 내가 이곳에 머물기 시작한 초기에는, 이 기괴한 생물들, 즉 여인들이 자신의 혐오스러운 서투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때문에 그들은 몸을 가리는 옷을 갖춰 입어 품위와 예의를 지키려는, 인간 이상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제XVI장

짐승인간이 피의 맛을 느끼는 방식.

글을 써 본 경험이 부족한 탓에 자꾸만 실수를 범하며, 이야기의 줄기에서 벗어나 헤매고 만다.

몽고메리와 아침 식사를 마친 뒤, 그는 나를 데리고 섬을 가로질러 분화구와 온천 근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바로 전날 내가 데인 채로 허둥대며 빠져들었던 그 뜨거운 물이 솟구치는 곳이었다. 우리 둘 다 채찍과 장전된 리볼버를 지니고 있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얇이 무성한 정글을 지나던 중, 토끼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멈춰 서서 귀를 기울였으나 더 이상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내 우리는 다시 길을 재촉했고, 그 일은 금세 머릿속에서 잊혔다.

길을 가던 중 몽고메리가 내 주의를 끌었다. 덤불 사이를 쾅쾅쾅 뛰어다니는, 뒷다리가 긴 작은 분홍색 동물들이 보였다. 그는 그 동물들이 모로 박사가 만들어낸 짐승인간의 후손이라고 설명했다. 박사는 이들을 식량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으나, 토끼처럼 새끼를 잡아

먹는 습성 때문에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나는 이미 이 생물들을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다. 한 번은 표범인간을 피해 달빛 아래를 도망칠 때였고, 또 한 번은 전날 모로 박사에게 쫓길 때였다.

마침 우리를 피하려 뛰어오르던 녀석 하나가 바람에 뽑힌 나무 뿌리로 생긴 구멍 속으로 뛰어들었다. 녀석이 빠져나오기 전에 우리는 녀석을 붙잡을 수 있었다. 녀석은 고양이처럼 침을 뱉고 뒷다리로 힘차게 할퀴며 발길질을 해댔고, 물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빨이 너무 약해서 아프지도 않은 가벼운 꼬집기 정도의 통증밖에 주지 못했다. 내가 보기에 그 생물은 꽤 예쁘장했다. 몽고메리는 이 녀석들이 땅을 파헤쳐 잔디를 망가뜨리지 않고 습성도 매우 깔끔하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으니 신사들의 공원에서 흔한 토끼 대신 기르기에 꽤 편리한 동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는 길에 나무줄기 하나를 보았는데, 껍질이 길게 벗겨져 있었고 길게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몽고메리가 내 주의를 끌며 말했다.

“나무껍질을 발톱으로 할퀴지 말 것, 그것이 법이지.” 그가 덧붙였다. “저것들 중 몇몇은 그 법을 어지간히도 신경 쓴다니까!”

사티로스와 유인원 인간을 만난 것은 그 이후였다고 기억한다. 사티로스는 모로 박사가 고전적 기억을 되살려 만들어낸 존재 같았다. 얼굴 표정은 양을 닮아 거친 히브리인의 인상을 풍겼고, 목소리는 귀에 거슬리는 매에 우는 소리 같았으며, 하반신은 악마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 곁을 지나가며 꼬투리 같은 열매의 껍질을 씹고 있었다. 두 존재 모두 몽고메리에게 경의를 표했다.

“채찍을 든 다른 분께 경배를!” 그들이 외쳤다.

“이제 채찍을 든 세 번째 인물이 나타났으니,” 몽고메리가 말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나요?” 유인원 인간이 말했다. “그가 말했어요. 그는 자신이 만들어졌다고 말했어요.”

사티로스 인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채찍을 든 세 번째 자, 바다를 향해 울며 걸어 들어가는 그 자는 얼굴이 창백하고 가늘어.”

“그에겐 가늘고 긴 채찍이 하나 있어.” 몽고메리가 말했다.

“어제 그는 피를 흘리며 울었소.” 사티로스가 말했다. “당신은 피를 흘리지도, 울지도 않지. 주인님은 피를 흘리지도, 울지도 않으시니까.”

“올렌도르프 교본처럼 떠벌리는 녀석 같으니!” 몽고메리가 말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네놈이야말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다!”

“그는 손가락이 다섯 개예요. 나처럼 다섯 손가락을 가진 인간이라고요.” 유인원 인간이 말했다.

“이리 오게, 프렌딕.” 몽고메리가 내 팔을 붙들며 말했다. 나는 그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사티로스와 유인원 인간은 우리를 지켜보며 서로 무언가 말을 주고받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사티로스가 말했다. “인간에게는 목 소리가 있는 법인데 말입니다.”

“어제 그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제게 물었습니다.” 유인원 인간이 말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주고받았고, 나는 사티로스가 웃는 소리를 들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죽은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다. 가련하고 작은 짐승의 붉은 몸은 갈가리 찢겨 있었고, 갈비뼈 여러 개는 하얗게 드러나 있었다. 척추뼈 역시 누군가 분명히 잡아먹은 흔적이 역력했다.

그때 몽고메리가 동작을 멈췄다. 그는 몸을 굽혀 으스스한 척추뼈 몇 조각을 집어 들더니, 그것들을 자세히 살피며 신음하듯 내뿔었다. “세상에!” 몽고메리는 다시 한번 되뇌었다. “대체 이게 무슨 의미란 말인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내가 말했다. “당신이 기르는 육식동물 중 하나가 옛 습성을 기억해낸 모양이군요. 척추뼈가 완전히 물려 끊어져 있습니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입술을 비뚤게 일그러뜨리며 멍하니 서 있었다. “이건 마음에 들지 않아.” 그가 천천히 말했다.

“저도 이곳에 처음 왔던 날, 비슷한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말했다.

“자네 정말 봤단 말인가?! 그게 뭐였나?”

“머리가 뒤틀려 꺾인 토끼 한 마리.”

“자네가 여기 온 날에?”

“제가 이곳에 온 날이었습니다. 저녁에 밖으로 나갔다가 울타리 뒤 쪽 덩굴 속으로 들어갔을 때였죠. 머리가 완전히 비틀려 뜯겨 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낮고 길게 휘파람을 불었다.

“게다가 당신의 짐승들 중 누가 그 일을 저질렀는지 짐작 가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그저 추측일 뿐입니다. 그 토끼 사체를 발견하기 전에, 당신의 괴물 중 하나가 시냇물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물을 빨아 마시고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음료를 빨아 마시지 말 것. 이것이 법이다.’ 짐승인간들이 법 따위에 신경이나 쓰겠나? 모로 박사가 곁에 없을 때면 말이야!”

“나를 뒤쫓아온 건 그 짐승이었다.”

“당연한 일이지.” 몽고메리가 말했다. “육식동물은 원래 다 그렇거든. 사냥을 하고 나면 반드시 피를 마시지. 그 피 맛을 즐기는 거야. 그런데 그 짐승은 어땠나?” 그는 말을 이었다. “다시 마주친다면 알아볼

수 있겠나?” 몽고메리는 죽어 나뒹구는 토끼 사체 위에 다리를 벌리고 서서 우리 주위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우리를 에워싼 숲의 어둠과 무성한 초록빛 덩굴 사이를 헤맸다. 짐승들이 숨어 있을 법한 은신처와 매복 장소들을 살살이 살피는 듯했다. “피 맛이라니.” 그가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그는 리볼버를 꺼내 탄창을 확인한 뒤 다시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축 처진 입술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그 짐승을 다시 보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말했다. “내가 녀석을 기절시켰으니, 이마에 꽤 커다란 멍이 들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토끼를 죽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증명’해야만 해.” 몽고메리가 말했다. “이것들을 이곳으로 가져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계속 나아가려 했으나, 그는 멍한 표정으로 짓이겨진 토끼 사체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토끼의 잔해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떨어져 걸어갔다.

“어서 갑시다!” 내가 말했다.

이윽고 그는 정신을 차리고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보다시피, 저들은 육지에서 달리는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어. 만약 어떤 짐승이 우연히라도 피 맛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계속 나아갔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가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러고는 다시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다. "며칠 전에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어. 내 하인에게 토끼 가죽을 벗기고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 이상한 일이야. 그자가 손을 얹는 걸 봤는데, 그때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어."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모로 박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 내내, 그는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다.

모로 박사는 몽고메리보다도 이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두 사람이 명백히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내가 그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본보기를 보여야 하네.” 모로 박사가 말했다. “표범인간이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나? 몽고메리, 자네가 고기 맛을 좀 절제하고 이런 자극적인 별미들을 멀리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네의 그 식성 때문에 우리가 곤경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겠군.”

“내가 어리석었네.” 몽고메리가 말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지. 자네도 내가 그것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나.”

“당장 이 일을 처리해야 하네.” 모로 박사가 말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음령이 스스로 알아서 대처할 수 있겠지?”

“음링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는군.” 몽고메리가 말했다. “그자가 어떤 자인지 알아둬야 할 것 같아.”

오후가 되자 모로 박사와 몽고메리, 음링, 그리고 나는 섬을 가로질러 협곡에 있는 오두막들로 향했다. 우리 셋은 무기를 갖추고 있었다. 음링은 땀감을 패는 데 쓰는 작은 도끼와 철사 몇 뭉치를 들고 있었고, 모로 박사는 커다란 소치기용 뿔나팔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짐승인간들이 모여드는 광경을 보게 될 거야.” 몽고메리가 말했다. “꽤 볼만한 구경거리라네!”

모로 박사는 오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만 흰 수염이 덩수룩한 그의 무거운 얼굴에는 엄숙하고도 비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우리는 뜨거운 물이 연기를 내뿜으며 흘러내리는 협곡을 건넜다. 이어 갈대숲 사이로 굽이진 길을 따라갔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노란 가루 같은 물질이 두껍게 뒤덮인 넓은 평지였다. 내 생각에 그것은 유황인 듯했다. 잡풀이 무성한 언덕 너머로 바다가 반짝였다. 우리는 마치 천연의 야외 극장처럼 생긴 얇은 분지에 다다랐고, 그곳에서 우리 네 사람은 발을 멈췄다.

그때 모로 박사가 나팔을 불어 열대 오후의 잠든 정적을 깨뜨렸다. 박사는 폐활량이 무척 좋은 모양이었다.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메아리와 함께 점점 더 높이 솟구치더니, 마침내 고막을 찌를 듯한 강렬한 소리로 변했다.

“아!” 모로 박사가 말했다. 그는 구부러진 기구를 다시 옆으로 떨어 뜨렸다.

노란 갈대숲을 헤치며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즉각 들려왔다. 이어 어제 내가 가로질러 달려왔던 그 늪지대를 둘러싼 울창하고 푸른 정글 속에서 사람의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그러더니 유향 빛이 감도는 지대 가장자리 곳곳에서 짐승인간들의 기괴한 형체들이 우리를 향해 급히 달려오는 모습이 나타났다. 나무나 갈대 사이에서 한 마리, 또 그다음 마리가 튀어나와 뜨거운 먼지 위를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것을 목격하자, 나는 엄습하는 공포를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모로 박사와 몽고메리는 충분히 침착하게 서 있었고, 나 역시 어쩔 수 없이 그들 곁에 붙어서 있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사티로스였다. 발굽으로 먼지를 일으키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에도, 그 모습은 기이할 정도로 비현실적이었다. 그 뒤를 이어 덩불 속에서 말과 코뿔소를 섞어 놓은 듯한 거대하고 멍청한 괴물이 짙단 하나를 씹으며 나타났다. 이어 돼지 여인과 두 마리의 늑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고, 붉은 뽀족한 얼굴에 붉은 눈을 번뜩이는 여우곰 마녀와 다른 이들도 뒤따랐다. 모두가 무언가에 홀린 듯 서둘러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앞으로 다가오며 모로 박사를 향해 몸을 굽히기 시작했다. 서로를 전혀 개의치 않은 채, 그들은 법의 기도문 후반부 구절들을 각자 웅얼거리듯 읊조렸다. “상처를 입히는 손은 그의 것이요, 치유하는 손 또한 그의 것이라.” 그와 같은 구절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약

30야드 거리까지 다가온 그들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무릎과 팔꿈치를 땅에 댄 채 절을 하며, 머리 위로 하얀 먼지를 뿌려대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상상해 보라! 타오르는 푸른 하늘 아래, 햇빛이 내리쬐는 넓고 황량한 황토밭 위로 우리 세 명의 푸른 옷 입은 사내와 얼굴이 검고 뒤틀린 하인이 서 있었다. 우리를 둘러싼 것은 몸을 웅크린 채 손짓을 해대는 괴물들의 원이었다. 어떤 괴물은 미묘한 표정과 몸짓을 제외하면 거의 인간과 흡사했고, 어떤 것은 불구자 같았으며, 또 어떤 것은 너무나 기괴하게 뒤틀려 있어서 마치 악몽 속에서나 나올 법한 존재들 같았다. 한쪽에는 갈대숲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야자수들이 뻗뻗하게 엉켜 있어 오두막들이 있는 협곡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태평양의 아스라한 지평선이 펼쳐져 있었다.

“예순둘, 예순셋.” 모로 박사가 숫자를 세었다. “네 마리가 더 남았군.”

“표범인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다.

이윽고 모로 박사가 커다란 빨나팔을 다시 불었다. 그 소리가 울려 퍼지자 짐승인간들이 일제히 몸을 뒤틀며 먼지 구덩이 속에 엎드렸다. 그때 표범인간이 갈대숲 사이로 살금살금 기어 나왔다. 표범인간은 몸을 낮게 숙인 채 모로 박사의 등 뒤에서 먼지를 뿌리며 원을 그리던 우리 속으로 끼어들려 애썼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짐승인간은 작은 유인

원인간이었다. 먼저 도착해 엎드려 있던 동물들은 더위와 피로에 지친 기색으로 그를 향해 사나운 눈초리를 보냈다.

“그만!” 모로 박사가 단호하고 큰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짐승인 간들은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앉아 승배를 멈추었다.

“법을 외치는 자는 어디 있느냐?” 모로 박사가 물었다. 그러자 털이 덩수룩하고 회색빛을 띤 괴물이 먼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말해라, 그 문장들을!” 모로 박사가 외쳤다.

무릎을 꿇고 모여 있던 무리가 일제히 몸을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손으로 유향을 연신 훑어 올렸다. 먼저 오른손으로 훑어 먼지를 훑어 일으키고, 이어 왼손으로 훑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했다. 그러더니 기괴한 기도문을 다시 읊조리기 시작했다. “고기나 생선을 먹지 말지어다, 이것이 법이니라.” 이 구절에 이르자, 모로 박사가 창백하고 마른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멈춰!” 그가 외쳤다. 그러자 모두에게 완전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들 모두가 앞으로 닥쳐올 일을 알고 있었고, 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들의 기이한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움츠러든 몸짓과 번뜩이는 눈동자 속에 숨길 수 없는 공포를 보며, 나는 내가 어쩌다 저들을 인간이라고 믿었는지 의아할 뿐이었다.

“그 법이 깨졌다!” 모로 박사가 말했다.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 은빛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얼굴 형체조차 알 수 없는 괴물이 말했다. 무릎을 꿇고 원을 그리며 둘러선 짐승인 간들도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되풀이했다.

“저놈은 누구냐?”

모로 박사가 채찍을 휘두르며 그들의 얼굴을 둘러보며 외쳤다. 내가 보기에 하이에나돼지는 낙담한 기색이었고, 표범인간 역시 마찬가지였다. 모로 박사는 그 생명체를 마주하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 생명체는 끝없는 고통에 대한 기억과 공포에 질린 채, 박사를 향해 몸을 움츠렸다.

“그자가 누구냐?” 모로 박사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법을 어기는 자, 그가 바로 악이다.” 법을 외치는 자가 웅조렸다.

모로 박사는 표범인간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마치 그 생명체의 영혼까지 통째로 끌어내려는 듯한 기세였다.

“법을 어기는 자는—” 모로 박사가 희생자에게서 눈을 떼며 우리 쪽으로 몸을 돌려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승리감이 서려 있는 듯했다.)

“고통의 집으로 돌아간다, 고통의 집으로 돌아간다, 주인님!” 그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울부짖었다.

“고통의 집으로, 고통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유인원인간이 중얼거렸다. 마치 그 생각이 아주 달콤하기라도 한 듯한 말투였다.

“들리는가?” 모로 박사가 죄인을 향해 몸을 돌리며 말했다. “내 친구—어라!”

모로 박사의 시선에서 벗어난 표범인간이 무릎을 꿇고 있다가 곧장 몸을 일으켰다. 그는 눈을 번뜩이며 말려 올라간 입술 사이로 거대한 고양이과 송곳니를 드러낸 채, 자신을 괴롭히던 박사를 향해 달려들었다. 견딜 수 없는 공포가 불러온 광기만이 이런 공격을 가능케 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예순 마리에 달하는 괴물들이 우리를 에워싸며 일제히 일어나는 듯했다. 나는 리볼버를 꺼내 들었다. 두 형체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표범인간의 일격에 모로 박사가 뒤로 휘청이는 모습이 보였다. 사방에서 분노에 찬 비명과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다. 모두가 급박하게 움직였다. 순간 나는 이것이 집단 반란이라 생각했다. 표범인간의 분노에 찬 얼굴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갔고, 음령이 그 뒤를 바짝 쫓았다. 하이에나-돼지인간의 노란 눈은 흥분으로 이글거렸으며, 금방이라도 나를 공격할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사티로스 또한 하이에나-돼지인간의 굵은 어깨 너머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때 모로 박사의 권총 소리가 울렸고, 소란스러운 군중 사이로 분홍빛 섬광이 번뜩였다. 불꽃이 튀는 방향으로 군중 전체가 일제히 몸을 돌리는 듯했고, 나 역시 그 움직임에 휩쓸려 몸을 돌렸다. 다음 순간, 나는 도망치는 표범인간을 뒤쫓는 소란스러운 군중의 일원이 되어 달리고 있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표범인간이 모로 박사를 내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앞이 빙글빙글 돌더니,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앞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음링은 도망자를 쫓아 앞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늑대여인들이 혀를 길게 내민 채 커다란 보폭으로 경충경충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돼지 인간들이 흥분해서 껹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뒤따랐고, 흰 천을 몸에 감은 두 명의 황소인간도 뒤를 이었습니다. 모로 박사는 짐승인간 무리에 둘러싸인 채 나타났습니다. 박사는 넓은 챙의 밀짚모자가 날아간 상태였고, 한 손에는 리볼버를 든 채 창백하고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이어나-돼지인간은 제 곁에서 발맞추어 달리며 고양이 같은 눈으로 저를 슬쩍슬쩍 훑쳐보았고, 다른 이들은 뒤에서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지르며 쫓아왔습니다.

표범인간이 긴 대나무 숲을 헤치며 돌진했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대나무들은 다시 튀어 올라 음링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다. 뒤따르던 우리 일행은 덤불에 다다랐을 때, 앞서간 이들이 짓밟아 놓은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었다. 추격전은 덤불 속에서 약 4분의 1마일가량 이어지더니, 이내 뻥뻥한 덤불 속으로 급격히 휘몰아쳐 들어갔다. 우리는 때를 지어 함께 나아갔지만, 그 덤불은 우리의 움직임을 극도로 더디게 만들었다. 나뭇잎들은 얼굴을 끊임없이 후려쳤고, 덩굴들은 턱 밑을 낚아채거나 발목을 움켜쥐었다. 가시 돋친 식물들은 옷감과 살점을 한 데 엉겨 붙게 만들며 할퀴고 찢어 놓았다.

“이놈은 여기를 네 발로 기어서 빠져나갔군.” 모로 박사가 내 바로 앞에서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아무도 못 도망쳐!” 늑대곰이 사냥의 희열에 찬 웃음을 내 얼굴에 터뜨리며 말했다. 우리는 다시 바위 사이로 뛰쳐나갔다. 저 멀리 앞서 가던 사냥감이 네 발로 가볍게 달리며, 어깨 너머로 우리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을 보자 늑대인간들이 기쁨에 겨워 울부짖었다. 그 괴물은 여전히 옷을 입고 있었고, 멀리서 본 얼굴은 아직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네 다리로 움직이는 자세는 영락없이 고양이과의 그것이었고, 어깨를 움츠리며 몰래 숨어드는 모습은 분명 쫓기는 동물의 그것이었다. 괴물은 노란 꽃이 핀 가시덤불 위를 뛰어넘더니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음링은 이미 그 공간의 절반쯤을 가로지른 상태였다.

추격의 초반 속도는 대부분 줄어들었고, 이제는 길고 일정한 보폭으로 달리는 상태가 되었다. 탁 트인 벌판을 가로지르는 동안, 나는 추격대열이 점차 길게 늘어선 선의 형태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하이에나-돼지는 여전히 내 곁을 바짝 붙어 달렸다. 놈은 달리는 와중에도 계속 나를 살폈고, 때때로 으르렁거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주둥이를 일그러뜨렸다.

바위 언덕 끝자락에 이르자 표범-인간이 움직임을 바꿨다. 자신이 내가 처음 도착하던 밤에 나를 몰아넣었던 그 돌출된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놈은 덤불 속으로 몸을 돌려 숨으려 했으나, 몽고메리가 그 움직임을 포착하고 다시 놈을 몰아세웠다.

그리하여 나는 숨을 헐떡이며 바위에 부딪히고, 가시덤불에 찢기며, 고사리와 갈대에 발이 걸리는 고통 속에서도 법을 어긴 표범-인간을

쫓는 데 힘을 보탤다. 하이에나-돼지는 야만적인 웃음을 흘리며 내 옆에서 함께 달렸다. 머리는 어지럽고 심장은 갈비뼈를 두드릴 듯 요동쳤다. 죽을 만큼 지쳤지만, 이 끔찍한 동행자와 단둘이 남겨질까 두려워 차마 추격대를 놓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나아갔다. 나는 극심한 피로와 열대 오후의 짙은 열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비틀거리며 발을 옮겼다.

마침내 추격의 광기가 잦아들었다. 우리는 그 가련한 짐승을 섬의 구석진 곳으로 몰아넣었다. 채찍을 손에 든 모로 박사는 우리 모두를 불규칙한 대열로 정렬시켰다. 우리는 서로 소리를 지르며 천천히 전진했고, 희생자를 포위망 안에 가두며 서서히 압박해 들어갔다. 짐승은 내가 한밤중의 추격전 동안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왔던 그 덩굴 속에 숨어 있었다. 녀석은 소리도 없이, 모습도 드러내지 않은 채 잠복하고 있었다.

“침착해!” 모로 박사가 외쳤다. “침착하라고!” 대열의 양 끝이 뒤엀킨 덩굴 사이를 파고들며 짐승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조심해, 갑자기 튀어나올 거야!” 덩굴 너머에서 몽고메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덩굴 위쪽 경사면에 서 있었다. 그 아래 해변에서는 몽고메리와 모로 박사가 길을 내며 나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뒤엀킨 나뭇가지와 잎사귀 사이를 헤치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사냥감은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고통의 집으로, 고통의 집으로, 고통의 집으로!"

오른쪽으로 스무 야드쯤 떨어진 곳에서 유인원 인간의 목소리가 비명을 지르듯 울려 퍼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가련한 자가 내게 심어주었던 모든 공포를 용서할 수 있었다. 오른쪽에서 들려오는 말코뿔소의 육중한 발걸음에 나 뭇가지가 꺾이고 가지들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갑자기 무성한 수풀 아래 반쯤 어두운 곳, 초록빛 덩굴 사이로 우리가 쫓던 그 생명체가 나타났다. 나는 발을 멈췄다. 놈은 몸을 최대한 작게 웅크린 채, 번뜩이는 초록빛 눈을 어깨 너머로 돌려 나를 살피고 있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기묘한 모순을 나 스스로도 설명할 길이 없다. 하지만 눈앞의 생명체가 완전히 짐승 같은 자세를 취한 채, 눈에는 빛을 번뜩이고 불완전한 인간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는 것을 보며, 나는 그 존재에게 인간성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잠시만 지나도 다른 추격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녀석은 제압당해 붙잡혀 고통의 집에서 다시금 끔찍한 고문을 겪게 될 터였다. 나는 돌연 권총을 꺼내 공포에 질린 녀석의 두 눈 사이를 겨누어 발사했다. 그 순간 하이에나-돼지가 그 존재를 발견하고는, 갈구하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어 굶주린 이빨을 녀석의 목덜미에 박아 넣었다. 짐승인간들이 한데 몰려오자 주변의 무성한 덩굴들이 일제히 흔들리며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둘, 기괴한 얼굴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죽이지 마, 프렌딕!” 모로 박사가 외쳤다. “죽이지 말란 말이야!” 그는 커다란 양치식물 잎사귀 사이를 헤치며 몸을 숙이고 다가왔다.

잠시 후, 그는 채찍 손잡이로 하이에나-돼지를 때려눕혔다. 나와 몽고메리는 흥분한 육식성 짐승인간들을, 특히 음링이 아직 경련하며 떨고 있는 사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털이 덩수룩하고 회색빛을 띤 그 괴물은 내 팔 아래 놓인 시신에 코를 들이대며 쿵쿵거렸다. 다른 동물들도 짐승 특유의 열기에 휩싸여, 더 가까워서 보려고 나를 밀치며 몰려들었다.

“빌어먹을, 프렌딕!” 모로 박사가 말했다. “그놈이 필요했던 말이다.”

“미안하요.” 나는 그렇게 말했다. 사실 미안하지는 않았다. “순간적인 충동이었소.”

지나친 긴장과 흥분 탓에 속이 메스꺼웠다. 나는 몸을 돌려 몰려드는 짐승인간들을 헤치고 나갔다. 그리고는 홀로 경사로를 따라 곳의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갔다. 모로 박사가 소리 높여 지시를 내리는 가운데, 흰 천에 싸인 세 명의 황소인간이 희생자를 물가로 끌고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나는 홀로 남겨지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짐승인간들은 죽은 시신에 대해 꽤 인간적인 호기심을 보였다. 황소인간들이 시신을 해변 아래로 끌고 내려가자, 짐승인간들은 떼를 지어 몰려와 시신 주위를 맴돌며 쿵쿵거리고 으르렁거렸다. 나는 곳으로 가서 황소인간들을 지켜

보았다.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검게 실루엣이 비친 그들은 무게가 나가는 시신을 메고 바다로 향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이 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말할 수 없이 목적도 없이 흘러가는지를 깨달았다. 마치 파도가 마음을 덮치듯 그 실감이 밀려왔다.

내 발치 아래 바위가 깔린 해변에는 유인원인간과 하이에나-돼지, 그리고 다른 몇몇 짐승인간들이 몽고메리와 모로 박사 주위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여전히 격앙된 상태였고, 법에 대한 충성을 요란하게 외쳐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하이에나-돼지가 토끼를 죽인 일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확신했다.

기이한 확신이 나를 사로잡았다. 비록 그 형태는 기괴하고 선은 조잡할지언정, 내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은 인간 삶의 균형을 축소해 놓은 모습이었다. 본능과 이성, 그리고 운명이 가장 단순한 형태로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상이었다. 표범인간이 운 나쁘게 죽음을 맞이했을 뿐, 그 차이가 전부였다. 가여운 짐승 같으니!

가엾은 짐승들이여! 나는 모로 박사의 잔혹함이 지닌 더욱 비열한 이면을 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모로의 손을 떠난 이 가엾은 희생자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그저 우리 안에 간혀 실제로 고문을 당하던 날들에만 몸서리쳤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통조차 사소해 보였다. 예전의 그들은 짐승이었다. 본능은 주변 환경에 적절히 맞춰져 있었고, 생명체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인간이라는 굴레에 묶여 비틀거리고 있었다. 결코 가시지 않는 공포 속에 살아가며, 이해할 수 없는 법에 짓눌

려 괴로워하고 있었다. 고통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가짜 인간 삶은, 모로에 대한 끝없는 두려움이자 길고 긴 내면의 투쟁일 뿐이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란 말인가? 이 모든 것이 그저 무모하고도 방종한 유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모로 박사에게 이해할 만한 목적이라도 있었다면, 나는 적어도 그에게 조금은 공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고통에 대해 그 정도로 결벽 증적인 사람은 아니다. 만약 그의 동기가 단지 증오뿐이었다면, 나는 그를 어느 정도 용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무책임했고, 지독할 정도로 부주의했다! 그를 몰아붙인 것은 오로지 호기심과 미친 듯이 목적도 없이 이어가는 탐구뿐이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존재들은 고작 1년 남짓 살아가기 위해, 그저 발버둥 치고 실수하며 고통받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어 가기 위해 세상에 던져졌다. 그 존재들은 그 자체로도 비참했다. 짐승 특유의 오래된 증오심은 서로를 괴롭히게 만들었고, 법은 그들이 짧고 격렬한 싸움을 통해 본능적인 적대감을 끝내고 결판을 내는 것조차 막아 세웠다.

그 무렵 내가 느낀 짐승인간에 대한 공포는 모로 박사에게 대해 느꼈던 개인적인 두려움과 같은 길을 걸었다. 나는 실제로 깊고도 오래 지속되는 병적인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것은 공포와는 거리가 먼, 내 정신에 영구적인 흉터를 남긴 기이한 상태였다. 이 섬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혼란을 목격하며, 나는 세상이 온전하다는 믿음을 잃었음을 고백해야겠다. 눈먼 운명, 즉 거대하고 무자비한 기계 장치가 존재의 결을 자르고 빗어내는 듯했다. 그 쉽 없이 돌아가는 복잡한 톱니바퀴 사이에서 나 자신과 모로 박사(그의 연구에 대한 집착 때문에), 몽고메리

(그의 술에 대한 탐닉 때문에), 그리고 본능과 정신적 제약에 갇힌 짐승인간들은 무자비하고도 필연적으로 찢기고 짓눌렸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한꺼번에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지금 이 상태를 언급하는 것이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기는 하다.

제XVII장

재앙

모로의 이 파렴치한 실험에 대해 혐오와 증오를 제외한 그 어떤 감정도 남지 않기까지, 채 여섯 주도 지나지 않았다. 나의 유일한 생각은 창조주가 빚어낸 형상을 기괴하게 뒤틀어 이 끔찍한 모조품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 인간 사이의 달콤하고 건전한 교류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그렇게 격리된 동족들에 대한 기억은, 내 머릿속에서 점차 목가적인 미덕과 아름다움을 갖춘 존재들로 미화되기 시작했다.

몽고메리와 관계는 처음보다 나아지지 않았다. 인간 사회와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탓인지, 그는 술에 빠져 지내는 은밀한 악습이 있었고 짐승인간들에게 명백한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그의 모습은 내게 불쾌감을 주었다. 나는 몇 번이고 그를 짐승인간들 사이에 혼자 내버려 두었다. 나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들과 섞이는 것을 피했다. 해변에서 보내는 시간은 점점 늘어만 갔다. 구원의 돛을 단 배

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으나, 끝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재앙이 우리를 덮쳤다. 그 사건으로 인해 내가 처한 이 기이한 환경은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내가 섬에 상륙한 지 일고여덟 주쯤 지났을 때였다. 시간을 꼼꼼히 기록해 두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보다 조금 더 지났을 것이다. 재앙은 바로 그때 일어났다. 이른 새벽, 아마 6시쯤이었을 것이다. 짐승인간 세 마리가 울타리 안으로 나무를 나르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깨어, 나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마친 상태였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나는 우리(enclosure)의 열린 입구로 가서 담배를 피우며 이른 아침의 상쾌함을 만끽했다. 잠시 후 모로 박사가 우리 모퉁이를 돌아 나오며 내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내 곁을 지나쳐 갔고, 뒤편에서 그가 실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당시 나는 이곳의 끔찍한 광경에 너무나 무뎌져 있었다. 그래서 퓨마가 또 다른 고문의 하루를 시작하며 비명을 지를 때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퓨마의 비명은 마치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여인이 내지르는 소리 와도 똑같았다.

그러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다. 지금까지도 무엇이었는지 알 길이 없다. 등 뒤에서 짧고 날카로운 비명이 들리더니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다. 뒤를 돌아본 순간, 끔찍한 형체가 나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도, 짐승도 아니었다. 지옥에서 온 듯한 갈색 피부 위로 붉은 나뭇가지 모양의 흉터들이 갈라져 있었고, 그 흉터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눈꺼풀도 없는 눈은 번뜩이며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달려드는 공격을 막으려 팔을 들어 올렸으나, 그 충격에 팔뚝이 부러지며 머리부터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붉게 물든 붕대를 휘날리며 린넨 천을 몸에 두른 거대한 괴물은 나를 뛰어넘어 지나쳐 갔다. 나는 해변을 따라 몇 번이고 굴러떨어졌고,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부러진 팔의 통증에 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 모로 박사가 나타났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그의 거대한 백색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공포스러웠다. 그는 한 손에 리볼버를 들고 있었다. 그는 나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은 채, 표마를 뒤쫓아 곧장 달려 나갔다.

나는 다른 쪽 팔을 움직여 보며 몸을 일으켰다. 붕대에 칭칭 감긴 앞쪽의 형체는 해변을 따라 성큼성큼 큰 보폭으로 내달렸고, 모로 박사가 그 뒤를 쫓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박사를 확인하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 덤불 속으로 향했다. 그녀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박사를 점점 앞질러 거리를 벌렸다. 그녀가 덤불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보였다. 모로 박사는 그녀를 가로막으려 비스듬히 달려가며 총을 쏘지만,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지며 총알은 빗나갔다. 이윽고 박사 역시 초록빛 덤불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나는 그들이 사라진 곳을 멍하니 응시했다. 그때 팔의 통증이 불길처럼 치솟았고, 나는 신음하며 비틀거리듯 일어섰다. 문가에는 옷을 차려입은 몽고메리가 리볼버 권총을 손에 든 채 나타났다.

“세상에, 프렌딕!” 몽고메리가 외쳤다. 내가 다쳤다는 사실은 눈치 채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 짐승이 풀려났어! 벽에서 쇠사슬을 통째로 뜯어냈다고! 혹시 봤어?” 그러다 내가 팔을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고는 날카롭게 물었다. “대체 왜 그래? 어디 아파?”

“나는 문가에 서 있었다.” 내가 말했다.

그가 다가와 내 팔을 붙잡았다. “소매에 피가 묻었군.” 그가 말하며 플란넬 천을 걷어 올렸다. 그는 무기를 주머니에 넣더니, 내 팔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세게 더듬어 살핀 뒤 나를 안으로 이끌었다. “팔이 부러졌어.” 그가 말했다. 이어 그가 다시 물었다.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내가 본 것을 그에게 말했다. 고통 때문에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문장을 이어가며 말하자, 그는 그사이 내 팔을 아주 능숙하고 빠르게 묶어 주었다. 그는 내 팔을 어깨 너머로 넘겨 고정하더니, 뒤로 물러나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정도면 됐어.” 그가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는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 우리 문을 잠갔다. 그가 자리를 비운 것은 한동안이었다.

내 관심은 주로 팔에 쏠려 있었다. 그 사건은 그저 내가 겪은 수많은 끔찍한 일 중 하나일 뿐인 듯했다. 나는 갑판 의자에 주저앉아, 섬을 향해 마음속으로 거칠게 욕설을 내뱉고 말았다. 팔에 느껴지던 처음의 둔탁한 통증은 이미 타는 듯한 작열감으로 변해 있었다. 그때 몽고메리가 다시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꽤 창백해 보였고, 평소보다 아랫잇몸이 더 흰히 드러나 있었다.

“그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목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어쩌면 내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

는 무표정한 눈으로 나를 뵈히 응시했다. “정말 힘이 센 짐승이었습니다.” 그가 덧붙였다. “벽에 박힌 쇠사슬을 그냥 힘으로 뽑아버리더군요.” 그는 창가로 갔다가 다시 문가로 움직이더니, 그곳에서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를 뒤쫓아가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에게 맡겨둘 리볼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웬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군요.”

그는 무기를 가져와 내 손이 닿기 편하도록 탁자 위에 놓아두었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갔는데, 그가 떠난 자리에는 불안한 전염병 같은 기운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그가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권총을 손에 쥐고 문가로 다가갔다.

아침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바람 한 점 일지 않았고, 바다는 매끄럽게 닦아놓은 유리 같았으며, 하늘은 텅 비어 있었고 해변은 황량했다. 반쯤 흥분하고 반쯤 열병에 들뜬 내 상태에서, 이 정적은 나를 짓눌렀다. 휘파람을 불어보려 했지만 곡조는 이내 끊겨버렸다. 나는 다시 욕설을 내뱉었다. 그날 아침 벌써 두 번째였다. 그러고는 울타리 구석으로 가서, 모로 박사와 몽고메리를 집어삼킨 듯 우거진 초록빛 덩굴을 내륙 쪽을 향해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언제,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그때 저 멀리 해변 끝에서 작은 회색빛 짐승인간 하나가 나타났다. 짐승인간은 물가로 달려가더니 물을 침범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문가로 걸어갔다가 다시 구석으로 향하기를 반복하며, 마치 보초를 서는 병사처럼 이리저리 서성였다. 그러다 멀리서 몽고메리가 "쿠이—모로!" 하고 소리치는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췄다. 팔의 통증은 줄었지만, 대신 열기가 뜨겁게 올라왔다. 열이 나고 갈증이 났다. 그림자는 점점

짧아졌다. 나는 그 멀리 있는 형체가 다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모로 박사와 몽고메리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바다새 세 마리가 해변에 떠밀려온 무언가를 차지하려고 싸우기 시작했다.

그때 울타리 너머 멀리서 권총 소리가 들려왔다. 긴 침묵이 이어지더니, 이내 또 한 발이 울렸다. 그러고는 더 가까운 곳에서 비명 섞인 외침이 들렸고, 다시금 음산한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불행하게도 내 상상력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아주 가까운 곳에서 총성이 터졌다. 나는 깜짝 놀라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그곳에서 나는 몽고메리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바지 무릎 부분은 찢어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경악이 서려 있었다. 그의 뒤에는 짐승인간 음령이 구부정한 자세로 서 있었는데, 음령의 턱 주변에는 정체 모를 검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그가 왔나?” 몽고메리가 물었다.

“모로 박사님입니까?” 내가 물었다. “아니오.”

“세상에, 맏소사!”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거의 흐느끼는 듯한 소리를 냈다. 그는 내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다들 미쳐버렸어요. 모두가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숨 좀 돌리고 나면 말씀드리죠. 브랜디는 어디 있습니까?”

몽고메리가 절뚝거리며 내 앞으로 들어와 데크 의자에 앉았다. 음링은 문 바로 바깥에 몸을 던지듯 엎드리더니, 마치 개처럼 혈떡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몽고메리에게 브랜드를 섞은 물을 가져다주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허공을 멍하니 응시한 채 앉아 있었다. 몇 분이 흐른 뒤, 그는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동안 그들의 흔적을 따라갔다. 처음에는 흔적이 꽤 분명했다. 짓이겨지고 부서진 덩불, 퓨마의 봉대에서 찢겨 나간 하얀 천 조각들, 그리고 관목과 덩불 잎사귀에 간간이 묻은 혈흔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짐승인간이 물을 마시는 것을 보았던 개울 너머 돌밭에 이르자 흔적은 끊기고 말았다. 그는 모로 박사의 이름을 외치며 서쪽을 향해 목적 없이 헤맸다. 그때 음링이 작은 도끼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음링은 퓨마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나무를 베고 있다가 몽고메리의 외침을 듣고 온 것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갔다. 그때 짐승인간 둘이 덩불 사이로 몸을 웅크린 채 그들을 살피며 나타났다. 그들의 기이한 몸짓과 은밀한 태도는 몽고메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가 그들을 불러 세우자, 짐승인간들은 죄를 지은 듯 황급히 달아났다. 그 후 몽고메리는 외치는 것을 멈췄다. 그는 한동안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더 헤매다가, 결국 오두막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협곡에는 아무도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포가 커진 그는 왔던 길을 되짚어 가기 시작했다. 그러다 내가 도착하던 날 밤 춤추던 것을 보았던 두 돼지인간과 마

주쳤다. 돼지인간들의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그들은 몹시 흥분한 상태였다. 돼지인간들은 고사리 숲을 헤치며 거칠게 달려오다가, 그를 발견하자 사나운 얼굴로 멈춰 섰다. 몽고메리는 두려움에 떨며 채찍을 휘둘렀으나, 돼지인간들은 즉시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전까지 어떤 짐승인간도 감히 이런 짓을 저지른 적은 없었다. 몽고메리는 그중 한 마리의 머리에 총을 쏘았다. 그사이 음링이 다른 한 마리에게 달려들어 몸을 던졌고, 둘은 뒤엉켜 구르기 시작했다. 음링이 짐승을 아래에 깔아뭉개고 목덜미를 물어뜯자, 몽고메리는 음링의 손아귀에서 발버둥 치던 그 짐승에게도 총을 쏘았다. 몽고메리는 음링을 달래어 함께 돌아오는 데 애를 먹었다고 했다. 그 후 그들은 나에게 서둘러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음링이 갑자기 덩굴 속으로 돌진하여 몸집이 작은 오셀롯인 한 마리를 몰아냈는데, 그 오셀롯인 역시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고 발에 입은 상처 때문에 다리를 절고 있었다. 이 짐승은 얼마 못 가 달아나다가 막다른 곳에 몰리자 사납게 돌아섰고, 몽고메리는—내 생각에는 다소 잔인하게도—그놈을 쏘 죽였다.

“이게 다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브랜디로 손을 돌렸다.

제XVIII장

모로를 발견하다.

몽고메리가 브랜디를 세 잔째 들이켜는 것을 보고, 나는 참다못해 끼어들었다. 그는 이미 반쯤 취해 있었다. 나는 모로 박사에게 분명 무슨 심각한 일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진작 돌아왔어야 했다며, 무슨 재앙이 닥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몽고메리는 힘없이 반대하며 버텼지만, 결국 내 말에 동의했다. 우리는 음식을 좀 먹은 뒤, 세 사람 모두 길을 떠났다.

당시 내 마음이 극도로 긴장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열기가 가득한 열대 오후의 정적 속으로 뛰어들던 그 순간의 기억은, 지금 생각해도 유독 생생하다. 음링이 앞장섰다. 그는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길 양쪽을 번갈아 살피며 기묘하게 검은 머리를 확확 움직였다. 그는 무기가 없었다. 돼지인간과 마주쳤을 때 이미 도끼를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싸움이 벌어지면 그에게는 이빨이 곧 무기였다. 몽고메리는 고개를 떨군 채 주머니에 손을 넣고 비틀거리며 뒤따라왔다. 그는 브랜

디 때문에 나에게 잔뜩 심술이 나 있었다. 내 왼팔은 팔걸이에 매달려 있었는데, 다행히 왼팔이라서 망정이었다. 오른손에는 리볼버를 쥐고 있었다. 우리는 곧 섬의 무성한 수풀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북서쪽으로 나아갔다. 그러다 음링이 갑자기 멈춰 서더니, 경계심에 몸을 뺏뺏하게 굳었다. 몽고메리는 음링과 부딪힐 뻔하며 비틀거리다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이어 우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숲 너머에서 누군가의 목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들려왔다.

“그는 죽었네.” 낮게 울리는 목소리가 말했다.

“그는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다고!” 다른 이가 횡설수설하며 외쳤다.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봤단 말입니다.” 여러 목소리가 한데 섞여 외쳤다.

“이봐요!” 갑자기 몽고메리가 소리쳤다. “거기 누구 없소!”

“제기랄!” 나는 욕설을 내뱉으며 권총을 움켜쥐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얽히고설킨 수풀 사이에서 무언가 부딪히며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저기서 소리가 번지더니 이윽고 대여섯 개의 얼굴이 나타났다. 기이한 빛에 비친, 기괴한 얼굴들이었다. 음링이 목구멍으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그 유인원 인간을 알아봤다. 사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익숙한 상태였다. 또한 몽고메리의 배에서 보았던, 흰 천을 몸에 두른 갈색 피부의 생물 두 마리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 곁에는 얼룩무늬가 있는 짐승 두 마리와, 법을 외치는

자가 있었다. 그 회색빛의 끔찍하게 뒤틀린 생물은 뺨 위로 회색 머리 카락을 늘어뜨리고 있었고, 짙은 회색 눈썹 아래 이마 중앙의 가르마에서부터 회색 머리칼이 경사진 이마를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생물은 이목구비가 없는 육중한 형체였으며, 초록빛 수풀 사이에서 기묘하게 붉은 눈을 빛내며 호기심 어린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때 몽고메리가 딸꾹질을 하며 물었다. “누가—누가 죽었다고 했지?”

원숭이 인간이 털이 덮수룩한 회색 형체를 죄책감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죽었어요.” 괴물이 말했다. “사람들이 봤어요.”

어쨌든 이 무리에게서 위협적인 기색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경외감에 사로잡힌 채 어리둥절해 보일 뿐이었다.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몽고메리가 물었다.

“저 너머입니다.” 회색빛 생물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제 법은 없는 건가요?” 원숭이인간이 물었다. “여전히 이런저런 법을 지켜야 하나요? 그분이 정말로 돌아가신 건가요?”

“법이 있단 말인가?” 흰 옷을 입은 남자가 되물었다. “채찍을 든 다른 존재여, 법이 있단 말인가?”

“그는 죽었어.” 털이 숭숭 난 회색빛 형체가 말했다. 그러자 그들 모두가 우리를 지켜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프렌딕,” 몽고메리가 흐릿한 눈을 나에게 돌리며 말했다. “분명히 죽었군.”

나는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들 뒤에 서 있었다. 그 대화를 들으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서서히 파악하기 시작했다. 나는 갑자기 몽고메리 앞으로 걸어 나가 목소리를 높였다.

“법의 아이들아!” 내가 말했다. “그는 죽지 않았다!”

음링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그는 형체를 바꾸었다. 몸을 바꾸었던 말이다.” 나는 말을 이었다. “당분간은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저기 있다.” 나는 위쪽을 가리켰다. “저곳에서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너희는 그를 볼 수 없지만, 그는 너희를 볼 수 있다. 법을 두려워하라!”

나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들은 움찔하며 몸을 피했다.

“그분은 위대하시고, 선하시다.” 유인원인간이 울창한 나무 사이로 위를 두려운 듯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러면 그 다른 것은 어찌 되었습니까?” 내가 다그치듯 물었다.

“피를 흘리며 비명을 지르고 흐느끼며 도망치던 그 존재도, 이제는 죽었습니다.” 회색빛 존재가 여전히 나를 응시하며 말했다.

“그거 잘됐군.” 몽고메리가 툭툭거리듯 말했다.

“채찍을 든 다른 존재가…….” 회색빛 형체가 입을 뗐다.

“그래서요?” 내가 물었다.

“그가 죽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몽고메리는 내가 왜 모로 박사의 죽음을 부정하는지 그 의도를 알아차릴 만큼은 여전히 제정신이였다. “그는 죽지 않았어.” 몽고메리가 천천히 말했다. “전혀 죽지 않았단 말이야. 내가 살아 있는 것만큼이나 그도 살아 있어.”

“어떤 이들은 법을 어겼으니 죽게 될 것이고, 이미 죽은 이들도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이제 그가 버린 옛 몸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서 내버린 그 몸 말입니다.”

“바다를 걸어온 인간이여, 이쪽이라네.” 그 회색 형체가 말했다.

여섯 마리의 생물들이 길을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양치식물과 덩굴, 나무줄기가 뒤엉킨 소란스러운 숲을 헤치며 북서쪽으로 나아갔다. 그때 갑자기 나뭇가지 사이에서 비명과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분홍빛을 띤 작은 호문클루스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다. 뒤이어 피칠갑을 한 괴물이 그 뒤를 맹렬히 쫓으며 나타났다. 놈은 미쳐 멈추기도 전에 우리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회색 형체가 옆으로 튀어 올랐다. 음링이 으르렁거리며 놈에게 달려들었으나 곧바로 튕겨 나갔다. 몽고메리는 총을 쏘지만 빗나갔고, 고개를 숙인 채 팔을 들어 올리더니 도망치려 몸을 돌렸다. 내가 총을 쏘으나 괴물은 여전히 달려들었다. 나는 다시 한번 놈의 흉측한 얼굴을 향해 영

거리 사격을 가했다. 순간 놈의 이목구비가 순식간에 뭉개지는 것이 보였다. 얼굴이 그대로 함몰된 것이다. 하지만 괴물은 나를 지나쳐 몽고메리를 움켜쥐었다. 놈은 몽고메리를 붙든 채 그와 함께 앞으로 고꾸라졌고, 죽어가는 몸부림 속에서 몽고메리를 제 위로 끌어당겨 엉망으로 짓눌러 버렸다.

내 곁에는 음령과 죽은 짐승, 그리고 쓰러진 남자뿐이었다. 몽고메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옆에 있는 처참하게 망가진 짐승인간을 멍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광경을 보자 그는 술기운이 절반 이상 가신 듯했다. 그는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잿빛 형체가 나무 사이를 지나 조심스럽게 돌아오는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다.

“보십시오.” 내가 죽은 짐승을 가리키며 말했다. “법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법을 어겼기에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시신을 유심히 살폈다. “그가 죽음을 부르는 불을 보내셨도다.” 그는 의식의 일부를 되뇌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이들도 주위로 모여들어 잠시 동안 그 시신을 응시했다.

마침내 우리는 섬의 서쪽 끝자락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우리는 뜯기고 훼손된 퓨마의 사체를 발견했다. 퓨마의 어깨뼈는 총탄에 맞아 으스러져 있었다. 그곳에서 한 20야드쯤 더 나아가자,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찾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모로 박사는 갈대숲의 짓밟힌 빈터에 얼굴을 아래로 향한 채 쓰러져 있었다. 한쪽 손은 손목 부근이 거의 잘려 나갔고, 그의 은빛 머리카락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머리는 퓨마의 족쇄에 맞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짓이겨져 있었다. 그가 누

위 있던 자리 아래의 부러진 갈대들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리볼버는 찾을 수 없었다.

몽고메리가 그를 뒤집어 눕혔다. 모로 박사는 몸집이 큰 편이었기에, 우리는 일곱 명의 짐승인간의 도움을 받아 간간히 휴식을 취하며 그를 울타리 안으로 옮겼다. 밤은 어둑어둑했다. 보이지 않는 생물들이 우리 일행 곁을 지나며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두 번 들렸다. 한 번은 작고 분홍빛을 띤 나무늘보 같은 생물이 나타나 우리를 뺨히 응시하다가 다시 사라지기도 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공격은 없었다.

울타리 문 앞에 이르자 짐승인간 무리가 우리를 떠났고, 음령도 다른 이들과 함께 그들을 따라갔다. 우리는 문을 잠근 뒤, 모로 박사의 훼손된 시신을 마당으로 가져가 땔나무 더미 위에 뉘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실험실로 들어가 그곳에서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처단했다.

제XIX장

몽고메리의 "은행 휴업일"

그 일이 마무리되고 몸을 씻고 식사까지 마친 뒤, 몽고메리와 나는 내 작은 방으로 들어가 처음으로 우리의 처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시간은 자정이 다 되어 있었다. 그는 술이 거의 깨 있었지만, 마음은 몹시 불안해 보였다. 그는 모로의 인격에 기묘할 정도로 압도되어 있었다. 모로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에게 전혀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번 재앙은 그가 이 섬에서 보낸 십 년 남짓한 단조로운 세월 동안, 이미 자신의 본성 일부가 되어버린 습관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사건이었다. 그는 말을 모호하게 늘어놓았고, 내 질문에는 엉뚱하게 대답했으며, 이야기는 자꾸만 겹돌았다.

"이 어리석은 세상 같으니라고." 그가 말했다.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야! 난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본 적도 없어. 내 진짜 삶은 대체 언제 시작되는 걸까? 16년 동안은 유모들과 교사들에게 그들 마음대로 휘둘리며 괴롭힘만 당했지. 런던에서는 5년 동안 의학 공부를 하느라 고생

했어. 형편없는 음식, 초라한 숙소, 남루한 옷차림, 그리고 저급한 유흥까지. 실수도 했지. 그때는 더 나은 걸 몰랐으니까. 그러다 이 지긋지긋한 섬으로 떠밀려 왔고. 벌써 여기서 10년이라니! 프렌딕,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지? 우리는 그저 아기가 붙어대는 비눗방울 같은 존재인 뿐인가?"

그런 헛소리를 상대하기란 쉽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내가 말했다. "이 섬에서 어떻게 탈출하느냐 하는 문제야."

"도망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난 버림받은 몸이야. 내가 대체 어디로 가서 합류할 수 있단 말인가? 프렌딕, 자네라면 상황이 다르겠지. 불쌍한 모로 박사님을 보게! 박사님을 여기 버려두어 짐승들이 뼈를 갉아먹게 할 수는 없네. 지금 상황도 충분히 최악인데 말이야. 게다가, 짐승인간들 중 선량한 이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럼," 내가 말했다. "내일 하면 되겠군. 내 생각에는 땀감을 모아 장작더미를 만든 다음, 그의 시신과 그 다른 것들을 함께 태워버리면 어떨까 싶어. 그렇게 하면 짐승인간들은 어떻게 될까?"

"나도 모르겠네. 포식자 출신인 놈들은 조만간 제풀에 못 이겨 멍청한 짓이나 해대겠지. 그렇다고 그놈들을 전부 몰살할 수는 없지 않은가? 자네의 그 고결한 인류애라면 아마 그렇게 하라고 권하겠지? 하지만 그들도 변할 걸세. 분명히 변하고야 말 거야."

그는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이랬다저랬다 말을 늘어놓았고, 결국 참다 못한 내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제기랄!" 내가 짜증을 내자 그가 외쳤다. "내가 자네보다 더 곤란한 처지라는 게 안 보이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브랜디를 가지러 갔다. 다시 돌아온 그가 말했다. "마셔! 논리나 따지고 앉아 있는, 얼굴이 창백한 무신론자 성자님, 어서 마시란 말이야!"

"난 아니야."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는 노란 파라핀 불빛 아래에서 그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비참함에 빠져드는 동안, 그의 얼굴을 엄숙한 표정으로 지켜보며 앉아 있었다.

끝도 없이 지루한 기억이 하나 있다. 그는 짐승인간들과 음령을 옹호하며 감상적인 변명을 늘어놓았다. 음령이야말로 자신을 진심으로 돌봐준 유일한 존재였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제기랄!" 그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키더니 브랜디 병을 움켜쥐며 말했다.

"짐승 같으니!" 그가 외쳤다. "짐승은 바로 너야. 그는 그리스도인처럼 술을 마신단 말이다. 비켜라, 프렌딕!"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가 말했다.

"비켜!" 그가 포효하며 갑자기 리볼버를 꺼내 들었다.

"좋아." 나는 그렇게 말하며 옆으로 물러났다. 그가 문고리에 손을 대는 순간 달려들어 그를 덮칠 생각도 잠시 했으나, 아무짝에도 쓸모없

는 내 팔을 떠올리고는 마음을 접었다. “짐승처럼 굴기로 작정했다면, 짐승들에게나 가버려라.”

그가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노란 등불 빛과 창백한 달빛 사이에서 그가 몸을 반쯤 돌린 채 서 있었다. 까칠한 눈썹 아래로 움푹 팬 눈가는 검은 얼룩처럼 어두웠다.

"프렌딕, 자네는 정말 고리타분하고 멍청한 놈이야! 맨날 겁먹고 쓸데없는 상상이나 해대고 말이지. 우린 지금 벼랑 끝에 와 있다고. 난 내 일이면 분명 내 손으로 목을 긋고 말 거야. 그러니 오늘 밤은 아주 끝내주게 즐겨야겠어." 몽고메리는 몸을 돌려 달빛이 비치는 밖으로 나갔다. 그는 외쳤다. "음링! 음링, 나의 오랜 친구여!"

은은한 빛이 감도는 해변 가장자리를 따라, 희미한 형체 세 개가 다가왔다. 하나는 하얀 천에 싸인 듯한 형체였고, 나머지 둘은 그 뒤를 따르는 검은 얼룩 같았다. 그들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뵈듯 응시했다. 그때 집 모퉁이를 돌아 나오는 음링의 굵은 어깨가 보였다.

“마셔!” 몽고메리가 외쳤다. “마셔라, 이 짐승들아! 마시고 인간이 되어라! 젠장, 내가 제일 똑똑해. 모로는 이걸 놓쳤어. 이게 바로 마지막 한 수라고. 마시란 말이다!” 그는 손에 든 병을 휘두르며 서쪽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달려 나갔다. 음링은 몽고메리와 그 뒤를 따르는 희미한 형체의 생물 세 마리 사이를 가로막듯 서서 뒤따랐다.

나는 문가로 다가갔다. 몽고메리가 발걸음을 멈추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달빛이 서린 안개 속에서 형체가 흐릿해져 있었다. 나는 그가 음

링에게 독한 브랜디를 한 잔 건네는 것을 보았고, 이어서 다섯 형체가 하나의 모호한 덩어리로 녹아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노래해!” 몽고메리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다 함께 노래하는 거야, ‘늙은 프렌딕을 저주하라!’ 그래, 바로 그거야. 자, 다시 한번, ‘늙은 프렌딕을 저주하라!’”

검은 무리는 다섯 갈래로 흩어지더니, 빛나는 백사장을 따라 나에게서 멀리 천천히 사라져 갔다. 그들은 저마다 마음껏 울부짖으며 나를 향해 모욕 섞인 짓음 소리를 내뿜었다. 브랜디가 불러일으킨 새로운 충동을 분출하려는 듯, 각자 원하는 대로 소리를 질러댔다. 이윽고 몽고메리의 "우향우!"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그들은 고함과 울부짖음을 내지르며 육지 쪽 숲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느릿하게, 그 소리들은 멀어지며 정적 속으로 잦아들었다.

밤의 평온한 광채가 다시금 찾아왔다. 달은 이미 남중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보름달은 텅 빈 푸른 하늘을 가로지르며 아주 밝게 빛났다. 내 발치에는 한 야드 너비의 철흑 같은 벽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동쪽 바다는 아무런 형체도 없이 어둡고 신비로운 회색 빛이었다. 바다와 그림자 사이에는 화산 유리와 결정체로 이루어진 회색 모래가 다이아몬드 해변처럼 번뜩이며 빛났다. 내 뒤편에서는 파라핀 등잔이 뜨겁고 붉은 빛을 내뿜으며 일렁였다.

나는 문을 닫고 잠근 뒤, 모로 박사가 최근의 희생양들 곁에 누워 있는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 희생양들은 사냥개와 라마, 그리고 다른 비참한 짐승들이었다. 모로 박사는 그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고도 거대한

얼굴에 평온함을 띠고 있었으며, 부릅뜬 딱딱한 눈은 머리 위로 떠 있는 죽은 듯 하얀 달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세면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은빛 광채와 불길한 그림자가 뒤섞인 그 소름 끼치는 광경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침이 되면 작은 배에 식량을 좀 싣고, 눈앞의 장작더미에 불을 붙인 뒤, 다시 한번 망망대해의 황량함 속으로 배를 밀어 나가리라. 몽고메리에게는 더 이상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진정 이 짐승인간들과 반쯤 닮아 있었으며, 인간의 동족과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다. 한 시간 정도는 흘렀을 것이다. 그러다 몽고메리가 내 근처로 돌아오면서 나의 구상은 중단되었다. 수많은 목소리가 지르는 외침이 들려왔다. 해변을 향해 쏟아져 내려오는 환희에 찬 함성이 소란스럽게 울려 퍼졌다. 환호와 울부짖음, 그리고 물가 근처에서 멈춘 듯한 격앙된 비명 소리가 뒤섞였다. 소란은 파도처럼 일었다가 잦아들기를 반복했다. 무거운 타격음과 나무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도 들렸으나, 그때의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이윽고 불협화음을 이루는 노래가 시작되었다.

탈출할 방법을 생각하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등불을 들고 창고로 향했다. 아까 보았던 통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다 우연히 비스킷 통들이 눈에 들어와 호기심이 생겼고, 그중 하나를 열어보았다. 그때 곁눈질로 무언가 붉은 형체가 스치는 것이 보였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돌렸다.

내 뒤로는 달빛을 받아 흑백의 대비가 선명한 마당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에는 모로 박사와 그가 난도질한 희생자들이 겹겹이 쌓인 채 나무더미와 땔감 위에 놓여 있었다. 마치 마지막 순간에 서로를 향한 복수심으로 으스스하게 붙들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박사의 상처는 밤처럼 검게 벌어져 있었고, 흘러나온 피는 모래 위에 검은 얼룩으로 고여 있었다.

그때 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환영의 원인을 목격했다. 맞은편 벽 위로 붉은 빛이 나타나 춤을 추듯 일렁이다가 사라졌다. 나는 그것을 내 등불이 반사된 것이라 착각하고, 다시 창고 안의 물건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팔 하나가 없는 몸으로도 할 수 있는 한, 나는 창고 안을 뒤지며 내일 배를 띄울 때 쓸 만한 물건들을 이것저것 찾아내어 한쪽에 모아 두었다. 움직임은 더뎠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 새벽빛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낮게 읊조리던 소리가 잦아들더니 이내 소란스러운 소음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러다 다시 노래가 시작되더니, 갑자기 거친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쳤다. "더! 더!" 하고 외치는 소리와 싸우는 듯한 소음, 그리고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다. 소리의 성질이 너무나 급격히 변한 탓에 나는 정신이 팔려 그 소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마당으로 나가 귀를 기울였다. 그때, 혼란스러운 소음들을 단칼에 베어버리듯 권총 발사음이 울려 퍼졌다.

나는 곧장 방을 가로질러 작은 문으로 달려갔다. 내가 달려가는 사이, 뒤편에서 포장 상자 몇 개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

어 창고 바닥에 유리가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박살 났다. 하지만 나는 그 소리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나는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밖을 내다보았다.

보트 보관소 옆 해변 위로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불꽃은 새벽의 희미한 어둠 속으로 흩뿌려졌다. 그 주변에서는 검은 형체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몽고메리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즉시 권총을 손에 쥐고 불빛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지면 가까이에서 몽고메리의 권총 끝이 분홍빛 불꽃을 한 번 내뿜는 것이 보였다. 그는 쓰러졌다. 나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며 허공에 총을 쏘았다. 누군가 "주인님!"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뒤엉켜 싸우던 검은 형체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모닥불은 일렁이다가 사그라들었다. 짐승인간 무리는 갑작스러운 공포에 질려 해변 위쪽으로 나를 피해 달아났다. 나는 흥분한 나머지 덩불 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향해 총을 쏘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바닥에 쓰러진 검은 더미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몽고메리는 등을 대고 누워 있었고, 털이 덩수룩하고 회색빛이 도는 짐승인간이 그의 몸 위로 널브러져 있었다. 짐승은 죽었으나, 구부러진 발톱만은 여전히 몽고메리의 목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 근처에는 음링이 엮드린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음링의 목은 물려 터져 있었고, 손에는 박살 난 브랜디 병의 윗부분이 쥐어져 있었다. 모닥불 근처에는 다른 두 형체가 더 있었다. 한 명은 움직임이 없었고, 다른 한 명은 간헐적으로 신음하며 때때로 머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다시 툭 떨어뜨리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나는 회색빛을 띤 사내를 붙잡아 몽고메리의 몸 위에서 끌어내었다. 내가 그를 멀리 끌어당기자, 사내의 발톱이 마지못한 듯 찢어진 코트 자락을 아래로 긁어내렸다. 몽고메리의 얼굴은 검게 변해 있었고 숨도 거의 쉬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에 바닷물을 끼얹고, 말아 놓은 코트를 베개 삼아 그의 머리를 받쳐주었다.

음링은 죽어 있었다. 모닥불 옆에 있던 상처 입은 생물은 수염이 난 회색 얼굴을 한 늑대짐승이었다. 확인해 보니 그 짐승은 몸 앞부분이 여전히 불꽃이 일렁이는 장작더미 위에 놓인 채 쓰러져 있었다. 가엾은 생물이 너무나 처참하게 다쳐 있었기에, 나는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그 짐승의 머리를 쏘아 즉시 숨을 끊어 주었다. 흰 천에 싸여 있던 황소 짐승인간 중 하나도 죽어 있었다. 그 역시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나머지 짐승인간들은 해변에서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다시 몽고메리에게 다가가 그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의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내 무지함이 원망스러워 욕설이 절로 나왔다. 곁에 두었던 불은 이미 사그라들어, 가운데 끝부분이 검게 탄 나무 기둥들만이 잿빛 덩불 재와 뒤섞인 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문득 몽고메리가 이런 땀감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궁금해졌다. 그러다 문득 동이 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늘은 점점 밝아졌고, 지고 있는 달은 낮의 빛나는 푸른빛에 묻혀 창백하고 불투명하게 변해갔다. 동쪽 하늘 가장자리에는 붉은 빛이 감돌고 있었다.

갑자기 뒤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췌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뒤를 돌아보며 비명을 질렀고, 그대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따스한

새벽빛을 등지고 울타리 안에서는 검은 연기가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솟구치고 있었다.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연기의 어둠 사이로 핏빛 불꽃이 가느다란 줄기처럼 번뜩였다. 곧이어 초가 지붕에 불이 붙었다. 경사진 짙은 위로 불길이 휘어지며 달려드는 모습이 보였다. 내 방 창문에서도 불꽃이 뿔어져 나왔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시 알 수 있었다. 아까 들었던 충돌음이 떠올랐다. 몽고메리를 도우러 급히 달려 나가다가 램프를 넘어뜨리고 만 것이다.

울타리 안의 물건들 중 어느 하나도 구해낼 수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이 내 눈앞을 가로막았다. 나는 도망칠 계획을 떠올리며 급히 몸을 돌려 해변에 놓여 있어야 할 보트 두 척을 찾았다. 하지만 보트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내 곁의 모래사장 위에는 도끼 두 자루가 놓여 있었다. 주변에는 나무 파편과 부스러기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고, 모닥불의 재는 동이 터 오는 새벽빛 아래 검게 변하며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몽고메리가 나에게 복수하고 우리가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트들을 태워버린 것이 분명했다!

갑작스러운 분노가 나를 뒤흔들었다. 내 발치에 무력하게 쓰러져 있는 그의 어리석은 머리를 당장이라도 짓밟개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때 돌연 그의 손이 움직였다. 너무나도 힘없고 가련한 움직임이었다. 그 모습에 나의 분노는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는 신음하며 잠시 눈을 떴다. 나는 그의 곁에 무릎을 꿇히고 앉아 그의 머리를 들어 올렸

다. 그는 다시 눈을 뜨고 말없이 동트는 새벽을 응시하더니, 이내 내 눈과 마주쳤다. 그리고는 눈꺼풀이 힘없이 내려앉았다.

“미안하군.” 그가 이윽고 애써 말을 내뱉었다. 그는 무언가 생각하려는 듯 보였다. “마지막이야.” 그가 중얼거렸다. “이 어리석은 우주의 마지막이지. 정말 엉망진창이군—”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툭 떨어졌다. 마실 것을 좀 주면 기운을 차릴까 생각했지만, 마실 것도, 그것을 담아 올 그릇도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몸은 갑자기 더 무겁게 느껴졌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 내렸다. 나는 그의 얼굴 쪽으로 몸을 굽히고, 찢어진 블라우스 사이로 손을 밀어 넣었다. 그는 죽어 있었다.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태양의 광휘가 동쪽 만의 돌출부 너머로 솟아올랐다. 한 줄기 하얀 열기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찬란한 빛을 뿌렸고, 어두운 바다는 눈부신 빛이 소용돌이치는 격동의 바다로 변했다. 그 빛은 죽음으로 수척해진 그의 얼굴 위로 마치 영광처럼 쏟아져 내렸다.

나는 그의 머리를 내가 만들어준 거친 베개 위에 부드럽게 누인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앞에는 반짝이는 바다의 황량함이 펼쳐져 있었다. 이미 나를 수없이 괴롭혔던 그 끔찍한 고독이 눈앞에 가득했다. 등 뒤로는 새벽빛 아래 고요에 잠긴 섬이 있었다. 그곳의 짐승인간들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고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식량과 탄약이 가득했던 우리(enclosure)는 불길이 갑자기 치솟을 때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타올랐다. 불꽃은 간헐적으로 탁탁 소리를 냈고, 이따금 쿵 하는 굉음이 들려왔다. 자욱한 연기는 나를 피해 해변 너머로 흩어지더니,

멀리 나무 꼭대기를 낮게 훑으며 협곡의 오두막들을 향해 굴러갔다. 내 곁에는 불에 탄 배의 잔해들과 다섯 구의 시신이 놓여 있었다.

그때 덩불 속에서 짐승인간 세 마리가 나타났다. 굽은 어깨와 푹 튀어나온 머리, 기괴하게 뒤틀린 손을 어색하게 내민 채, 그들은 호기심 어리면서도 적대적인 눈빛으로 망설이듯 나를 향해 다가왔다.

제XX장

짐승인간들과 홀로 남다.

나는 그들을 마주했다. 그들 속에서 나의 운명을 직시하며, 이제는 홀로 맞서야 했다. 팔이 부러진 상태였으니 말 그대로 완전히 혼자였다. 주머니 안에는 총알이 두 발이나 비어 있는 리볼버 한 자루가 들어 있었다. 해변 여기저기에 흩어진 나무 파편들 사이에는 배를 부술 때 사용했던 도끼 두 자루가 놓여 있었다. 등 뒤로는 밀물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다. 용기를 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나는 다가오는 괴물들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짐승인간들은 내 눈을 피했다. 대신 그들은 떨리는 콧구멍을 찔룩거리며 내 뒤편 해변에 쓰러져 있는 시신들을 살폈다. 나는 대여섯 걸음을 옮겨 늑대인간의 시신 아래 놓여 있던 피 묻은 채찍을 집어 들고는, 공중을 향해 채찍을 휘둘렀다. 그러자 그들이 동작을 멈추고 나를 뺴히 바라보았다.

“경례!” 내가 외쳤다. “머리를 숙여라!”

그들은 주춤거렸다. 그중 한 명이 무릎을 굽혔다. 나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명령을 되풀이했고, 그들을 향해 다가갔다. 한 명이 무릎을 꿇자, 나머지 두 명도 뒤따라 무릎을 꿇었다.

나는 몸을 돌려 시신들이 놓인 곳으로 걸어갔다. 무대 위를 지나가는 배우가 관객을 향해 몸을 트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있는 세 명의 짐승인간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걸음을 옮겼다.

“그들이 법을 어겼다.” 나는 법을 외치는 자의 시신을 발로 밟으며 말했다.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 법을 외치는 자도, 채찍을 든 다른 자도 죽었다. 법은 위대하다! 어서 와서 직접 보아라.”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해." 그들 중 한 명이 다가와 유심히 살피며 말했다.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다.” 내가 말했다. “그러니 내 명령을 듣고 그대로 따르라.” 그들은 서로 의아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기 서 있어.” 내가 말했다.

나는 도끼들을 집어 들어 그 머리 부분을 팔걸이 끈에 걸어 늘어뜨렸다. 그러고는 몽고메리를 뒤집어 눌렀다. 그의 리볼버를 집어 드니 아직 두 발의 탄환이 들어 있었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주머니를 뒤졌고, 그 안에서 탄약 여섯 발을 찾아냈다.

“저놈을 잡아라.” 나는 다시 일어나 채찍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놈을 잡아다가 밖으로 끌고 나가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들은 앞으로 다가왔다. 분명 몽고메리가 여전히 두려운 모양이었으나, 내가 휘두르는 붉은 채찍 소리에는 더 큰 공포를 느끼는 듯했다. 한참을 더듬거리며 주저하고,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를 지른 끝에야 그들은 그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를 해변으로 실어 나른 뒤, 눈부시게 일렁이는 바다 속으로 침병거리며 들어갔다.

“계속해!” 내가 외쳤다. “계속하라고! 그를 멀리 데려가 버려!”

그들은 겨드랑이까지 물속에 잠긴 채 나를 뵈히 바라보며 서 있었다.

“놓아줘.” 내가 말했다. 그러자 몽고메리의 몸이 침병 소리를 내며 물속으로 사라졌다. 가슴을 무언가가 짝 죄어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좋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그들은 은빛 물결 위로 검은 물길을 길게 남기며, 서둘러 겁에 질린 채 물가로 되돌아왔다. 물가에 멈춰 선 그들은 마치 곧 몽고메리가 바다에서 솟아올라 복수를 가할 것이라도 되는 양, 몸을 돌려 바다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이제 이것들이다.” 나는 다른 사체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들은 몽고메리를 물속에 던져버린 곳에는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했다. 대신 죽은 짐승인간 네 구를 들고 해변을 따라 비스듬히 백 야드쯤 운반한 뒤,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들을 멀리 던져버렸다.

그들이 음령의 처참하게 짓이겨진 사체를 치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 등 뒤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다. 급히 몸을 돌리자, 약 12야드 떨어진 곳에 커다란 하이에나-돼지가 서 있었다. 놈은 고개를 숙인 채 번뜩이는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고, 짧고 뭉툭한 손은 옆구리에 바짝 붙인 채 짝 움켜쥐고 있었다. 내가 돌아보자 놈은 눈길을 살짝 피하며 웅크린 자세 그대로 멈춰 섰다.

잠시 동안 우리는 서로 눈을 맞추며 대치했다. 나는 채찍을 떨어뜨리고 주머니 속의 권총을 움켜쥐었다. 섬에 남은 존재 중 가장 위협적인 이 짐승을, 기회만 생기면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다. 비겁한 행동처럼 보일지 모르나, 나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나는 다른 짐승인간 둘을 합친 것보다도 그놈이 훨씬 더 두려웠다. 그놈이 살아있는 한, 내 목숨은 언제나 위태로울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정신을 가다듬는 데 아마 십여 초는 걸렸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나는 외쳤다. “경례! 머리를 숙여라!”

그가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다. “네놈은 대체 누구냐, 감히 나에게—”

나는 아마도 너무 경황이 없었던 모양이다. 리볼버를 뽑아 들자마자 재빨리 조준하여 방아쇠를 당겼다. 그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고, 옆으로 비껴 뛰며 방향을 트는 모습이 보였다. 빗나갔음을 직감한 나는 다음 발을 쏘기 위해 엄지손가락으로 공이를 뒤로 젖혔다. 하지만 그는 이미 옆으로 요동치며 미친 듯이 달려나가고 있었기에, 또다시 빗나가는 위험을 감수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는 이따금 어깨 너머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는 해변을 따라 비스듬히 달려가더니, 불타는 율타리에서 여전히 뿔어져 나오는 짙은 연기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나는 한동안 그가 사라진 곳을 멍하니 응시하며 서 있었다. 그러고는 다시 내 명령에 복종하는 세 명의 짐승인간에게 다가가, 그들이 들고 있던 사체를 내려놓으라고 신호를 보냈다. 이어 나는 시체들이 쓰러져 있던 불가로 돌아가, 갈색 혈흔이 모두 스며들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모래를 발로 찼다.

나는 손을 휘저어 세 명의 하인을 물러가게 한 뒤, 덩불이 우거진 해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손에는 권총을 들었고, 팔에 멘 가죽 끈에는 도끼와 함께 채찍을 꽂아 두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간절했다.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한 끔찍한 사실이 하나 있었다. 이 섬 어디에도 혼자서 안심하고 쉬거나 잠들 수 있는 안전한 곳은 없다는 점이였다. 상륙한 이후 기운을 놀랍게 회복하긴 했으나, 나는 여전히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불안해지고 무너질 것만 같았다. 섬을 가로질러 짐승인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의 신뢰를 얻고 몸을 의탁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해변으로 돌아왔다. 뜨거운 열기가 뿔어져 나오는 울타리를 지나 동쪽으로 향했고, 산호 모래가 암초를 향해 얇게 뻗어 나간 지점을 찾아갔다. 그곳에 앉으면 바다를 등진 채 어떤 돌발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그곳에 앉아 무릎에 턱을 괴었다. 머리 위로는 태양이 내리쬘고 있었고,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휘몰아쳤다. 구조될 날이 오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조될 때까지 살아남을 방법을 궁리했다.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되짚어 보려 애썼으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란 쉽지 않았다.

나는 몽고메리가 왜 그토록 절망하는지 그 이유를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다. “그들은 변할 겁니다.” 그가 말했다. “분명히 변하고 말 거예요.” 그렇다면 모로 박사는 뭐라고 했더라? “완고한 짐승의 살점이 날마다 다시 되살아나고 있네.” 그러고 나서 나는 하이에나-돼지를 떠올렸다. 저 짐승을 죽이지 않으면, 반대로 저놈이 나를 죽이고 말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설상가상으로 법을 외치는 자마저 죽고 말았다. 이제 짐승인간들은 채찍을 든 우리도 자신들처럼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 저 너머 무성한 고사리와 야자수 숲 사이에서 벌써 나를 엿보며, 내가 덮칠 수 있는 거리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를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이에나-돼지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상상력이 건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나는 실체 없는 공포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울타리 근처 해변에 파도가 밀어다 놓은 검은 물체를 향해 바다새들이 몰려들며 울어댔다. 그 울음소리 때문에 내 생각은 흐트러지고 말았

다. 그 물체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다시 돌아가 새들을 쫓아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해변을 따라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덩불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를 매복 지점들을 가로지르는 대신, 섬의 동쪽 모퉁이를 돌아 오두막들이 모여 있는 협곡으로 접근할 생각이었다.

해변을 따라 반 마일쯤 더 나아갔을까, 육지 쪽 덩불 사이에서 짐승 인간 한 마리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세 마리의 짐승인간 중 하나였다. 나는 이미 내 상상력에 사로잡혀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기에, 즉시 리볼버를 꺼내 들었다. 그 생명체가 나를 달래려는 듯 몸짓을 해 보였지만, 나는 경계를 풀지 않았다. 짐승인간은 다가오다가 머뭇거리며 멈춰 섰다.

“가버려!” 내가 외쳤다.

그 생명체가 몸을 잔뜩 움츠린 모습은 마치 개를 연상시켰다. 녀석은 집으로 쫓겨나는 개처럼 뒤로 조금 물러나더니, 멈춰 서서 개를 닮은 갈색 눈으로 나를 애처롭게 바라보았다.

“가버려.” 내가 말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가도 될까요?” 그것이 물었다.

“아니, 저리 가!” 나는 단호하게 외치며 채찍을 휘둘렀다. 그러고는 채찍을 입에 문 채 돌맹이를 줍기 위해 몸을 굽혔다. 나는 그 위협적인 몸짓으로 짐승을 쫓아버렸다.

나는 홀로 짐승인간들의 협곡을 돌아갔다. 그리고 바다와 이 틈새를 가르는 수풀과 갈대 사이에 몸을 숨긴 채, 나타나는 짐승인간들을 지켜 보았다. 그들의 몸짓과 외양을 살피며, 모로 박사와 몽고메리의 죽음 그리고 고통의 집이 파괴된 사건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가늠해 보려 애썼다.

이제 와 생각하니 나의 겁쟁이 같은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 것 같다. 만약 내가 동이 틀 무렵의 용기를 끝까지 유지했더라면, 고독한 생각에 빠져 용기를 잃지 않았더라면, 나는 모로 박사가 남긴 빈 왕좌를 차지하여 짐승인간들을 다스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결국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고, 그저 동료들 사이의 평범한 지도자 자리에 머물고 말았다.

정오 무렵, 짐승인간 중 몇몇이 다가오더니 뜨거운 모래 위에 쪼그려 앉아 햇볕을 쬐기 시작했다. 허기와 갈증이 몰려오는 강렬한 욕구는 내 안의 공포를 압도했다. 나는 권총을 손에 쥔 채 덩불 속에서 나와, 앉아 있는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늑대인간 한 마리가 고개를 돌려 나를 뵈듯 쳐다보았고, 곧이어 다른 이들도 일제히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누구도 일어나거나 내게 예를 갖추려 하지 않았다. 나는 너무나 기운이 없고 지쳐 있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그 순간을 흘려보냈다.

“음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거의 미안하다는 듯이 말하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오두막에 음식이 있다네.” 황소멧돼지인간이 나에게서 시선을 돌린 채 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들을 지나쳐, 거의 사람의 발길이 끊긴 협곡의 어스름과 악취 속으로 내려갔다. 텅 빈 오두막에 들어간 나는 반쯤 썩어 점박이가 생긴 과일 몇 개를 먹으며 허기를 달랬다. 그리고 나서 입구 쪽에 나뭇가지와 막대기들을 대충 세워 막아둔 뒤, 입구를 마주 보고 앉아 손을 리볼버에 얹었다. 지난 서른 시간 동안 쌓인 피로가 결국 나를 덮쳤다. 나는 얇은 잠에 빠져들며, 내가 세워둔 허술한 방어벽이 누군가 치우려 할 때 충분한 소리를 내어 기습을 막아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제XXI장

짐승인간의 퇴행.

그렇게 나는 모로 박사의 섬에서 짐승인간 무리 중 하나가 되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은 온통 어둠뿐이었다. 붕대를 감은 팔에서는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의아해하며 몸을 일으켜 앉았다. 밖에서는 거친 목소리들이 무언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다 문득 내가 쌓아두었던 방어벽이 사라졌고, 오두막 입구가 흰히 뚫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손에는 여전히 리볼버가 쥐어져 있었다.

무언가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고, 내 바로 옆에 무언가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숨을 죽였다. 그것은 끝도 없이 느릿느릿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 부드럽고 따뜻하며 축축한 무언가가 내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다. 온몸의 근육이 수축했다. 나는 황급히 손을 떼어냈다. 비명이 터져 나오려다 목구멍 안에서

찾아들었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나는 권총을 쥔 손가락을 멈출 수 있었다.

“누구나?” 나는 리볼버를 겨누 채 쉼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 내가…… 주인님.”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이제 주인님은 계시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바다를 걷는 자여, 당신이 죽인 자들의 시신을 제가 바다로 실어 날랐습니다! 저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주인님.”

“해변에서 만났던 분이 당신인가요?” 내가 물었다.

“네, 바로 그놈입니다, 주인님.”

그 존재는 분명 충분히 충직했다. 마음만 먹었다면 내가 잠든 사이에 나를 덮칠 수도 있었을 테니 말이다. 나는 다시 한번 활는 듯한 입맞춤을 받으려 손을 내밀며 말했다. “괜찮아.” 그 존재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 시작하자, 용기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물었다. “다른 이들은 어디 있지?”

“그들은 미쳤어요. 다들 바보들이라고요.” 개를 닮은 짐승인간이 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너머에서 자기들끼리 떠돌고 있어요. ‘주인이 죽었다. 채찍을 든 다른 이도 죽었다. 바다를 걸었던 그 다른 이도 우리와 다를 바 없다. 이제 우리에게겐 주인도, 채찍도, 고통의 집도 없

다.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는 법을 사랑하고 그 법을 지키겠지만, 고통도 주인도 채찍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이에요. 다들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하지만 박사님, 저는 알아요. 저는 다 알고 있다고요.”

나는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짐승인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내가 다시 말했다.

“머지않아 당신은 그들을 모두 죽이겠지요.” 짐승인간이 말했다.

“머지않아,” 내가 대답했다. “모두 죽여버리겠소. 정해진 날이 오고, 정해진 일들이 모두 일어난 뒤에 말ियो. 당신이 살려두기로 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죽여버릴 것이오.”

“주인님께서 죽이려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주인님께서 죽이십니다.” 짐승인간이 목소리에 묘한 만족감을 담아 말했다.

“그들의 죄가 더 깊어지도록,” 내가 말했다. “그들이 죄를 짓는 그 어리석음 속에 머물게 두어라.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말이다. 내가 그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하게 하라.”

“주인님의 뜻은 달콤합니다.” 짐승인간이 말했다. 개로서의 본능이 몸에서 뻗어 나옴, 그는 상황에 맞춰 능숙하게 말을 골랐다.

“하지만 죄를 지은 자가 있소.” 내가 말했다. “그를 다시 만나기만 한다면 반드시 죽여버릴 것이오. 내가 당신에게 ‘저놈이다’라고 말하면, 즉시 그에게 달려드시오. 이제 나는 모여 있는 남녀들에게 가보겠소.”

개-인간이 밖으로 나가면서 잠시 오두막 입구가 검게 가려졌다. 곧 이어 나도 뒤따라 나가 몸을 일으켰다. 모로 박사와 그의 스태그하운드 가 나를 뒤쫓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이제는 밤이었다. 나를 둘러싼 늪지대의 협곡은 온통 칠흑 같았다. 멀리 보이는 곳에는 햇빛을 받아 초록빛으로 빛나던 경사지 대신 붉은 불길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 불길 앞에서는 기괴하게 구부정한 형체들이 이리저리 움직였다. 더 멀리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어둠의 장벽처럼 버티고 서 있었고, 그 위로는 나뭇가지들이 검은 레이스처럼 엉켜 있었다. 달은 막 협곡의 가장자리를 타고 떠오르고 있었다. 섬의 분기 공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증기 기둥은 마치 달의 얼굴을 가로지르는 막처럼 보였다.

“내 곁에서 걷게.” 나는 마음을 다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좁은 길을 따라 내려갔다. 오두막 안에서 우리를 훑쳐보는 희미한 형체들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은 채였다.

불가 근처에 있던 이들 중 누구도 나에게 인사를 건네려 하지 않았다. 대부분은 대놓고 나를 무시했다. 나는 하이에나-돼지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그는 그곳에 없었다. 짐승인간은 대략 스무 명 정도였으며, 그들은 불을 멎하니 응시하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가 죽었다, 그가 죽었어! 주인님이 죽었다!” 내 오른쪽에 있던 유인원 인간이 소리쳤다. “고통의 집—이제 고통의 집은 없다!”

“그는 죽지 않았어!” 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 모습에 그들은 깜짝 놀랐다. 스무 쌍의 눈동자가 일제히 나를 응시했다.

“고통의 집은 사라졌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주인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사이에서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짐승인간이 말했다.

그들은 나의 확신에 찬 태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짐승도 충분히 사납고 교활할 수는 있겠지만, 거짓말을 하는 데는 진짜 인간이 필요한 법이다.

“팔에 붕대를 감은 남자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군.” 짐승인간 중 하나가 말했다.

“정말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말했다. “주인님과 고통의 집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자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그들은 서로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무관심한 척하며 눈앞의 땅을 도끼로 무심하게 찍어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들의 시선이 내가 잔디를 깊게 파헤친 흔적을 향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때 사티로스가 의구심을 제기했다.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그러자 얼룩무늬를 한 존재 중 하나가 반대 의견을 냈고, 모닥불 주위로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지금 내가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흥분이 너무 고조된 나머지 숨이 가빠져 고생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호흡도 안정되었다. 한 시간쯤 지나자 나는 내 주장이 사실임을 몇몇 짐승인간에게 확실히 각인시켰고, 나머지 이들도 대체로 반신반의하는 상태로 만들었다. 나는 나의 적인 하이에나-돼지를 경계하며 눈을 떼지 않았으나,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이따금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될 때마다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자신감은 빠르게 차올랐다. 달이 천정에서 서서히 내려앉자, 이야기를 듣던 이들이 하나둘 하품을 하기 시작했다. 꺼져가는 모닥불 빛에 비친 그들의 치아는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한 명씩, 그리고 또 한 명씩 사람들이 협곡에 있는 굴을 향해 물러갔다. 나는 정적과 어둠이 두려웠기에 그들을 따라갔다. 혼자 있는 것보다 이들 중 몇 명과 함께 있는 편이 훨씬 안전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로 박사의 섬에서 보낸 긴 체류가 시작되었다. 그날 밤부터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사소하고 불쾌한 일들이 이어졌고 끊임없는 불안감이 나를 괴롭혔을 뿐, 딱히 내놓을 만한 사건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 공백의 시간들을 일일이 기록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반쯤 인간이 된 짐승인간들의 측근으로서 보낸 열 달의 시간 중, 가장 결정적인 사건 하나만을 이야기하려 한다.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써 내려갈 수 있는 일들은 아주 많다. 차라리 내 오른손을 내주고

서라도 기꺼이 잊고 싶은 일들이다. 하지만 그런 기억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내가 얼마나 빨리 이 괴물들의 방식에 익숙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그들의 신뢰를 얻었는지 참으로 기이하게 느껴진다. 물론 그들과 다투기도 했고, 여전히 몸에는 그들이 남긴 이빨 자국이 몇 군데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내가 돌을 던지는 수법과 도끼날의 위력을 맞본 뒤로, 짐승인간들은 나를 경외하며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세인트 버나드 개를 닮은 그 사내의 충성심은 내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나는 그들이 가진 단순한 명예 관념이, 주로 얼마나 날카로운 상처를 입힐 수 있느냐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과장이 아니라, 나는 그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우두머리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드물게 기운이 넘치던 시절에 내가 꽤 심한 상처를 입혔던 한두 놈은 나에게 원한을 품기도 했다. 하지만 그 원한은 주로 내 등 뒤에서, 내가 던지는 투척물로부터 안전한 거리에서 험악한 표정을 짓는 정도로만 표출될 뿐이었다.

하이에나-돼지는 나를 피했지만, 나는 언제나 그놈을 경계하며 살폈다. 나의 단짝인 개-인간은 그놈을 몹시 증오하고 두려워했다. 그 짐승이 나에게 집착했던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고 나는 믿는다. 그 괴물이 이미 피 맛을 보았으며, 표범-인간과 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은 금세 분명해졌다. 그놈은 숲 어딘가에 은신처를 만들고 홀로 지냈다. 한때 나는 짐승인간들에게 그놈을 사냥하자고 설득해 보기도 했으나, 그들을 하나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게 할 권한이 내게는 없었다. 나는 그놈의 굴에 몰래 접근해 불시에 마주치려 몇 번이고 시

도했다. 하지만 그놈은 언제나 나보다 감각이 예민했다. 내가 다가가기도 전에 나를 발견하거나 냄새를 맡고는 달아나 버렸다. 그놈은 숲길 곳곳에 매복하며 나뿐만 아니라 나의 동료에게도 모든 길을 위험한 곳으로 만들었다. 개-인간은 감히 내 곁을 떠나지도 못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짐승인간들도 나중에 변해버린 모습에 비하면 제법 인간다웠다. 내 개 친구를 제외하고 한두 명에게는 심지어 우호적인 관용심마저 느꼈을 정도였다. 분홍빛을 띠는 작은 나무늘보 형상의 생물은 나에게 묘한 애정을 보이며 졸졸 따라다녔다. 하지만 원숭이 인간은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그놈은 손가락이 다섯 개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나와 대등한 존재라고 착각하며, 끊임없이 나에게 헛소리를 지껄여댔다. 그중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그놈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기묘한 버릇이 있다는 것이었다. 내 생각에 그놈은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을 떠들며 지내는 것이야말로 언어의 올바른 용법이라고 믿는 듯했다. 그는 일상의 평범하고 이성적인 관심사를 '작은 생각'이라 불렀고, 그와 구분하기 위해 자신이 지껄이는 소리를 '큰 생각'이라고 칭했다. 만약 내가 그놈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면, 그는 그 말을 극찬하며 다시 말해달라고 청했다. 그러고는 그 말을 통째로 외워서, 단어 몇 개를 틀려가며 온순한 짐승인간들에게 떠들고 다니곤 했다. 정작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말이다. 나는 그놈만을 위해 아주 기묘한 '큰 생각'들을 몇 가지 만들어 주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놈은 내가 만난 생물 중 가장 어리석은 존재였다. 원숭이 특유의 천연덕스러운 어리석음을 조금도 잃지 않으면서도, 인

간만이 가진 독특한 어리석음을 아주 경이로운 방식으로 발전시킨 놈이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이 짐승들 사이에서 홀로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그 무렵 짐승인간들은 법에 정해진 관습을 존중했고, 대체로 품위 있게 행동했다. 한 번은 토끼 한 마리가 갈기갈기 찢겨 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 하이에나-돼지 녀석이 그랬다는 확신은 들었지만, 그게 전부였다.

그들의 말투와 몸가짐이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한 것은 5월쯤이었다. 발음은 점점 거칠어졌고, 말하려는 의지조차 점점 사라져 갔다. 내 곁을 지키는 원숭이-인간의 재잘거림은 소리는 커졌으나 알아들을 수는 점점 더 어려워졌고, 갈수록 유인원처럼 변해갔다. 다른 이들 중 일부는 언어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린 듯 보였다. 비록 그 당시에는 내가 하는 말을 여전히 알아듣기는 했지만 말이다. (한때 명확하고 정확했던 언어가 흐릿해지고 꺼져가며, 형태와 의미를 잃고 다시 단순한 소리의 덩어리로 변해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직립 보행 또한 점점 더 힘들어 보였다. 그들 스스로도 분명 수치심을 느끼는 듯했으나, 이따금 발가락과 손가락 끝으로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가 똑바로 서는 자세를 되찾지 못해 허덕이는 짐승인간들을 마주 치곤 했다. 물건을 다루는 손길은 더 서툴러졌고, 빨아 마시거나 갇아 먹는 식습관이 매일같이 흔해졌다. 나는 모로 박사가 내게 말했던 '완고한 짐승의 살점'에 대한 경고를 그 어느 때보다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들은 퇴행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그들 중 일부는 품위를 지키라는 명령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이 흐름을 앞장서서 이끄는 이들은 대부분 여자였다. 대개는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어떤 이들은 일대일의 일부일처제라는 제도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공개적인 망동을 벌이기도 했다. 법의 전통이 명백히 그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더는 이 불쾌한 이야기를 계속할 수가 없다.

나의 개-인간은 어느샌가 다시 개로 변해갔다. 그는 날이 갈수록 말수가 줄어들더니, 네 발로 걷는 털투성이 짐승이 되어갔다. 내 오른편에 앉아 있던 동료는 어느덧 내 곁에서 비틀거리는 개로 변해가는 과정을, 나는 거의 알아채지도 못했다.

날이 갈수록 부주의함과 무질서함이 심해졌다. 거처들이 늘어선 길목은 본래 그리 쾌적한 곳이 아니었으나, 어느덧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황폐해졌다. 결국 나는 그곳을 떠나 섬을 가로질러 갔다. 그리고 모로의 울타리가 겹겹이 무너져 내린 폐허 사이에서 나뭇가지들을 엮어 임시 움막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곳에 남아 있는 고통의 기억 덕분에, 역설적이게도 그곳이 짐승인간들로부터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

이 괴물들이 타락해가는 과정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매일같이 그들에게서 인간의 형상이 어떻게 사라져 갔는지, 그들이 어떻게 봉대와 천 조각을 풀어헤치다 결국 옷 한 자락조차 걸치지 않게 되었는지, 노출된 사지 위로 어떻게 털이 돌아나기 시작했는지, 이마는 어떻게 뒤로 물러나고 얼굴은 앞으로 툭 튀어나오게 되었는지 말이다. 또한, 고독에 사무치던 첫 달에 내가 그들 중 몇몇과 나누었

던, 마치 인간끼리 나누는 듯한 그 친밀함이 이제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서리쳐지는 공포가 되어버린 과정 또한 차마 다 말할 수 없다.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피할 수 없이 찾아왔다. 그들에게도, 나에게도 그 변화는 어떤 급격한 충격과 함께 오지 않았다. 매일같이 인간성을 밀어내며 차오르는 짐승의 폭발적인 본능이 아직은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기에, 나는 여전히 그들 사이를 안전하게 오갈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머지않아 그 충격이 닥쳐올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나의 세인트 버나드 짐승은 매일 밤 나를 따라 우리까지 동행해 주었고, 그 녀석의 경계 덕분에 나는 때때로 평온에 가까운 잠을 잘 수 있었다. 분홍빛을 띤 작은 나무늘보 같은 녀석은 수줍음을 타기 시작하더니 나를 떠나, 다시 나무줄기 사이에서 본래의 삶으로 기어 들어갔다. 우리는 마치 동물 조련사가 전시해 놓은 '행복한 가족' 우리와 같은 상태였다. 조련사가 그 우리를 영영 떠나버린다면, 딱 그 정도의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물론 이 생명체들이 독자가 동물원에서 흔히 보았을 법한 짐승들, 즉 평범한 곰이나 늑대, 호랑이, 황소, 돼지, 혹은 유인원 같은 모습으로 퇴보한 것은 아니었다. 개체마다 무언가 기이한 구석이 남아 있었다. 모로 박사는 이 동물과 저 동물을 하나로 뒤섞어 놓았다. 어떤 것은 주로 곰의 형상을 띠었고, 어떤 것은 고양이과, 또 어떤 것은 소의 형상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다른 생물들의 특징이 스며들어 있었다. 특정한 본성 너머로 온갖 동물의 성질이 뒤섞인 기묘한 야성이 배어 나왔다. 게다가 그들에게 남은 인간성의 파편들은 가끔씩 나를 소스라치게 만들었다. 찰나의 순간 터져 나오는 말소리나, 앞발로 보여

주는 예상치 못한 정교한 움직임, 혹은 직립 보행을 하려는 가련한 시도 같은 것들 말이다.

나 역시 기이한 변화를 겪었음이 분명하다. 옷은 누렇게 변색된 누더기가 되어 몸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고, 그 찢어진 틈 사이로 그을린 피부가 드러났다. 머리카락은 길게 자라 엉망으로 뒤엉켰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지금의 내 눈빛조차 기이할 정도로 번뜩이며 움직임은 무서울 정도로 기민하다고 한다.

처음에는 낮 시간 내내 남쪽 해변에서 배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배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했다. 해가 저물어 가면서 이페카쿠 아냐호가 돌아오리라 믿고 기다렸지만, 그 배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 번이나 돛을 보았고 세 번은 연기를 보기도 했으나, 그 무엇도 이 섬에 닿지 않았다. 나는 언제든지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모닥불을 준비해 두었지만, 사람들은 분명 이 섬이 화산섬으로 알려진 탓에 그 불빛과 연기를 화산 활동쯤으로 여겨 넘겼을 것이다.

뗏목을 만들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건 9월이나 10월쯤이었다. 그때쯤이면 팔도 다 나았고, 양손을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 처음에는 내 무력함이 끔찍하게 느껴졌다. 평생 목공이나 그와 비슷한 일이라곤 해본 적이 없었기에, 나무 사이를 헤매며 이것저것 베어보고 묶어보는 실험적인 시도만 매일같이 반복했다. 밧줄도 없었고, 밧줄을 만들 만한 재료도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주변에 널린 덩굴식물들은 유연하지도, 강하지도 않았다. 아무리 과학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라 해도 덩굴을 밧줄처럼 쓸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생각해낼 수 없었다.

보름 넘는 시간 동안 나는 울타리의 검게 그을린 잔해와 배들이 불타버린 해변을 뒤지며 보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될 만한 못이나 흩어진 금속 조각이 있을까 싶어 샅샅이 파헤쳤다. 이따금 짐승인간들이 나를 지켜보곤 했는데, 내가 부르면 펄쩍 뛰어 달아나 버렸다. 한동안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 계절이 이어지면서 작업은 크게 더뎠다. 하지만 마침내 뗏목이 완성되었다.

나는 그것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늘 나를 괴롭히는 실질적인 판단력 부족 탓에, 나는 그것을 바다에서 1마일이나 떨어진 곳까지 옮겨 놓은 상태였다. 결국 해변까지 끌고 내려오기도 전에 그것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어쩌면 그것을 바다로 띄우지 못한 것이 차라리 다행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시에는 실패했다는 비참함이 너무나 컸기에, 나는 며칠 동안 해변에 멍하니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죽음만을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죽을 생각까지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던 중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나는 이대로 날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날이 새로이 밝아올 때마다 짐승인간들이 가하는 위험은 갈수록 커져만 갔기 때문이다.

울타리 벽 그늘에 누워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뒤통치 피부에 차가운 무언가가 닿는 느낌에 깜짝 놀라 몸을 돌렸다. 그러자 분홍빛을 띤 작은 나무늘보 모양의 생물이 내 얼굴을 향해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그 짐승은 말을 할 수 없게 된 지 오래였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다. 그 미친한 짐승의 힘없는 털은 날이

갈수록 굽어졌고, 짧고 몽툰 발톱은 점점 더 뒤틀려 갔다. 녀석은 내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자 신음 소리를 내더니, 덩불 쪽으로 조금 움직였다가 다시 나를 돌아보았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으나, 곧 그가 나더러 따라오라는 뜻임을 깨달았다. 나는 결국 그를 따라나섰다. 날이 무척 더웠기에 발걸음은 더딜 수밖에 없었다. 숲에 다다르자 그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땅 위보다는 흔들리는 덩굴 사이를 헤쳐 나가는 편이 그에게 더 수월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짓밟힌 풀숲 사이에서 나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나의 세인트버나드 생명체는 죽은 채 땅에 쓰러져 있었다. 그 사체 근처에는 하이에나-돼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놈은 기형적인 발톱으로 떨리는 살점을 움켜쥔 채, 그것을 잡아먹으며 즐거운 듯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괴물은 번뜩이는 눈을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붉게 물든 이빨 사이로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뒤로 말려 올라갔고, 놈은 위협적으로 으르렁댔다. 놈에게는 두려움도, 수치심도 없었다. 인간의 흔적이라 할 만한 마지막 자취마저 사라져 버린 상태였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가 멈춰 서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마침내 나는 놈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짐승은 물러설 기색이 전혀 없었다. 대신 귀를 뒤로 젖히고 털을 곤두세우더니, 몸을 잔뜩 웅크렸다. 나는 놈의 두 눈 사이를 겨냥해 총을 쏘았다.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그 괴물은 나를 향해 곧장 뛰어올랐고, 나는 마치 불링핀처럼 맥없이 나동그라졌다. 놈은 기형적인 손으로 나

를 움켜쥐고 얼굴을 내리쳤다. 놈은 탄력을 이용해 내 위를 덮치듯 넘어갔다. 나는 놈의 몸 뒷부분 아래로 깔려 넘어졌다. 다행히 조준한 대로 명중했는지, 놈은 도약하는 순간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나는 그 불결한 무게 아래에서 기어 나와,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운 채 경련하는 놈의 사체를 응시했다. 적어도 당장의 위험은 지나갔다. 하지만 나는 직감했다. 이것은 앞으로 반드시 닥쳐올 일련의 퇴행 중 첫 번째 일 뿐이라는 사실을.

나는 덤불을 쌓아 만든 장작더미 위에 두 시신을 모두 태워버렸다. 하지만 그 후로 깨달았다. 이 섬을 떠나지 않는 한, 죽음은 그저 시간문 제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 무렵 짐승인간들은 한두 마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협곡을 떠난 상태였다. 그들은 섬의 덤불 사이사이에 각자 취향에 맞는 은신처를 만들었다. 낮에는 돌아다니는 놈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잠을 잤기에, 새로 섬에 발을 들인 이에게는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밤이 되면 놈들이 내지르는 울음소리와 하울링이 공기를 끔찍하게 채웠다.

나는 차라리 놈들을 몰살해 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함정을 만들거나 칼을 들고 맞서 싸우고 싶었다. 만약 탄약만 충분했다면, 망설임 없이 살육을 시작했을 것이다. 이제 위험한 육식 동물은 스무 마리도 채 남지 않았을 것이고, 그중 용맹한 놈들은 이미 죽었다. 나의 마지막 친구였던 불쌍한 개마저 죽고 나자, 나 역시 밤에 경계하기 위해 낮에는 잠을 자는 습관을 들였다. 나는 울타리 벽 쪽에 은신처를 다시 만들었다.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요란한 소리를 낼 수밖에 없도록 입구를 아주 좁게 만들었다. 짐승들은 불을 다루는 법을

잇었을 뿐만 아니라, 불에 대한 공포마저 다시 되찾은 상태였다. 나는 탈출을 위한 뗏목을 만들기 위해 말뚝과 나뭇가지를 두드려 이어 붙이는 일에 다시금 몰두했다. 이제는 거의 광기에 가까운 열정으로 말이다.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나는 워낙 손재주가 없는 사람이라, 슬로 이드(Slöjd) 교육을 받기도 전에 학업을 마쳐버린 탓도 있었다. 하지만 뗏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조건들은 결국 서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나마 하나씩 해결해 나갔고, 이번에는 뗏목의 강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 유일하게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은 물을 담을 그릇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 미지의 바다로 나아가려면 물이 반드시 필요했다. 도자기를 구워볼까도 생각했지만, 섬에는 점토가 없었다. 나는 이 마지막 난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섬을 정처 없이 헤매곤 했다. 때로는 참을 수 없는 짜증이 치밀어 올라 격렬하게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다. 그럴 때면 화풀이라도 하듯 운 나쁜 나무를 찍어 내리며 산산조각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황홀경에 빠질 만큼 경이로운 날이 찾아왔다. 남서쪽 방향에서 작은 스쿠너호처럼 보이는 작은 돛 하나가 보였다. 나는 즉시 덩불을 한데 모아 커다란 불을 피웠다. 그리고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 타오르는 불길 곁에 서서 그 돛을 지켜보았다. 하루 종일 아무 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그 돛만을 응시했더니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짐승인간들이 다가와 나를 노려보더니, 의아한 듯 바라보다가 다시 멀어져 갔다. 밤이 찾아와 돛을 집어삼킬 때까지도 배는 여전히 멀리 있었다. 나는 밤새도록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필사적으로 매달

렸다. 어둠 속에서 짐승인간들의 눈동자가 경이로움에 찬 채 번뜩였다.

새벽녘이 되자 돛은 더 가까워졌고, 그것이 작은 배의 때 묻은 러그 세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배가 움직이는 모양새가 이상했다. 계속 지켜보느라 눈이 침침해졌지만, 나는 눈을 비비며 다시 살펴보았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다. 배에는 두 남자가 낮게 앉아 있었다. 한 명은 선수 쪽에, 다른 한 명은 키 쪽에 앉아 있었다. 배는 바람을 정면으로 맞지 못한 채, 갈지자로 흔들리며 경로를 이탈하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자 나는 재킷의 마지막 남은 조각을 흔들어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알아채지 못한 채, 서로 마주 보고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낮은 곳의 가장 낮은 지점으로 달려가 몸짓을 크게 하고 소리치기까지 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배는 목적지 없이 계속 나아갔고, 아주 느릿느릿, 정말이지 아주 천천히 만을 향해 움직였다. 그때 갑자기 커다란 흰 새 한 마리가 배 위로 날아올랐다. 배에 탄 두 남자는 새가 나타난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새는 배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힘찬 날개를 활짝 펴고 내 머리 위를 가로질러 날아갔다.

나는 소리를 지르는 것을 멈췄다. 그리고 곳의 끝자락에 주저앉아 두 손에 턱을 짚은 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배는 아주 천천히, 아주 느릿하게 서쪽을 향해 떠내려갔다. 당장이라도 헤엄쳐 나가 붙잡고 싶었지만, 차갑고 막연한 공포가 나를 붙들었다.

오후가 되자 조수가 빠지면서 배가 해변에 걸렸다. 배는 우리를 가두었던 울타리 유적에서 서쪽으로 백 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 남겨졌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어 있었다. 너무 오래되어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 있었다. 내가 배를 옆으로 기울여 시신을 끌어낼 때마다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갔다. 그중 한 명은 이페 카쿠아나 호의 선장처럼 붉은 머리카락이 덩수룩했고, 배 바닥에는 때가 탄 흰색 모자가 놓여 있었다.

배 옆에 서 있자니, 짐승인간 세 마리가 덤불 속에서 살금살금 기어 나와 나를 향해 쿵쿵거리며 다가왔다. 순간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작은 배를 해변 아래로 밀어 넣고는 서둘러 배 위로 기어 올라탔다. 짐승인간 중 두 마리는 늑대 짐승이었는데,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번뜩이는 눈을 한 채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나머지 한 마리는 곰과 황소를 뒤섞어 놓은 듯한, 정체를 알 수 없는 끔찍한 괴물이었다. 그 비참한 잔해들을 향해 다가오는 짐승들을 보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번뜩이는 이빨을 목격하자 혐오감은 곧 미칠 듯한 공포로 바뀌었다. 나는 짐승들에게 등을 돌린 채 돛대를 치고 바다를 향해 노를 저어 나갔다. 도저히 뒤를 돌아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암초와 섬 사이의 바다에 배를 띄운 채 머물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배를 몰아 시냇가로 가서 비어 있는 통에 물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인내심을 발휘하며 과일을 한가득 모았고, 남은 탄약 세 발로 토끼 두 마리를 매복하여 잡았다. 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혹시라도 짐승인간들이 나타날까 두려워, 배를 암초의 안쪽 돌출된 부분에 묶어 두었다.

제XXII장

홀로 남겨진 인간.

저녁 무렵, 나는 항해를 시작했다.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을 타고 배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바다로 나아갔다. 섬은 점점 더 작아졌고, 뜨거운 노을을 배경으로 길게 뻗어 있던 연기 기둥은 가느다란 선이 되어 사라져 갔다. 바다가 내 주변으로 솟아오르며, 눈앞에 보이던 낮고 어두운 섬의 형체를 가려버렸다. 태양의 잔광이 머물던 낮의 빛이 하늘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마치 빛나는 커튼을 걷어낸 듯 하늘이 열리더니, 마침내 햇빛에 가려져 있던 끝없는 푸른 심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에는 별들이 무리 지어 떠 있었다. 바다는 고요했고, 하늘 또한 고요했다. 나는 밤과 정적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렇게 사흘 동안 나는 표류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최소한으로 줄인 채,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때의 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조차 간절하지 않았다. 몸에는 더러운

걸레 하나를 두르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검게 뒤엉킨 상태였다. 나를 발견한 사람들은 분명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상하게도 인류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욕구는 전혀 들지 않았다. 그저 짐승인간들의 그 불결함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쁠 뿐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아피아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범선 한 척이 나를 구조했다. 선장과 일등 항해사는 나의 이야기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고립과 위험 속에서 내가 미쳐버렸다고 판단했다. 혹여나 다른 이들도 자신들과 똑같이 생각할까 두려웠던 나는 더 이상 모험담을 늘어놓지 않았다. 나는 레이디 베인 호를 잃어버린 시점부터 구조될 때까지, 즉 약 1년 동안 내게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치광이로 몰리지 않으려면 극도로 조심하며 행동해야만 했다. 법에 관한 기억, 죽은 선원 두 명에 대한 기억, 어둠 속에서 겪은 매복 공격, 그리고 갈대밭에 버려진 시신에 대한 기억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기이하게 들리겠지만, 인간 사회로 돌아온 뒤 내가 기대했던 자신감이나 공감 대신 찾아온 것은 섬에서 겪었던 불확실성과 공포가 더욱 짙어진 기분이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터였다. 나는 사람들에게 짐승인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기괴한 존재로 비춰졌다. 어쩌면 나는 함께 지냈던 그 동료들에게서 본능적인 야성을 조금 물려받았는지도 모른다. 공포는 일종의 질병이라고들 한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내 마음속에는 쉴 새 없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길들여지다 만 사자 새끼가 느끼는 것과 같은, 불안한 공포였다.

나의 고통은 기이한 형태로 찾아왔다. 내가 만나는 남녀들이 사실은 또 다른 짐승인간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인간의 영혼을 닮은 외형을 흉내 내도록 반쯤 빚어진 짐승들, 머지않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이 짐승 같은 흔적과 저 짐승 같은 흔적을 하나둘 드러내기 시작할 존재들이 아닐까 하는 의심 말이다. 나는 이 사정을 아주 유능한 사람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모로를 알던 사람이었고, 내 이야기를 어느 정도 믿어주는 듯한 정신과 전문의였다. 그가 나를 크게 도와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섬에서 느낀 공포가 내게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는다.

대개의 경우 그 공포는 마음 저편에 머물러 있다. 그저 멀리 떠 있는 구름이나 희미한 기억, 혹은 막연한 불신 정도로 남아 있을 뿐이다. 하지만 가끔은 그 작은 구름이 넓게 퍼져나가 온 하늘을 뒤덮을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며 두려움에 떠다. 예리하고 빛나는 얼굴도 보이고, 멍하거나 위험해 보이는 얼굴도 보인다. 또 어떤 얼굴은 불안정하고 가식적이다. 이들 중 그 누구에게서도 이성적인 영혼이 지닌 차분한 권위는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그들의 몸 안에서 짐승의 본능이 치밀어 오르는 것만 같다. 섬에서 벌어졌던 그 타락이, 이제 더 큰 규모로 다시 재현될 것만 같다.

이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진정한 인간이라는 사실도 안다. 이들은 영원히 인간으로 남을 존재들이며, 완벽하게 이성적인 생명체들이다. 인간적인 욕망과 다정한 배려로 가득 차 있으며, 본능에서 해방되어 기괴한 법의 노예가 되지 않은 존재들이다. 즉, 짐승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다. 그럼에도 나는

사람들을 피하게 된다. 그들의 기묘한 시선과 질문, 도움조차도 두려워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홀로 있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탁 트인 평원 근처에 살며, 영혼에 그림자가 드리울 때면 그곳으로 도망치곤 한다. 바람이 몰아치는 하늘 아래, 텅 빈 평원은 그럴 때면 더없이 평온하게 느껴진다.

런던에 살 때 느꼈던 공포는 거의 견딜 수 없는 수준이었다. 사람들을 피할 길이 없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잠가둔 문조차 변변한 방어막이 되지 못했다. 환각과 싸워보려고 거리로 나서면, 배회하는 여인들이 나를 향해 야옹거리며 따라붙었다. 은밀하고 갈망에 찬 남자들은 나를 시기하듯 곁눈질했다. 지치고 창백한 노동자들은 피를 뚝뚝 흘리는 상처 입은 사슴처럼, 피곤한 눈을 하고 조급한 걸음으로 기침을 해대며 내 곁을 지나갔다. 허리가 굽고 굵은 노인들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지나갔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롱을 일삼는 아이들이 너저분하게 줄지어 따라붙었다.

나는 도망치듯 어느 예배당으로 몸을 피하곤 했다. 하지만 그곳에서조차 마음이 너무나 어지러운 나머지, 설교자가 마치 유인원 인간이 그랬던 것처럼 "크게 생각하라"는 말을 횡설수설 지껄이는 것처럼 들릴 정도였다. 도서관으로 피신해 보아도, 책에 몰두한 사람들의 진지한 얼굴은 그저 먹잇감을 기다리는 인내심 강한 짐승처럼 보였다. 특히 기차나 합승마차에 탄 사람들의 멍하고 표정 없는 얼굴은 구역질이 날 만큼 끔찍했다. 그들은 시체와 다를 바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기에, 혼자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한 감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뇌에 깃든 어떤 기이

한 병으로 인해 선회병(gid)에 걸린 양처럼 홀로 떠돌게 된 한 마리 짐승에 불과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 이런 기분이 찾아오는 일은 예전보다 훨씬 드물다. 나는 도시의 혼란과 군중에게서 물러나, 지혜로운 책들에 둘러싸여 하루하루를 보낸다. 책은 인간의 빛나는 영혼들이 밝혀 놓은, 우리 삶의 환한 창문과도 같다. 낯선 이들을 마주할 일도 거의 없고, 집안 식구도 단출하다. 나는 독서와 화학 실험에 전념하며, 맑은 밤이면 천문학을 연구하며 시간을 보낸다. 어떻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반짝이는 하늘의 별무리 속에는 무한한 평화와 보호의 감각이 깃들어 있다. 우리 안의 동물성을 넘어선 무언가가 위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인간의 일상적인 근심과 죄악, 그리고 번뇌 속이 아니라, 바로 저 광대하고 영원한 물질의 법칙 속에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희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에.

그리하여, 희망과 고독 속에서 나의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에드워드 프렌딕

참고.

이 소설의 핵심 구상을 담고 있는 「모로 박사의 설명」이라는 장은 1895년 1월 《새터데이 리뷰》에 중편 기사로 실린 바 있다. 이 부분은 이 이야기가 이전에 발표된 유일한 대목이지만, 서사 형식에 맞게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시 쓰였다.